○ 동국대학교 행정학전공 강 ○ 영

우선, 봉사활동 총평을 하자면 한 해 동안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가며 봉사활동한 보람이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의 경우, 환경노동부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면서 관심 분야인 노동 정책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 시행 과정의 문제점 등을 상세하게 알 수 있어서 정말 유익했다.

특히 학창 시절, 노동권에 관심을 갖고 조사하였던 택배서비스산업종사자들의 노동권 침해와 쿠팡의 횡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회의원의 질의를 보니 새삼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고 반가웠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했다.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 어떤 국회의원이 제대로 준비를 해서 질의를 하는지가 명확하게 보였고, 전반적으로 대부분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의외였다.

뉴스 기사를 보면 국회가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말들이 엄청 많고 국민의 반감이 커서 모든 국회의원이 그런 줄로만 알았기 때문이다. 국민이 낸 세금이 이렇게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또한 굉장히 나에게 유익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경제 정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질의가 많이 들어왔다. 개인적으로 경제에 크게 흥미가 없기 때문에 모니터링 과정에서 각종 경제 용어와 이론을 정리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느라 힘들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참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학기 봉사활동이 끝나더라도 내년엔 신청하여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만한 활동이었다. 이번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계기로 이제는 뉴스를 보면서 어떤 국회의원인지 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이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건지 알 수 있게 되어서 배경지식이 한층 늘어났다. 또 모니터링에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방학기간에 봉사활동을 안 하더라도 다른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 모니터링도 개인적으로 해볼 계획이다.

판결문 리서치의 경우에는 평소엔 법률학회활동으로 판례 평석, 모의재판, 변론서 작성을 했던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다. 또, 국정감사 모니터링 못지 않게 재밌었는데 학교 법과목 수업 시간에 분석했던 판결문, 대법원 게시판에 의외의 판결로 공지된 판결문을 가지고 분석하니 내용 자체가 두 개 다 흥미로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활동한 것 같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판결문은 워낙 길이가 길고, 같은 의견이어도 법리적 근거와 논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의견의 쟁점을 파악하는게 힘들었고 헌법적 원리를 사건에 적용하는 것도 어려웠다. 그렇지만 시간을 들인 만큼 사건이 이해되고 나니까 생각할거리들이 많아서 좋았다. 올해는 바빠서 많은 활동을 못했던 점이 아쉬웠기에, 내년엔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더 많이 해보고 싶다.

○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강 ○ 희

우선 처음에 이 봉사활동에 지원하였을 때는 단순히 로스쿨 진학을 위한 대외활동, 딱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다. 다시 말해 봉사 혹은 법 관련 활동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저 미래를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었다. 그런데 오티회신서의 작성을 위해 오티교재를 차근차근 읽다보니 법과

사회(자원)봉사 소감문
2023년도 가을학기 소감문

국회 등이 가진 의의나 목적 등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대학생활을 하며 학과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밖에 나가서 노느라 잊고 있었던, 내가 법조인이 되고 싶어 했던 이유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이 봉사활동을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활동 그 자체에 목적을 두어 활동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활동 하나하나에 진심을 다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여담이지만 오티회신서의 답 중 하나였던 '자원봉사'는 사회공익 및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고 개인이 보람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이 왜인지 모르겠으나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은 나에게 참으로 힘든 활동이었다. 시사에 대해 관심도 없고 무지하던 내에게는 시사 문제와 피감사기관의 정책에 대해 논하는 국정감사는, 감사위원들이 하는 각종 발언과 질의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질의는 처음부터 다시 듣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며 꾸역꾸역 그 내용을 이해해 나갔다. 이렇게 하다보면 가령 8시간의 국정감사를, 나는 그 두 배인 16시간의 모니터링을 하게 되었다. 해보지 않았고 관련 내용에 무지한 자에게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고역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럴때마다 앞서 말했듯이 활동 하나하나에 진심을 다하기로 했던 내 다짐을 되새기며 이 활동 안에서 무언가를 얻어가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나의 노력 덕분이었을까, 감사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이해하는 요령이 생기고 감사의 주요 안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점점 알아가게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감사위원들의 질의 내용과 방식, 그 태도에 있어서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 혹은 어떤 부분이 잘못 되었고 어떤 식의 개선을 해야할지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질의 혹은 발언 방식에 대해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가령 나는 적절한 근거를 대지 않고 무작정 주장만 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든 예시가 설득하고자 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성찰의 결과, 나는 상대의 주장에서 오류와 허점을 발견하기를 잘하나, 나의 주장에 대한 논리를 빠르게 펼치고 이를 언어적으로 구현해 내는 것에 있어 아직 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때문에 이 봉사활동이 끝나면 아마 나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활동을 해봐야하지 않을까 싶다. 한편 나는 두 번째 국정감사로 법제사법기관을 택하였다. 해당 국정감사에는 과거 법조인이었던 사람들, 현재 법조인인 사람들이 다수 자리해서 그런지 첫 번째 국정감사 기관보다 주장의 논리적 전개 방식이 참신하거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매우 탄탄하였고, 질의의 태도와 그 방식에 있어서도 매우 격식있었

다. 또한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정감사의 주요 안건들을 바라보고자 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를 보며 나는 저러한 모습이 내가 추구해야 할 법조인이 될 나의 모습이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정말 다음번에도 또 하고 싶을 정도로 의미가 있고 재미있었던 활동이었다, 시험 준비를 위해 다음번 봉사활동에 지원하지 못할 것 같긴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활동하고 싶을 만큼 나에게 정말정말 의미가 깊다. 우선 판결문 리서치도 활동 초반에는 정말 힘들었다. 살면서 판결문은 세세하게 읽어본 적도 없었고, 당사자에 대해 검색을 해본 적도, 판사들의 판단이 과연 옳은 혹은 최선의 판단이었을까? 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첫 번째 리서치는 역시나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끝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만큼 얻어가는 것도 참 많았다. 경제 분야, 법률 분야 등 다양한 분야들의 용어를 익힐 수 있었고 대학 수업에서 추상적으로만 배웠던 항고의 과정들을 (이러한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머릿속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내가 판사라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과정도 해당 판결문 리서치를 하기 위해 필요하였는데, 그동안 내가 토론을 준비하며 해왔던 주장·근거 찾기와는 달리 객관적인 법률을 가지고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색달랐고 나의 판단이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더 무게감 있게 느껴졌다. 또한 무조건적으로 나의 주장과 판단이 옳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근거(법률)들을 먼저 분석한 뒤에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결론(주장)을 내린다는 점에서도 역시 많은 매력을 느낀 것 같았다. 판결문 리서치를 하면서도 역시나 내가 아직 나의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하고픈 말들을 언어적으로 구체화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마 훌륭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나는 이번 봉사활동들을 통해 다시 한번 법의 매력을 느꼈다. 추상적이거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법을 개별 사례들에 적용하기 위해 법문의 의미 내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많은 즐거움을 느꼈고 이러한 해석을 통해 내린 결론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있어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책임이 막중한지도 느꼈으며, 올바르게 뚜렷한 나만의 신념대로 살아가자는 나의 생활 방식과 법조인으로서의 활동이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나는 법조인이 되어야겠다는 굳은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나에게 이번 활동은 나의 미래(꿈)와 현재(내가 공부한답시고 해왔던 의미 없던 활동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고 앞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어 준 고마운 활동들이었다. 우연히 알게 된 이 봉사활동을 나에게 좋은 법조인이 되라는 신호로서 받아들이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강 ○ 연

2023년 가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대한 소감을 적고자 합니다. 제가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신청해서 활동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법조인의 꿈을 가지고 로스쿨에 진학

하기 이전에 법과 관련된 여러 활동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여러 활동을 지원하고 있기에 제가 여러 경험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통해 법을 연구하는 활동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해외 법 번역 활동을 통해 법을 연구하고 자료를 쌓는 데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가을학기 봉사활동을 통해서 정말 유익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을학기 봉사활동의 좋았던 점은 국정감사 시즌에 직접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0월에 국정감사가 이뤄지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금까지는 직접 국정감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기보다는 뉴스로 굵직한 이슈들만 확인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이나 8시간 이상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일일이 모니터링 하면서 국정감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 현재 각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은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스스로 하기 어려운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제대로 된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사건이 많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통해 적시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지, 조금 늦어지더라도 절차에 거쳐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지 두 문제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꾸준히 주목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헌법연구관에 법조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뽑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통해 헌법연구관의 역할과 법조인 이외에 어떤 사람들이 적합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게 되었습니다. 법을 연구할 때 있어서 법리적인 측면 이외에도 현실적으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구가 필요할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사법 감시 배심원단 활동을 통해서 중요한 이슈의 재판이 있을 때 법정에 참석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이 저에게 특별했던 이유는, 이전에는 법원을 방문해 실제 재판을 참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가기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참관을 해보니, 재판 및 법적 활동의 권위를 다시 느끼면서도 마냥 어려운 분야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막연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다가가기 어려움을 느꼈다면, 이제는 시민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혼자서도 법원을 방문해 참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시민들이 많아질수록 법적 처리 과정이 더 공정하고, 시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수록 투명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판을 참관하면서 판사의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모든 시민을 동등하고 공평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은 법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을 통

해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구제하고, 법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서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법을 제대로 집행하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고 모두를 위한 세상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법을 만들어내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기 위해서 시작한 활동이 저를 성장하게 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활동으로 스스로의 소양에도, 다양한 경험을 키우고자 하는 저의 목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겨울이나 여름에 또 한 번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된다면, 판결문 리서치나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해서 또 다른 경험을 쌓고 싶어졌습니다. 특히 내년에 총선이 있는 만큼 의정 모니터링 활동이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강 ○ 서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2023년도 가을학기 봉사활동은 친구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봉사활동 후기를 보면서 상당히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봉사활동이 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봉사활동을 막 끝낸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보니, 그 느낌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은 후회의 감정 속에서 든 생각이 아니라 뿌듯함의 감정 속에서 든 생각이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나에게 제공하여 나로 하여금 더 높은 법률적 지식과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정치의식을 가지게 하였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으로는 크게 두 가지 활동을 하였는데, 국정감사 보고서 작성과 판결문 리서치 작성이 그것이었다. 먼저 한 활동은 국정감사 보고서 작성이었다. 처음에는 직접 국회로 가서 현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긴장했었으나, 비대면으로 국회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녹화된 국정감사 영상을 시청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상당히 편리했다. 특히나 타자 속도가 느린 나로서는 국정감사 현장에서 작성하는 보고서와 집에서 작성하는 보고서의 질적 차이가 심할 것이 분명하였기에 다행이었다. 내가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한 국정감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큰 이슈인 과학 분야 R&D 예산 삭감과 우주항공청 설립, 통신비 등의 주제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많이 이루어졌다.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 이재용 회장의 수사 관련 주제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많았다. 두 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들으면서, 국회의원들의 질의 중 어떤 국회의원의 질의는 매우 실질적이고 가치가 높은 질의였다면 어떤 국회의원의 질의는 필요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 질의가 있는 등 그 편차가 심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그런데 많은 의원들이 같은 주제에 대하여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양한 현안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는 국정감사의 역할에서 크게 떨어진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최근 여당과 야당이 정치적으로 크게 대립하는 주제에 대하여 주로 질의가 쏟아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발전적인 해결방안보다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만 더 드러나는 국정감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한편 뉴스에 종종 나오는 국정감사에서 파행과 과격한 언행들은 두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때때로 심한 언쟁은 있었다. 어느 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속기분을 살피보자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파행으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들도 있었다. 몇몇 의원들은 상대 의원에게 대한 존칭을 하지 않고 반말을 하는 등 격양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고 발전적인 국정감사를 위해서는 서로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질의와 토론이 오가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드는 순간들이었다.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에서는 두 판결에 대한 1심, 2심, 3심 각각의 판결문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하였다. 이번 학기 학교에서 보험법 수업을 듣고 있는 터라, 두 판결 모두 현재 보험법 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판결들로 선택하였다. 봉사활동 기간과 기말시험 기간이 살짝 겹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는 압박감이 들기는 하였으나, 보험법 수업에서 다루는 판례를 리서치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봉사활동도 하면서 학교 공부까지 한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리서치 활동에 임했다. 학교에서 법을 배우고 있기는 하지만,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이를 정리한 경험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활동은 법조인을 지망하는 나에게 있어 매우 뜻깊은 활동이었다. 판결문을 읽으면서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너무 긴 문장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판결문이 더욱 일반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에서 가장 가치있다고 느낀 활동은 판결문에서 나오는 어려운 용어들을 정리하는 활동이었는데, 두 판결문 모두 10개가 넘는 용어들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단순히 법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려운 용어들을 고른 것이 아니라 법을 공부하는 대학생인 나에게도 어려운 용어들이 많았기에 이런 활동들은 나에게도 매우 학술적인 활동이었다. 한편 두 번째 판결인 대법원 2020다291449 판결을 다루면서, 해당 사건이 파기환송심까지 존재하였기에 1심과 2심, 3심, 파기환송심 모두에 대한 판결문 리서치를 해야 했다. 처음에는 파기환송심이 익숙하지 않았기에 두려웠지만 리서치를 하는 과정에서 익숙해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뿌듯함을 느꼈다. 실제 많은 사건들 중 1심과 2심, 3심으로 딱 떨어지는 않는 사건들도 있을 것이고, 각 심급에서의 판결이 원고와 피고 중 한 쪽의 명백한 승리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드물 것이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절충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파기하여 2심으로 환송하는 경우들을 직접 리서치하면서, 실제 법원의 판결문이 어떤 형식으로 작성되는 것인지,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들이 어떤 법률관계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하는 것인지를 이번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이번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법조인이 꿈이었던 나에게 실제 법조계의 활동들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는 역할을 해주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나에게 소중한 기회였으며 값진 경험이었다. 봉사활동을 했던 시간들은 나에게 귀한 경험으로 남아 이후 법조인이 되었을 때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률 활동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조인을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을 추천하고 싶다.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강 ○ 호

고등학교 시절 학생자치법정 활동을 통해 법에 대해 큰 흥미를 느낀 이후 계속해서 법조인을 장래 희망으로 삼아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조인을 준비하던 중 단순히 법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제학을 전공하며 사회 전반에 대한 지식을 넓혔습니다. 또한 공익과 법을 연계 전공하여 법학에 대한 지식 역시 놓치지 않으며 법에 대한 지식을 넓혀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을 알고만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던 중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서 국정감사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여 간접적으로 배운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국회의 국정 감사를 직접 지켜보며 국정 감사의 역할과 필요성을 실감하고, 해당 봉사활동을 통해 일련의 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번역 봉사를 신청하여 BSB Handbook 2015를 번역하며 다른 나라의 법률을 우리나라의 법률과 비교해보고, 이를 번역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더 다양한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 필수 봉사활동으로 국정감사모니터링에 참여하였습니다. 국정 감사는 헌법에 근거한 국회의 정부 견제 수단으로, 권력분립을 실현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국정 감사나 관련 뉴스를 보시면 단순히 재미없는 말싸움을 왜 보시는 거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법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국정 감사를 모니터링하니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국정 감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국정 감사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행정부의 활동에 대한 국회의 감사와 이를 통한 정부 권력 남용의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국정 감사가 없었다면 정부는 자의적으로 행정권을 남용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는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강의와 책 등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국정 감사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나, 직접 눈으로 보며 모니터링하니 국정 감사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고 알고 있던 지식을 더 확고히 하며, 한편으로는 알고만 있던 것을 실제로 접하니 신선함도 느꼈습니다. 또한, 이렇듯 중요한 국정 감사에 국정감사모니터링 봉사활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번역 봉사활동 역시 법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법의 목적은 대부분 같지만, 그 형태와 내용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나라 법을 중심으로 생각하기에 국한된 시선으로 법률

쟁점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중 한 명이었기에 비교적 좁은 시야를 가지고 법 관련 내용들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이 뛰어난 것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항상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번역 봉사를 통해 다른 나라의 법률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법에 국한되어있던 저의 법적 시각과 사고의 틀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울 건 배우고, 고수해야 할 건 유지해야 법률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저에게 큰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던 내용들을 직접 경험해보는 매우 유의미한 봉사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률을 바라보고 분석할 때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지고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련의 봉사활동들에 참여하면서 제가 법률 분야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보람과 뿌듯함을 역시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더 의미 있고 보람찬 봉사활동에 이어갈 것입니다. 이처럼 뜻깊은 봉사활동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강 ○ 승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찾아보다가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 한 봉사활동소감문을 블로그에서 읽게 되었다.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 다양한 종류의 봉사활동을 매개체로형법에 매우 관심이 많았던 나의 지적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봉사활동을 지원하였다. 법과 정의 앞에서 공정하고 청렴한 법조인의 꿈에 어떻게 하면 한발짝 다가갈 수 있을 까, 그동안 깊이 있게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고민하던 중 블로그에서 본 법률 소비자 연맹 봉사활동 소감문은 나에게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 봉사활동이라 대학교 학기와 봉사활동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시간 조율에 미흡함으로 인해 국정감사모니터링만 수행할 수 있었다.하지만 따로 보고서를 작성하지는 못하였지만 판결문 리서치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다.

모든 봉사활동이 나에게 뜻 깊은 경험과 법조인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만들어주었다. 특히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수행한 것은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다. 일정상 국회에 직접 가서 참석하여 현장 모니터링은 하지 못했지만 총 3번에 걸쳐서 국방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행정안전 경찰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화상모니터링을 했다. 이때까지 국정감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여 모니터링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뉴스나 인터넷 매체에서는 자극적이고 답을 회피하는 위원들만 접했던 국정감사의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볼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하면서 인상 깊은 여러 가지 장면, 질의, 답변이 있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첫번째로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권리를 위해 앞장서서 행동하는 국민의 대표라는 이미지보다는 권위적인 모습, 호통을 치는 모습으로 많이 비춰졌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모습과 실제 국회의원의 모습은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내가

모니터링한 3개의 위원회에서는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3차질의에서 끝내지 않고 4차질의 시간까지 사용하며 각 위원회장에게 성실하게 질의를 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질의내용이 현재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는 모습이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 매우 철저하고 신중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느꼈다. 이러한 점에서 자극적인 장면만 노출시키는 언론과 반대로 법률소비자연맹과 같은 단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 다시금 체감할 수 있었다. 두번째로는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과정 또한 야당과 여당사이의 정치적 경쟁의 일부라고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쟁으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질타하고 발언권을 무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알고 있었다. 내가 참관한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여당의 구분없이 위원회에 알맞은 질의를 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고 심지어 야당, 여당 의원이 동일한 주제에 대해 서로의 질문을 인용하며 위원장에게 질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야당의원이 여당의원에게 질의 내용에 대해 칭찬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번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한국 정치의 수준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한 활동이었고 내가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있고 중요한 지도 몸소 깨닫게 된 귀중한 시간이었다.

이번 학기 봉사활동을 마치며 봉사활동 소감문을 쓰다 보니 더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하지만 겨울학기에도 봉사활동을 지원하여 판결문리서치,법정 모니터링 등 여러 활동을 통해 폭넓은 경험을 하고 우리 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해야 겠다고 다짐했다.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고 ○ 진

1.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

생생한 국정감사 현장을 모니터링하며 배우고 느낀 점이 많았다. 텍스트와 이론으로 배우는 법과 정치에서 나아가, 좀 더 와닿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특히 학부 시절 <입법론> 수업을 들으며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의 존재는 알고 있었으나, 국정감사는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등은 알 수가 없었다.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히 이론으로 배운 국회의 구조들이 눈에 쏙쏙 들어왔다. 궁금했던 지점들이 해소되고, 좀 더 사법 제도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느꼈다. 뉴스로만 막연하게 들었던 현황 이슈들이 좀 더 또렷하게 다가왔기에 앞으로 정치 뉴스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꼈다.

또한 의원들 모두 열정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모습이 인상깊었다. 하지만 다소 격양된 분위기로 이끌어질 때는 좀 더 명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의장이 발언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좋았으나, 나아가 공격적인 질의 또한 제재해야 건전한 국정감사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회 이슈와 정치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 또한 기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모니터링은 제3자의 입장에서 관전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 의원들이 질의를 할 때 어떤 부분이 편향적인지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피드백 부분을 작성하며, 질의 및 답변 내용들 중 어느 부분이 보완되면 좋을지도 생각하면서 사고를 확장해나갈 수

있었다.

2. 법조문 번역 활동

법조문 번역 활동을 결심하고 나서, 막상 생소한 영국 법령을 번역하려다 보니 겁이 났다. 학부 시절 전공 영어 강의를 들었던 기억을 되살려보기로 했다. <미국 법입문>, <미국재산법> 등의 영미법 관련 수업 자료들을 찾아보며 법률 용어를 복기했다. 미국과 영국은 법률체계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영미대륙법이라는 큰 틀로 묶이기 때문에 참고가 되었다. 판례와 조문을 읽어 나가며 다시금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떠오르며 복습할 수 있었다.

봉사와 동시에 전공 공부까지 복기할 수 있어 뿌듯했던 활동이었다. 영국 법정변호사의 행동 지침을 번역하며 우리나라의 변호사 제도와는 다른 점들이 꽤 많아 흥미로웠다. 학부 수업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영국의 사법 체계를 익힐 수 있었다. 특히 법정 변호사와 사무 변호사로 구분되는 점이 인상깊었다. 우리나라와의 비교법적인 분석을 통해 식견을 더 넓힐 수 있었다. 추후에는 미국이나 독일 법률 또한 번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 국민대학교 법학부 고 ○ 진

이번 봄학기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판례들을 접하면서 판례의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는데 어느정도 익숙해지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은 대학교에서 형사, 민사, 행정법 수업을 들을 때 나오는 여러 판례들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경험으로 이번 가을학기에도 봉사활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수업에서는 대법원의 요지 등만 보게되어 판례의 결과만을 숙지하는 형태로 공부하였는데, 판결문리서치 봉사에서는 1심, 2심과 같은 하급심의 판결도 읽어보며 하급심에서는 이를 어떻게 판단하였으며, 대법원과 그 판결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하급심의 판사는 왜 그러한 판단을 내렸는지, 그리고 대법원은 이러한 하급심의 판단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길래 다른 판단을 하게되었는지 과정을 보고 이해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에서 의사의 설명 이후에 환자가 그 설명에 따라 자신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설명 이후 가까운 시간 내에 수술에 들어갔다면 이는 설명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이 아니라는 판례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하급심의 판결문에서는 의사가 설명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저도 해당 판결문들을 읽어보며 의사의 설명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위의 대법원 판례를 읽어보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입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는 대법원이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이번 가을학기에는 국정감사 온라인모니터링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교과과정을 거쳐오며 국회가 행 정부를 견제하는 수단 중 하나로 국정조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뉴스에서 간간이 국정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주위들을 뿐 직접 그 과정을 봐볼 생각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모니터링에 대한 이야

기를 들었을 때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국회에는 다양한 위원회가 있었고, 제가 관심있어 하는 분야의 위원회를 골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특히 대학교에서 '문화산업법' 과목을 수강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였고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설명해주셨던 논란들을 국정감사에서 직접 접할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판결문리서치를 하면서 실제 법률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과정들을 알 수 있었고, 국정감사 온라인모니터링에 참가하면서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행정쟁송법과 노동법에 관련된 수업을 들을 계획 중에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법률소비자연맹의 겨울학기 봉사에도 참여하여 미리 행정쟁송이나 노동법과 관련된 대법원의 주요 판례를 검색해보고 읽어보면서 다음학기의 수업 내용들을 미리 예습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고 ○ 지

어린 시절부터 법조인을 꿈꿔왔던 저는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진짜 법조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앞서 그 길을 걷고 있는 선배님께서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통해 배우고 얻은 바가 많다고 하여 저 역시 금년 가을학기에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자로 활동하여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자하였습니다.

이번학기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 중 제가 참여했던 활동은 가을학기 필수활동이었던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과 번역활동이었습니다.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이나 국정감사NGO현장모니터단활동에도 참여하고 싶었으나 수업시간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참여하지 못한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는 그 시간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모니터링 했던 국정감사는 10월 27일에 진행되었던 외교통일상임위원회의 통일부 외교부 등 종합감사, 그리고 10월 26일에 진행되었던 환경노동상임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감사입니다. 제가 각각의 상임위원회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외교통일상임위원회의 경우 저의 전공이 정치외교학과인만큼, 외통위의 종합감사를 모니터링을 함을 통해 국제정세나 외교정책 등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한편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한 국정감사라면 조금 더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환경노동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선택한 이유 역시 이와 비슷합니다. 평소 고용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에서도 기업의 고용정책 및 인사관리정책 등을 배우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배울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모니터링을 통해 저는 제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 영역에서 아직 제가 모르는 사안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많으며, 정책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책의 내용이 실질성을 갖는 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는 점,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복지정책과 같은 수익적 행정을 제약하며, 예산의 집행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 등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현실 정치, 현실 행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으로,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자로 지원했던 마음가짐이 개강 후 밀려오는 과제와 수업들, 그리고 이외에 몸담고 있는 학회나 대외활동 등 현실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들에 치여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발신한 국정감사모니터링 신청 메일을 받기 이전까지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신청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모니터링에 참여한 이후부터 봉사자로서의 책임감을 인지하였고, 활동에 참여하며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누구나 기한 내에 신청 후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개방적이고 접근이 용이합니다. 그러나 신청 이후의 오티자료에 대한 회신 메일부터 각종 활동에 대한 참여신청과 보고서와 같은 결과물 제출에 있어 철저한 자율성에 기반합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감에서 비롯되는 자율성으로 지속되는 진정한 의미의 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책임감과 자율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봉사활동이 오늘날에는 요건충족, 시간채우기 등 외부적 강제에 의해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률소비자연맹의 활동만큼은 그것들과는 구별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사실 국민이라면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할 정치활동 및 사법활동을 대신하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즉 건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국민의 비판과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한 민주주의로의 발전에 아주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유의미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학기에도 봉사에 참여하며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권 ○ 은

먼저,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평소 국정감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여 찾아보지 않고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국정감사가 무엇이고 어떤 걸 담고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평소에 국회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지 정확하게 잘 몰랐습니다. 이론적으로만 무슨 일을 한다고만 알고 있었고 또 뉴스를 보다보면 싸움이 일어나는 장면만 보여주기에 국회의원 분들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 분들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 지 정확하고 생생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기업들과 국가 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보완해야 될 부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지적하여 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들을 보며 국가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 단면적인 모습들만 보고 판단했던 것들에 대해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번역 봉사는 이번에 학교에서 들었던 강의와 이어져서 저에

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수업을 들을 때 미국의 나라에 대한 경찰 활동에 대해 공부했는데, 번역봉사를 통해 다른 나라의 법들에 대해 번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경찰활동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찾아보면서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봉사 활동 중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이론으로만 공부했던 형사 절차들을 실제로 볼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수업할 때 들었던 이론을 적용하여 모니터링을 하니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정에는 처음 가는 거여서 조금은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들어가서 변호사, 검사, 판사님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증인들을 분리해놓는 거였습니다. 증인들에 대한 조치사항들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았는데 법정에 계신 청원 경찰 분들이 증인들끼리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등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되었다. 또 판사님이 재판을 올바른 쪽으로 가도록 변호사분의 발언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는 것을 통해 모두가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돕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곧 국민들에 대한 이해와 연결된다고 생각해서 존경심이 생겨났습니다. 또 생각보다 간결하게 진행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드라마로 봤을 때와 많은 점들이 달라서 드라마의 법정내용들과 비교하면서 이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모니터링을 통해 모두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느낌이 들어 더 책임감있게 진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저의 꿈을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권 ○ 지

올해 여름, 법조인이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 이전까지는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교수로서 꿈을 키워왔으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람과 공동체에 가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에 큰 뿌듯함을 느낀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고, 이와 보다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다가 사회정의라는 영속적 가치를 보전하며 분쟁을 해결, 질서를 유지하도록 봉사하는 법조인이 되기로 하였다. 하지만 올해 여름 나는 이미 4학년 1학기를 마친 상황이었고, 대학생활 동안 한 번도 법과 관련된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 막막함을 느꼈다. 그래서 무작정 법원에 찾아가 재판을 방청하면서 실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느끼며 법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였다. 그렇게 재판 방청을 어떻게 하는지 검색하던 도중, 법률소비자연맹이 눈에 들어왔다.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봉사활동 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다니, 바로 신청을 하기로 했다.

2023 가을학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나는 두 가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하나는 국정감사 활동이고, 하나는 법정 모니터링 활동이다. 우선 국정감사부터 살펴보겠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국정감사를 지켜본 적이 없었다. 법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국회는 법과 조금은 동떨어진 곳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 활동을 통해서 입법부, 행정부와 사법부가 함께 작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되었고, 법조인으로서 이 삼권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나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고

용노동부 등 국정 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 국정감사,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인적 자원관리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시정하였는데, 쿠팡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관심과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였다. 당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에서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한 사건이 가장 주요 이슈였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은 패싱은 없었다고 일축하였는데, 조은석 감사위원이 끝까지 당당하게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였던 점이 인상 깊었다. 아직 수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지만, 정황상 분명한 압력이 있음에도, 또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에도 불구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은 조○○ 감사위원을 보며 존경심이 들었다. 국정감사 활동을 통하여 현재 사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과 더불어, 여러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의미있었다.

두 번째는 법정 모니터링 활동이다. 이 활동은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핵심적 활동이었다. 이번 학기 나는 연세대학교에서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를 들으면서 법의 기초적인 개념과 특히 형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 수업시간에 배웠던 개념들을 실제 재판에서 보는 것이 상당히 의미 깊었다. 예를 들어, 형사재판에서는 변론을 시작할 때 신문 대상의 신원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판사님께서 직접 신원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것을 보면서 형법에 대하여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재판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 흐름을 알 수 있었고, 판사, 검사, 변호사가 어떤 발언을 할 때는 일정한 어투와 어휘를 사용해서 발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접 방청하지 못했다면 알 수 없는 실무적인 정보들이었을 것이다. 또한, 오전에는 주로 선고가 진행이 되고, 오후에 주로 신건이나 속행 건들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경험을 통해 쓸쓸하게 습득할 수 있었던 정보였다.

종합적으로, 이번 2023 가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나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더불어 법조인으로 함양해야 하는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한 소중한 활동이었다. 앞으로도 이 활동을 이어서 할 의향이 있다. 이번 학기에는 법률에 대한 기초적인 입문과 이해를 활동의 목표로 삼았지만, 다음에는 나의 활동을 더 심화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 우선, 법정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이번 학기에는 형사재판 위주로 방청하였으나, 다음번에는 민사재판, 행정재판 등 다양한 재판들을 모니터링해보고 싶다. 또, 이번에 윤이 좋아 우연히 김영식 여사와 구광모 LG 그룹 회장 간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모니터링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확실히 언론에 등장한 사건이라 그런지 재미있었다. 다음에는 방청을 신청해서 언론에 나오는 큼지막한 사건들을 방청해보고,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으로 가서 항소, 상고가 된 사건들도 방청해보고 싶다. 그리고 판결문 리서치 활동도 진행하고 싶다. 이번 학기에는 시간이 닿지 않아 미처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하지 못했다. 하

지만 이번 학기 학교 법학회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를 접했다. 다만, 이 판결들의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미처 찾아보지 못했다. 이 판결들의 원심판결을 찾아봄과 동시에 리서치 활동을 진행하여 해당 판결들에 대해서 더욱 더 심층적인 이해를 하고 싶다.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권 ○ 현

1. 국정감사 온라인 모니터링 소감 (2회)

1) 국정감사 온라인 모니터링 2023년 10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 국정감사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시청하였습니다. 첫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였는데, 피감기관이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대법원, 법제처로 6개였습니다. 피감기관이 많다보니 많은 양의 정보가 있어 각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다소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국정감사 모니터링으로 다양한 주제의 감사를 볼 수 있어 배울 점이 많은 감사였습니다.

2) 국정감사 온라인 모니터링 2023년 10월 2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국정감사

: 위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이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지역균형과 함께 소상공인, 대기업, 중소기업의 상생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감사가 시행되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청년취업과 관련된 쟁점에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 논의되고,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요구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 만큼,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며 배경지식을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2. 사법감시 판례문 리서치 (3회)

1) 대법 2022도 7453 업무방해 사건

위 사건은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 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 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판례문 신청을 할 때에는 몰랐지만, 여러모로 이슈가 많이 되었던 주제였기에 리서치를 하며 조심스러웠습니다. 형사소송법 상 본범의 참여권 인정을 어느 기준으로 할지에 관해 대법관들의 의견이 충돌하였고, 어떠한 의견이 형사사법의 이념에 가장 부합할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2) 대법 2018다263434 의료손해배상 사건

위 사건은 의료손해배상 사건으로 의료진이 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가장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원심과 2심, 3심의 판단이 모두 달라 흥미로운 사건이었고, 판례에서 자주 나오는 '통상적'이라는 것을 명확한 사실관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 잘 드러난 판례였다고 생각합니다.

3) 대법2023두37858 교권보호위원회조치취소 사건

위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본안 전 항변이 가능한지 여부에서 조치가 취소처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흥미로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요즘 시의성이 있는 주제인 교권보호와 아동의 권리보호 사이의 법의

균형성을 찾는 것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판례였습니다. 현재 파기환송 후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았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리서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권 ○ 은

법조인을 꿈꿔왔지만 사법부나 입법부의 활동에 대한 경험과 지식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까지 이루어지는 법적 판결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고,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입법부 활동에 대한 감시 및 평가를 수행하며 국정감사와 우리 사회 주요 사안에 관한 식견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는 총 세 번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했던 판결문 리서치는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으로, 피고인이 상대방을 기망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했던 판결문 리서치였기에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판결문을 반복해서 읽으며 법리 판단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판결문 리서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으로, 강제추행죄 적용 여부에 있어서 '폭행·협박'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었습니다. 기존 판례 법리는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가 항거가 곤란할 정도여야 강제추행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항거불능'이 피해자가 정조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반항했는가를 묻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법조항에 대해서 종래 판례 법리와 다른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와 괴리되지 않은 사법부가 되기 위해서는 법조항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고, 법조항이 지키고자 하는 법익에 대해 깊은 숙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판결문 리서치는 알 수 없는 경우로 이체 받은 비트코인을 사용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나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던 사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흔히 은행 계좌 간 이루어지는 '착오 송금'의 경우 착오로 금원을 이체 받은 사람이 이를 그대로 보관하지 않았다면 횡령죄를 적용해왔습니다. 이를 유추 적용하여 해당 사건의 1심과 2심은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는 배임죄를 선고했습니다.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인데,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은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으로 봐야 한다는 1심과 2심의 동일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알 수 없는 경우로 비트코인을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임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에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고, 비트코인은 형법을 적용하면서까지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착오송금' 판례를 유추 적용하여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와 같은 판결 과정을 살펴보고 법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행위가 법조항의 주체와 객체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알 수 없는 경우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본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법적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학기술 발전에 발맞추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나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두 위원회 모두 국가경제와 서민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각 소속 담당자에 대한 질의 및 비판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폐업을 등과 같이 서민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기관과 국회의원들이 적절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감시하며, 한 명의 국민으로서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한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진하겠습니다.

○ 단국대학교 법학과 김 ○ 리

이번 2023 가을학기 봉사활동은 2022 겨울학기 봉사활동 이후로 두 번째 봉사활동입니다. 2022 겨울은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하며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내용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분석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뜻깊었던 시간을 한 번 더 보내고 싶어 2023 가을학기 봉사활동을 신청하였습니다.

전과는 색다른 봉사활동을 경험해 보고자 이번 가을학기에는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번역 봉사를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가을학기 봉사자들만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었기에 더욱 기대가 컸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하면서 여러 정당의 대립 구도를 알 수 있었고, 현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국가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일에, 정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던 제가, 뉴스도 제대로 챙겨보지 않았던 제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학과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법관들과 정치인들의 대화 속에서 학과 수업을 통해 배운 지식을 찾아보고 잊었던 지식들을 상기시켜 볼 수 있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하면서 위원장의 중립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 법률소비자연맹에 여쭙어보는 등 어느새 국정감사에 빠져들어 모니터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마냥 어렵게만 느껴졌던 국정감사를 봉사활동을 통해 재미있게 바라볼 수 있었고, 좀 더 국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이 끝난 후 미국 마약류거래단속

법 번역 봉사를 하였습니다. 번역 봉사를 하기 전에는 어렵고,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번역 작업을 해보니, 복잡한 영어 문장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한국어로 바뀌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어 즐겁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자연스러운 번역을 위해 우리나라 법조문도 찾아보고, 미국의 법 역사도 찾아보면서 미국과 우리나라 법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중요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직접 번역한 미국의 마약류거래단속법과 우리나라 마약류관리법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뜻깊었습니다.

두 번의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법 관련 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특히 이번 2023 가을학기 봉사활동이 아니었다면 무관심했을 정치 분야, 타국의 법률에 대해 깊이 알아갈 수 있어 기쁩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 봉사활동에서는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경희대학교 글로벌리더전공 김 ○ 연

이번 봄학기를 시작으로, 여름학기, 가을학기까지 벌써 법률소비자연맹과 3번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봄학기과 여름학기에는 주로 의정모니터링과 법정 모니터링을 하였다면, 이번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판결문 리서치를 꼭 해보아겠다는 생각으로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학기 형법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다룬 판례들을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또다시 정리해보면 의미있겠다는 생각에 판결문 리서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에서 간편히 할 수 있다는 이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총 두 번의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했는데, 한 번은 특수폭행에 관한 판례였고, 한 번은 미성년자 약취에 대한 판례였습니다. 두 판례 모두 중간고사 범위에서 다룬 판례였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룬 판례는 제외하고, 간단히 짚고 넘어갔지만, 판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고 싶었던 것을 위주로 판결문 리서치 대상 판례로 선택하였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제가 선택한 미성년자 약취에 대한 판례는 '부모 중 일방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죄가 해당하는지'를 쟁점으로 하였는데, 수업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룬 판례는 부모의 미성년자 약취죄를 부정한 사례였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반대되는 내용인 부모의 미성년자 약취를 인정한 판례를 대상으로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룬 판례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다른지 살펴보면서 판결문 리서치를 하다 보니 해당 조문이 더 잘 이해가 되는 느낌이었고, '구체적인 사안을 판단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사안에 적용하여 판결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판사들이 의견을 논리적으로 개진하는 모습을 보며 논리적인 측면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법조인에게 논리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인데,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이를 배울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필수 활동이었던 국정감사모니터링은 시험 기간과 겹쳐 조금 힘들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국정감사는 오

래 지속되었고, 당연히 저도 오랜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며 주권 실현을 위해 내가 더욱더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라는 것을 통해 서로 견제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가 내 생각보다는 좀 더 정치적 싸움으로 번지는 모습이 종종 있어서 약간 실망하였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인 사상에 의한 의견 다툼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해 더 발전된 모습은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국정감사에 임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국정감사를 하게 될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국회의원들이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정책 제안을 다양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 ○ 경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을 신청하여 활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3 가을학기 봉사활동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국정감사활동'이었다. 최소 2개의 실제 진행하는 국정감사를 보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처음 국정감사와 관련한 자료나 내가 작성할 보고서의 양식을 보고나서 이걸 내가 다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실제로 진행하는 국정 감사를 짧은 동영상 클립이나 기사를 통해서 접한 적은 있어도 국정감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를 경험하기는 처음이기 때문이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 국정감사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백현동 사건,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우려, R&D예산 삭감으로 인한 과학 기술 발전의 저해와 안전상의 위험 등의 어려움, 항우연 연구원 이직으로 인한 기술 유출의 위험성을 비롯한 사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의혹 제기과 그에 대한 답변과 조사가 이루어지며 현재 한국 정치와 여러 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 현황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얼마전 노란봉투법 개정 사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여 항간이 떠들썩하였다. 환경노동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상당한 대립을 볼 수 있었다. 얼마 전, 공교롭게도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 학교에서 참여하고 있는 학회의 토론 주제가 노란봉투법이었는데 국정감사에서 접한 적이 있었던 주제여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재 방송3법, 쿠팡 CLS의 새벽 노동으로 인한 문제 등 현 사회에 있어서 노동 문제의 현실과 이에 대한 기관들의 입장과 정치인들의 생각을 듣고 대응 양상을 보면서 운영의 미흡과 정상적 운영 현황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이번 2023 가을학기 봉사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도움이 되고 흥미로웠던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 활동이었다. 최근 민법 채권편 강의를 수강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판결문을 다룬다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관련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진행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함에 대한 청구의 소>라는 최근의 해당 판례에 대한 리서치 활동을 진행하면서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당한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해

당 사건의 핵심적인 조항으로 제1,2심의 판결과 대법원의 판결이 다르게 나온다. 법이 참 흥미로운 분야인 것이 추상적인 조항을 어떤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판례에서 같은 사실 관계이지만 법 조항에서 '부당히 과다함'의 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해당 판례가 아무래도 금전과 관련되어 있다보니 읽는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알아보기 쉽게 시간 별로 정리하는데 집중했다. 정리를 하다 보니 오히려 나도 사실 관계를 이해하고 사건의 쟁점과 근거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법 용어는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용어와 다르고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용어 정리를 하면서 만약 내가 판결문을 처음 접하는 입장이라면 이러한 판결문 리서치와 같은 자료를 제공받음으로써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경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진행했던 것 같다.

이번 학기에 처음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한 것 같다. 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이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학생들의 입장에 있던 나에게 새로운 경험하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들었다. 솔직히 학기와 병행하면서 할 일이 많아서 힘들었던 순간이나 처음 해보는 활동이다 보니 어려움도 조금은 있었지만 얻은 것이 많은 활동이었다. 다음에도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싶고 주변에도 많이 소개하고 싶은 봉사활동이다.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김 ○ 윤

다양한 법조인들을 가장 가까이서 관찰하며 배움을 얻을 수 있는 봉사활동

법조인으로서의 진로를 결심한 이후학부에서의 법학 수업을 통해 법학 지식을 배우면서 이와 관련한 유의미한 활동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학생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 한계내에서 능동적으로 공익적 자원 활동을 통해 스스로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법률에 밀접한 현장에서 직접 법률적 사고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망설임없이 가을학기에 지원하였습니다.

1. 사법감시 배심원단 법정모니터링

본 활동은 일반 법정모니터링과는 달리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은 국가·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건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활동이었고 저는 2회자원하여 참가하였습니다. 법정모니터링을 위해 법원을 처음 방문하여 실제 재판을 방청하였는데, 일반 학생의 신분인 제 생각보다 법원공무원분들과 판사님들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주셔서 법원은 범죄자의 엄벌만을 위한 엄숙한 공간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법원에서의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배려의 공간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자신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법원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면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 국정감사 모니터링

저는 이번 2023년도 제21대 국회 국정감사기간 중 3회의 모니터링 봉사활동을 참가하여 현장 및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국정감사 현장 모니터링 활동은 각각의 상임위원회에 속해있는 국회의원들의 국정운영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삼권분립이 유지되고 기능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국회의 기능과 존재 의의 등을 체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참가했던 봉사활동 중 가장 고되었던 만큼 배운 점도 많았고 인상이 깊었습니다. 또한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까지 국회의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활용하여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감시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정활동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가을학기에는 법정모니터링과 국정감사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했지만, 기회가 된다면 다음 학기에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그밖의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더욱 법률가 정신과 관련된 식견을 넓히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실현에 기여하는 예비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김 ○ 현

이번 봉사활동은 크기 두 가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법원에서 재판을 방청하며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게 재판에 임하는 지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며, 국정감사 역시 바른 절차를 준수하고 질의 내용은 무엇이고 또 올바른 질의인가를 모니터링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형사재판 3개의 재판부(+1), 민사재판의 3개의 재판부, 행정재판의 2개의 재판부, 소액재판부 1개를 모니터링 하였고, 국정감사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한 경찰청 국정감사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진행된 대한체육회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가장 의미있게 본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역시 경찰청 모니터링입니다. 제 학과가 경찰행정학과임에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면서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이슈의 구체적인 자료와 경찰청장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고, 내가 잘 모르는 경찰의 현 이슈들과 이슈가 될 예정인 부분들 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관련 뉴스를 보면 내가 모니터링 했던 내용을 다루고 보도한 것을 보면서 또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다만 국정감사를 직접 보면서 아쉬웠던 것은 예의 있게 질의하고 응답하며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것이 아닌, 국회의원들의 보여주기식 성냄과 함께 시간이 끝남에도 계속 소리치고 질의하는 자세, 또 경찰 쪽에서도 한 번은 개정 촉구를 국회의원에게 돌리는 망언 등 약간은 실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법정 모니터링 중에선 형사 재판 방청이 굉장히 의미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제가 형사사법과 관련한 전공 수업을 듣고 공부하고 있기에 해당 재판에서 다루지는 내용부터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검사와 판사의 구형하는 재판 심리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한 번은 피고가 주거지가 변경된 사실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고 오늘 재판날 주거지 변경의 자료를

가져왔기에 판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자신은 합의를 해야하기에 구속영장을 안정할 수 없다며, 언성을 높이고 약간의 반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정에서 피고가 언성을 높이고 반항하면서 방청하는 저는 약간은 당황하고 그 상황 자체가 흥미로워 저에게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번은 증인 심문 과정에서 현 형사님 한 분이 보이스피싱 돈 운반책을 검거 체포 하는 과정이 그대로 함께 영상을 봤는데, 이런 영상은 어디서나 찾아보기 힘든 자료이기에 저에게 더 뜻 깊은 전공과 진로에 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학기 중에 시간을 내는 것이 쉽자 않고, 특히 시간표가 좋지 못한 저에게 있어서, 평일에 열리는 재판을 방청하러 가는 것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수업이 마치고 법원까지 가면 이미 2시 혹은 3시가 넘었고 방청가능한 재판이 몇 없기도 했습니다. 또 아직 1학년이라 법 지식이 부족해 민사재판은 용어 이해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봉사 학점과는 별개로 흔히 경험할 일이 없는 전공 관련 지식 쌓고 자료를 볼 수 있는 기회만으로 저에게 뜻이 깊은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김 ○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법률소비자 연맹에서 국정감사와 사법감시원단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의 정부 예산과 정책을 심의하고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부정 부패와 비리를 감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들의 질의와 답변을 기록하며 정부의 정책과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 입니다. 둘째,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반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했습니다. 셋째,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통 인프라 확충이 더딘 가운데, 교통 혼잡은 심각합니다. 둘째, 주택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주택 가격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활동을 진행하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세수 결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세원 다변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정감사를 지켜보며 일부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 행위들에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들은 이에 맞게 국민의 혈세를 책임지고 집행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회의원의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국민으로서 의무라는 것을 국정감사 활동을 통해 느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당 사안을 고민하고, 나은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올바르게 국가가 이끌어져야 하고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더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기관의 업무들이 제대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봄과 동시에 이에 대해서 국민의식을 가지고 청년으로서 해당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사법감시원단 활동은 사법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봉사활동입니다. 사법감시원단으로서 법원과 검찰의 재판과 수사를 감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봉사활동을 통해 사법기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사법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기관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활동에서 무엇보다 사회에는 아직도 부정부패와 비리가 만연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정감사와 사법감시원단 봉사활동을 통해 작게나마 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에 뿌듯했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관심과 참여로 사회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활동은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활동들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이번 가을학기 활동을 바탕으로, 겨울학기 활동도 진행해 저에게 유의미한 시간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항상 사회의 정의를 위해 힘써주시는 법률소비자연맹 변호사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 ○ 재

우리가 쉽게, 자주 접하는 정치인들은 주로 '스타 정치인'이다. 많은 경우 스타 정치인은 국정감사에서 탄생한다. 시원한 화법과 탄탄한 논리로 상대를 반박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이 그들을 스타로 만든다. 그러한 모습은 5분 내외의, 최근에는 몇십 초 이내의 짧은 영상으로 유통된다. 하루에 수 시간 동안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그들을 빛나게 만드는 것은 단지 몇십 초이다.

그러다 보니 최근 국정감사에서 스타가 되려는 정치인이 유독 많아 보인다. 비단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다. 피감기관, 특히 국무위원들도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려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국민 입장에서 국정감사 전반에서 어떤 사안이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 피감기관의 구체적인 책임은 무엇이며 무엇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 어떤 국회의원이 논리정연하게 감사를 진행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그저 특정한 순간에 비춰지는 스포트

라이트만 보고 각각 의원들을, 국정감사 전체를 판단하게 된다. 필자 또한 짧은 순간만을 보고 많은 것을 재단하기도 하였다.

이번 국정감사 모니터링 봉사활동을 하면서 국정감사의 본모습에 한층 다가갈 수 있었다.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국정감사 전체를 스스로 확인하긴 어렵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봉사활동으로 한 상임위의 하루 국정감사 전체를 빠짐없이 청취하고 기록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보고인 국회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순간이 아닌 전체를 보니, 많은 것이 달라 보였다. 우리가 스타 정치인이라고 부르는 인물 못지않게, 때론 그 이상으로 묵묵하게 본인의 일을 훌륭하게 처리하는 의원들도 많았다. 오히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하는 스타 정치인의 공격적인 태도가 국정감사 전체의 분위기를 흐리는 모습도 종종 목격할 수 있었다. 국정감사를 접하는 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러한 순간으로 만들어진 판단은 미숙할 수밖에 없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국정감사를 세세히 훑아볼 수 있어 유익했다.

이런 국회가 법을 형성하는 입법기구라면, 구체적 사실에서 법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선언하는 사법부의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사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국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기관은 사법부라고 인식된다. 그러나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사법부의 판결이, 특히 대법원의 판결이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결정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령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21다219629) 판례에서는 운수회사 내에서 발생한 여성 근로자를 향한 성희롱을 다루었다. 피고 회사와 성희롱 가해자는 해당 발언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서 지정한 성적 언동이 아니며, 더욱이 해당 행위에 대해서 사용자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던 해당 발언은 명백히 성희롱성 발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문언은 포괄적일 수밖에 없기에 이러한 주장이 가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법률의 취지와 구체적 적용을 선언하면서 해당 행위의 성희롱성과 사용자책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대법원의 그러한 판결은 최종적 구속력을 지니기에 그 의미가 컸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는 일터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개인이 쉽게 나서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사법부의 판결이 우리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많이 기여하고 있음을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형성된 법률은 구체적 사안으로 선언 되어야 그 의미가 있다.

○ 고려대학교 정부행정학부 김 ○ 정

법률소비자연맹 자원봉사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2회 진행했다. 이 활동을 통해 색다른 경험과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의 법률 체계와 정부 운영에 대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다. 특히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하였는데, 이로 인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학생이자 국민으로서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에 참여하고, 국가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한

것 같아 뿌듯했다.

인터넷에서 교육부의 정책에 대한 기사를 많이 봤었다. 그래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할 부서를 교육부로 선정했었다. 각 감사위원별로 질의내용을 정리하면서 뉴스에서 보지 못했던 더욱 구체적이고 전혀 몰랐던 정책의 문제점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점이 가장 흥미로웠고, 내가 잘 몰랐던 정책과 교육부의 문제점까지 알게 되니까 그 후 이와 관련한 뉴스 기사를 볼 때 비판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었다. 국정감사를 볼 기회가 흔치 않은데 법률소비자연맹 자원봉사를 통해 경험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

기회가 된다면 직접 가서 사법감사 모니터링이나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싶었다. 보통 평일에 열리는데, 학교를 다니고 있다 보니 수업시간과 겹쳐 가지 못한 적이 많았다. 가을 학기 봉사활동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경험을 해본 것도 좋지만,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크다. 이러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방학 때 서울에서 열리는 대법원 재판에 배심원으로 방청하기로 했다. 그 곳에 가서 배울 것이 많을 것 같아 기대가 된다.

개인적으로 가을학기 자원봉사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것 같아 많이 반성했다. 다음번에도 기회가 주어 진다면 이번 경험을 토대로 시간을 잘 분배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비록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에만 참여했지만, 이 활동을 통해 얻은 것이 많기에 다른 활동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고, 다음에도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싶다.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 ○ 주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한 첫 학기였다. 코로나 이후로 대부분의 봉사활동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이라 생각했으나 사법감시배심원단, 국정감사모니터링 등 법원 혹은 국회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어서 유익했다. 이번 가을학기에 참여한 활동은 총 세 가지로, 사법감시배심원단과 국정감사모니터링, 판례문리서치였다. 각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소감은 다음과 같다.

1. 사법감시배심원단

스스로 재판 방청을 신청하고 방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법원에 방문하여 재판을 보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특히 해당 재판에 대해 사전적인 정보와 현 상황을 법률연맹 측에서 미리 제공해준 덕분에 판사와 변호인의 이야기가 낯설게 들리지 않았고, 해당 사건의 진척 상황이 한눈에 보였다. 다소 의외였던 것은 생각보다 재판이 차분했다는 점이다. 드라마나 영화에선 검사와 변호인이 치열하게 말다툼을 벌이며 싸우는 장면이 등장하는 데 반해, 실제 재판은 대부분의 이야기가 판사 - 변호인 간의 대화로 진행되었다.

2. 국정감사모니터링

가을학기의 필수적인 활동으로서, 가장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활동이면서도 가장 유익한 활동이었다. 국회의원들의 태도와 주장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보고서를 통해 정리하는 시

간을 가졌다. 국정감사 자체가 거의 하루 종일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여러 번 돌려보고, 최대한 꼼꼼하게 듣고자 노력했다. 법률연맹의 국정감사모니터링과 같이 국민이 국회의 활동을 보고, 평가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활동들이 앞으로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

3. 판결문리서치

평소 뉴스 기사를 통해 관심 있게 보았던 사건의 판결을 읽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확립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좋았다. 한 가지 흥미로웠던 부분은 뉴스와 실제 재판의 입장이 사뭇 다르다는 것이었다. 뉴스에선 피고인의 안타까운 처지를 강조하면서 징역 4년형이 과한 형벌이라는 입장이 많이 보였다. 그러나 판례는 피고인의 부작위범과 존속살해의 고의에 주목하고, 다만 피고인의 처지를 고려하여 감형한 결과가 징역 4년형이었다. 판결문 리서치는 앞으로 법조인으로서 어떠한 판결을 해야 하고,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유익한 경험이었다.

○ 송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김 범 석

이번 봉사활동은 저의 네 번째 봉사활동입니다. 세 달 조금 넘는 시간동안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4회, 총 47시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으로 4학기를 채울 수 있었고, 4번의 봉사활동동안 총 196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을학기만 가능한 필수봉사활동인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에 집중하였습니다. 다른 봉사활동도 하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가을학기를 기다려왔기에, 1년만에 하는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에 더욱 집중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정부기관인 피감기관들을 감사하는 매우 뜻깊은 활동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감사를 잘 진행하고 있는지, 피감기관들이 잘 운영되고 있고 감사를 잘 받고 있는지를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국정감사를 제대로 보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위원회와 피감기관들이 매우 많으며, 하루에 8시간씩 진행되기에 모두 챙겨보기엔 부담이 됩니다. 다들 뉴스에서 또는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짧은 영상만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 어떤 미디어든 자극적인 부분을 위주로 전달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기 쉽지 않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편집되지 않은 국정감사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엔 기획재정위원회 수출입은행 외부감사 현장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국정감사장을 실제로 보니 위압감이 엄청났지만 국정감사에 대해서 실망도 있었습니다. 방송 라이브로 볼 때는 질의를 하는 의원과 답변자만 나오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의원들의 이석시간을 파악해 봤는데, 많은 의원이 본인 질의시간이 아니면 국정감사장을 나가있었습니다. 본인 질의시간때 돌아와서 다른 의원이 했던 질의를 똑같이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를 준비하느라 매우 힘들 것도 있지만 의자에 앉아서 잠이 든 모습을 국민들이 본다면 매우 안타깝워 할 것입니다. 반면에 정치적인 질의를 제외하고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질의를 하는 의원들은 역시 빛이 났고, 이러한 국정감사 질의가 많아져야 진정한 의회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기업 인턴을 하는 도중에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제가 속한 회사의 이사장님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을 보고 더 신기했습니다. 다른 상사분들이 국정감사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았기에 국정감사의 무게를 더욱 더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학기 봉사는 국정감사 현장모니터링을 했다는 점에서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많은 의원들을 직접 보고 언젠가 저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일원이 된다는 꿈을 더욱 키웠습니다. 국정감사 현장에 시민단체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자랑스러웠고, 좋은 기회를 주신 법률연맹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법률봉사활동을 계속하여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김 ○ 빈

영어영문학과 학생으로서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법률 관련 봉사활동을 찾던 도중 법률소비자연맹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번역봉사를 꾸준히 해왔었기 때문에 법률 번역봉사에서도 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이 일반적인 타 법률 봉사활동과 차별점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법률 자체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와 같이 법률이 적용되는 상황과 사회적 맥락을 알 수 있는 봉사활동이 있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에 가을학기 봉사활동을 참여하고자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활동은 국정감사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총 두 가지 영역의 국정감사 영상을 시청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시청한 동영상은 환경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였습니다. 국정감사가 이뤄진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를 직접 시청하거나 분석한 경험은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과 각 부처에서 행하는 사업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환경노동부 국정감사 영상에서는 의원들이 다소 큰 소리를 내거나 서로를 비방하는 표현을 많이 하여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러한 부분 또한 보고서에 기록함으로써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청한 동영상은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였습니다. 환노위 국정감사에 비해 고성이 오가는 일이 적었고, 감사와 관련된 내용이 많아 인상깊었습니다. 한편, 국정감사 보고서에 가장 실효성 있는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을 기록하며 바람직한 발화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는 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뚜렷한 답변을 제시하도록 하는지 또는 어떤 종류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법률가들에게도 중요한 자질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이 더 의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여유시간이 없어 국정감사 현장모니터링으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기회가 된다면 다음 학기에는

현장모니터링원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국정감사모니터 이후 번역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영국법정변호사행위규범을 번역하게 되었는데, 헌법이 아닌 행동규범을 번역하였기에 변호사의 자질과 현실적인 유의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행위규범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와 맥락이 무엇인지 탐구해보아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한 문장이 다소 길어서 한번에 이해하고 번역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덕분에 법률과 영어 둘 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각 행위규범이 이전의 규칙, 지침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12페이지밖에 번역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위규범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위규범이 특성상 법률 용어를 많이 포함하고 있지 않았고, 영국 법체계의 구체적인 특성을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다음 학기에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면 헌법을 번역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신청하는 모든 사람이 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학교에 다니면서도 부담 없이 활동할 수 있다는 점, 개인적으로 활동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활동 중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학기에도 참여하여 이번 학기에 하지 않았던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김 ○ 현

2023년 가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 마무리됐다. 이번 봉사는 나에게 새로운 목표를 향한 구체적인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로 다가왔다. 나는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어린 마음을 음악 예술을 전공하며 구체화해 왔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현장에 나와 보니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예술인들에 관심이 기울었고 내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했다. 그 결과 예술인을 비롯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정의를 뒷받침하고 있는 '법'을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됐다. 고등학교 시절, 시사토론부를 운영하며 시작된 법과 사회에 대한 관심이 지금껏 이어져 오긴 했지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를 경험해 봐야 결심과 과정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그 방법을 찾던 중에 알게 된 것이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었다.

이번 학기 봉사 오리엔테이션은 자료를 읽고 오리엔테이션 회신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자료는 학기 중 필수 봉사 활동 안내와 함께 교육을 통해 봉사의 목적,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법, 정의, 인권의 중요성 등을 되새길 기회가 됐다. 막연히 생각해 오던 중요한 가치들이 교재에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돼 있었기에 이번 봉사에 서 더욱 진지한 태도로 봉사에 임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나는 사법 감시 모니터링단, 법률노래 작곡, 국정감사 모니터링이라는 세 가지 활동에 있어 봉사자로 참여했다. 먼저 사법 감시 모니터링단 활동은 국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건의 재판을 방청하고 모니터링하는 활동이다. 방청을 갈 때는 재판을 이해하기 위해

재판의 진행과 법정에 대해 조금이나마 공부한 뒤, 긴장된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첫 방청은 SAT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이었고 재판뿐만 아니라 준비 기일에 있어서도 방청 가능하다는 사실이 새로웠다. 다음 방청은 IDS홀딩스 변호사의 사기 방조 사건이었다. 증인 불참석으로 매끄러운 진행이 어려워 아쉬웠던 재판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재판은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정확한 절차와 근거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니터링을 통해 사법 정의 구현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 자부심을 느꼈던 활동이다.

다음으로 법률 노래 작곡 봉사는 음악이라는 전공을 살려 봉사할 수 있는 기회였다. 법가와 국민으로서의 가치가 담겨있는 곡과 노랫말을 처음 접해왔기 때문에 내가 곡에 담으려는 분위기가 너무 부족하거나 지나치는 않은지 고민했다. 그 정신이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따라 부르기 쉽도록 의식하며 <법가의 하루하루>, <큰 공부와 참 봉사>라는 두 노래를 작곡했다.

마지막으로 한 활동은 국정감사 모니터링이다. 실시간으로 인터넷 중계가 진행되는 기관들의 국정감사를 시청하고 이를 모니터링하여 보고서 작성 후 제출하는 활동이다.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발의된 안건과 참여 원의 태도 등을 살피는 일은 진행 시간도 길뿐더러 피감기관도 다양했던 만큼 꽤 힘들게 느껴졌다. 하지만 피감기관 별로 올 한해까지 제기된 많은 이슈와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한꺼번에 살 편 볼 수 있고 감사 전 과정을 국민으로서 지켜볼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활동에 진지하게 임했다. 현장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했으나 참여 인원이 제한돼 있어 참석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 활동이다.

가을학기의 활동이 법률연맹에서의 첫 봉사 활동이었기 때문에 뿌듯한 점도 아쉬운 점도 크게 남는다. 무엇보다 관심 있는 분야의 봉사를 통해 경험을 쌓으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던 시간이 아주 소중하게 느껴진다. 이 마음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고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배운 점들을 토대로 겨울학기 봉사활동에도 참여하여 더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자 한다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김 ○ 연

국정감사 모니터링, 법정 모니터링, 그리고 판결문리서치에 참여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학부에 재학하면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법에 대한 공부를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보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활동하면서 이에 대한 리얼 마인드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각 의원들의 다양한 견해와 이를 토대로 한 정책 제안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내적 이해를 높였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국정감사를 지켜보았던 경험은 뉴스에서 접하는 것과는 다르게 생생한 느낌을 주었고, 시민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국정감사모니터링을 통해 법과 정의의 현실적인 적용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법정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보았는데 예상과는 다르

게 재판이 짧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판사, 변호사, 검사 등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사법 정의를 위해 힘쓰고 있는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법의 원리가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목격하며, 사법 체계의 복잡성과 동시에 그 안에서의 균형과 공정성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판결 전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함으로써, 법학부에서 학습한 법적 내용을 되새겨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법률 문서 해석과 법적 논증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판결문의 각 항목에서 나타나는 법적 쟁점들을 더욱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대외활동)을 통해서 시민으로서 사회의 일부로 참여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느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처음으로 법률소비자연맹을 활동해 보았는데 앞으로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참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김 ○ 비

지난 봄학기 봉사활동을 해보고 다시 한 번 활동을 해 보고 싶어 이번 가을 학기도 신청하였다. 이번 학기의 필수 활동이었던 국정 감사 모니터링은 처음 해보는 것이라 한편으로 막막하기도 했지만, 영상을 꼼꼼히 보고 내용을 정리하면서 해당 분야의 지식과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 좋은 기회였다. 첫 번째 모니터링은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감사였다. 경찰청은 평소 관심있던 분야라 흥미를 가지며 영상을 시청했다. 영상이 상당히 길어서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었고, 주제별로 각 의원들의 발언과 감사대상의 답변을 일일이 작성하는 것이 해도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과제 같았다. 하지만 어찌저찌 다 끝내고 결과물을 보니 내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일원으로서, 국회와 정부의 행보를 들여다보는 감시자의 역할에 일조한 거 같아 뿌듯한 기분도 들었다. 경찰청의 경우 최근 가장 화두가 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내부 조직 변화에 대한 질의를 가장 많이 받았다. 의원마다 돌아가며 질문을 하는 구조 상 반복되는 의견 및 잔소리도 많았다. 질문에 대해 조심스럽게 애둘러 답변하는 경찰청장의 모습이 답답하게도 느껴졌지만, 이 중요한 자리에 한 조직을 대표하여 발언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신중해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답변자에게 특정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는 의원도 있었다. 반면 자신의 전문분야를 활용하여 경찰 조직에게 실효성 있는 조언과 도움을 주려는 의원들도 있었다. 두 모습이 비교되면서, 누가 진정 국회의원으로서는 충분한 1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였고, 이것이 바로 국정 모니터링 활동의 목적이자 의의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두 번째 국정 모니터링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였다. 대상은 대전고등법원 등 몇몇 고등법원과 회생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이었다. 역시 가장 많은 질문이 나왔던 주제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부산 돌러차기 사건'이었다. 참고인으로 사건의 피해자가 직접 감사 일정에 참여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참고

인의 의견을 경청하며 앞으로의 입법과 사법 분야에 있어 변화를 가져오려는 의원들의 의지가 느껴졌다. 하루빨리 범죄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대한민국 사회가 만들어지려면 국민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대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느꼈다.

법원 재판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싶었지만, 일정이 잘 맞지 않아 대신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여러 번 하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판결문은 역시 읽을 때마다 새롭고 어려운 존재이다. 그래도 여러 편의 판결문을 읽다보니 아는 단어도 많이 보이고, 판결문의 구조도 익숙해져 저번 학기보다 수월했다. 이번에는 피고가 대한민국인 민사사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판 당사자인 행정소송사건 등을 리서치하며 저번보다 더 다양한 분야의 사건들을 알게 된 것 같아 만족스러웠다. 판결 요지가 나와 있지 않은 판결문이 많아서 직접 작성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이제 판결 요지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내용이 적히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같다.

두 번 이상의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다행히 한 해가 가기 전에 그 목표를 이룬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하면서 더 열심히, 더 잘하지 못함에 아쉬기도 하다. 다음 기회에 또 하고 싶은 활동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몇 안되는 활동이다. 이런 활동 기회를 마련해주시는 법률소비자연맹과, 매번 결과물을 검토하고 답변해주시는 담당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다.

○ 충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김 ○ 은 <국민의 역할>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았습니다. 깊은 뜻을 제가 다 알리 만무하지만, 생각건대 국가기관을 견제하는 국민의 역할을 다하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권분립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각각의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각 기관에 대한 국민의 견제라고 생각합니다. 입법부가 법을 잘 만드는지, 사법부가 그 법을 잘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행정부가 그 법을 잘 집행하는지 우리는 항상 지켜봐야 합니다.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는 지금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실제로 저에게 있어 그러한 국민의 역할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학기 저는 국정감사 모니터링에 집중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 실시간 모니터링을 했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국정감사를 지켜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을학기 필수 봉사활동이 국정감사 모니터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막막하게 느껴진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국정감사를 잘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왜 국정감사 모니터링이 필수 봉사활동인지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 전반에 대한 행정을 감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인지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지는 안건들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우리 사회에서의 문제들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민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내는

자리였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것이 멀게만 느껴졌던 저에게는 경험의 힘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은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며 따라서 결국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일단 부딪혀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이후에는 자신감도 조금 생겨났습니다. 또, 국민으로서의 책임감 역시 느꼈습니다. 해보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입니다. 필수 봉사활동이 아니었다면 지레 겁을 먹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의 경험 덕분에 반드시 봉사활동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국정감사를 대하는 저의 태도는 훨씬 적극적으로 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부 견제에 대한 국민의 책임을 조금이나마 실현한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조금씩 변하다 보면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기에는 학교를 다니며 참여하느라 더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전공을 살려 번역 활동에 참여하거나 직접 법정에 가서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등 더 다양하게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중앙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졸업 김 ○ 린

1. 법률연맹 봉사활동의 시작

9월 19일을 시작으로 가을 법률연맹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법학에 대한 약간의 관심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했던 봉사활동이었지만 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한 명의 국민으로서 사회공익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기로 다짐했고, 앞으로 법률연맹을 통해 진행하게 될 봉사활동의 종류와 그 의미를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2. 법무부 온라인 국정감사 모니터링

법률연맹을 통해 참여했던 첫 봉사활동은 바로 국정감사 모니터링입니다. 10월 11일에는 법무부 국정감사 모니터링에 참여하였고, 10월 17일에는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 오프라인 모니터링에 참여하였습니다. 10월 11일에 참여했던 법무부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비록 온라인으로 참여하였지만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되었고, 법률연맹을 통한 첫 봉사활동이자 첫 모니터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이었기 때문에 더 부담 없이 마음 편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무부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의 실효성과 충실성, 공익성 등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평가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피감기관장의 태도와 상임위원회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3.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 오프라인 모니터링

10월 17일, 감사하게도 선착순에 들면서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 모니터링에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참여하게 된 오프라인 모니터링 자리는 온라인보다는 확실히 긴장되고 부담감이 느껴지는 자리였습니다. 도착한 모니터링 석 위에는 모니터링 학생들을 위해 메모지와 자료들이 차곡차곡 준비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늘 티비 너머로만 보였던 국회의원님들과 검찰청 고위인사분들, 수많은 기자분들께서 촬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너머가 아닌, 국정을 감사하는 자리에 함께 앉아 두 눈으로 직접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영광으로 다가오는 한편 긴장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긴장되는 만큼 보이는 시야가 달라지면서 들리는 내용도 집중도도 확연히 달랐습니다. 적당한 긴장감과 새로운 장소에 대한 기대감이 10시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국정감사 모니터링 자리를 지키면서 빠짐없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은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내년, 내후년에도 기회가 닿는다면 법무부, 서울고등검찰청 뿐만 아니라 다른 피감기관의 국정감사 모니터링에도 참여해 국민으로서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김 ○ 답

전공인 소비자학을 학습하며 소비자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여 그 법이 제대로 이행되고 지켜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서 법이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2023년 하반기 법률소비자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을학기 동안 법정모니터링, 국정감사모니터링의 2가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법정모니터링은 총 1회 진행하였습니다. 교대역 인근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내 형사재판부 재판을 참관하였습니다. 법원에 한 번도 방문해본 경험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법원에 방문도 하고, 동시에 모니터링 봉사활동까지 하며 일석이조를 거두어보자는 생각에 법정모니터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만 보던 재판을 직접 볼 생각에 설레임과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법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엄격한 절차를 여러 번 걸쳐야만 법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상했던 것과는 반대로, 위험한 소지품 등 정도만 검사하는 간단한 절차만 거친다면 어떤 이유로든 재판을 구경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신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 어떠한 이유로든 공판에 참여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기죄 등 여러 형사재판을 모니터링하며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역할과 발언 유형을 재정리할 수 있었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범죄 유무를 따져 옳지 못한 행위를 벌인 사람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부여하는 사법계의 존재 이유와 원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정감사모니터링의 경우 총 2회 진행하였습니다. 국감기간에 맞추어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사법 법무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이전에 단 한 번도 시간을 내어 전체 국정감사를 시청해본 경험이 없어서 더욱 의미있던 봉사활동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대답, 떠오르는 이슈와 문제에 대한 입장과 대응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올해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저의 생각까지도 정리해볼 수 있었습니다. 국회가

국정 전반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나라 국회의 각 영역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좋은 영향력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국정감사에도 국민으로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 입학 후 처음으로 봉사활동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첫 봉사활동 경험을 쌓게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활동들은 여러 가지 참여 조건을 두어 참여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법률소비자연맹의 모든 봉사활동들은 법조계에 전혀 무지하더라도, 이전에 관련된 활동을 경험해보지 않았더라도 국민이라는 점에서는 모두 동등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동등하게 법조계를 모니터링할 기회를 제공해주셨다는 점에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궁금한 점을 질문했을 때나 활동에 대해 검토를 받을 때 항상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국민으로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김 ○ 정

2023년 가을학기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국정감사 모니터링>, <법정 모니터링> 그리고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하는 봉사활동인 만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여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어떤 봉사활동 분야를 선정하여 참여하여야 할지 고민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익숙해지면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학이 친숙하게 느껴지고, 이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보람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선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의 각 기관들이 정책 시행 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자신이 지닌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직접 형사재판을 방청하러 갔다 오면서 선고 및 속행 공판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을 타당한 근거에 따라 처벌하는 것을 보면서 매 순간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정의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감시와 견제를 통하여 재판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사와 변호인의 모습을 보면서 법조인으로서의 진로를 더욱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 참여하면서 판례에 적용된 법리를 이해하면서 법적 지식을 확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장의 흐름이 긴 까닭에 판례를 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반복적으로 다독한 끝에 결국 판결문 리서치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판례를 이해하는 능력 또한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한 봉사활동은 인권 옹호와 정의 실현을 위한 도

구로써 법이 가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당 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 단국대학교 법학과 김 ○ 지

I. 참여하게 된 계기

현재 법학과에 재학하며 여러 법률 관련 대외활동 및 봉사활동을 찾아보던 도중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발견하여 비록 학부생 수준의 부족한 식견이지만 법률적으로 작게나마 도움과 보탬이 되고자, 그리고 이를 통해 더욱 배우고 성장하여 나아가고자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II. 사법감시배심원 활동

사법감시배심원 활동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건번호 2019노3010의 재판에 대하여 해당 재판을 참관하며 소송 당사자 및 법관의 재판 중 태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록하였습니다. 평소 형사소송법 수업을 수강하며 과제를 위해 재판을 참관한 경험이 있었으나, 정해진 매뉴얼이 없었기에 형사소송법 법조문들을 순서에 맞게 적어가며 형사절차의 흐름을 따라가는 형식으로만 재판을 참관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허나 해당 사법감시배심원 활동의 경우 눈여겨보아야 하는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기에 재판을 참관하면서도 집중할 포인트를 먼저 알고 재판을 참관할 수 있는 등 재판을 보는 시야를 넓히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III. 국정감사모니터링

국정감사모니터링의 활동으로서 10월 24일 실시된 교육위원회(서울대, 인천대, 방송통신대, 교대, 과기대, 교원대, 서울대병원 등), 10월 27일 실시된 환경노동위원회(환경부, 기상청 등)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의 경우 의대 정원 확대, 국립대 병원의 보건복지부로의 소관 부처 변경, 저출산 및 교권 침해 증가로 인한 교원양성학교의 신입생 문제를,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일회용 컵 보증제도 및 후쿠시마 오염수 3차 방류 등 현재 대두되는 실제 사회문제들에 대한 진행 상황과 해당 문제들을 실제로 처리하는 관리자들의 의견을 실제로 듣는 것이 가능했던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합당한 태도로써 해당 국정감사에 임하는지, 질의 횟수 및 시간을 준수하는지 등을 모니터링하며 정말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업무의 해태없이 국정감사를 시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능동적인 시민의 자세로서 국민의 봉사자인 국회의원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IV. 번역봉사 활동

학부 수업을 통해 평소 일본법과 우리나라 법의 비슷한 점 등을 간접적으로나마 들을 수 있었으나 이를 개인적으로 직접 명문적으로 확인해 본 경험이 전무하였습니다. 허나 이번 법률소비자연맹의 번역봉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물권법에 대응되는 일본의 차지차기법에 대하여 번역해 볼 수 있었는데, 해당 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법의 차이를 확인하며 비슷하거나 동일한 규정들은 해당 조항들의 중요성을, 다른 조

항의 경우에는 왜 차이를 가지는지 등에 방점을 두고 읽으며 우리나라 법과 일본 법의 체계에 대하여 새로이 공부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매뉴얼의 경우 매우 촘촘하게 가독성 좋게 짜여 있어 번역을 하는 동안 우리나라 법과 일본 법의 차이를 육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번역을 하며 동시에 해당 법과 조문들에 대한 공부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경우는 해당 나라의 기본적인 소개를 먼저 첨부하는 등 단순한 번역이 아닌 해당 나라의 문화 등을 이해하고 법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에 헌법 번역의 경우에는 해당 나라의 법을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되었습니다.

○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김 ○ 원

값진 봉사활동 경험

법조인을 희망하는 한 사람으로서 로스쿨에 진학하기 이전에 법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봉사활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봉사활동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 국정감사모니터링, 언론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국정감사모니터링은 이번 학기 필수활동으로서 가을에 진행되는 국정감사 중 2가지를 선택하여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고, 의원들의 태도, 발언 시간, 발언 주제를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고 의원들을 평가하는 활동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국정감사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오고가는지 몰랐었는데 이번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다양하고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 발언이 오고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일상에서는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와 닿지 않았었는데 입법한 내용과 토론하는 내용 및 주제들을 검토하며 우리 사회에 얼마나 신경쓰고 계시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의 입법을 담당하고 지역구를 위해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인지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평소에 장관이 어떤 정책을 내리고 행동하는지, 국회는 어떤 주제에 대해 입법화하는지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활동인지에 대해 느끼게 되었습니다.

언론모니터링은 여러 가지 활동이 있지만 그 중에서 10대 일간지 사설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10대 일간지 사설 분석은 기간을 정하여 10대 일간지 사설을 모두 스크랩하고 동일한 이슈에 대한 언론사들의 논조를 비교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언론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최근의 정세를 이해하고 각 언론사들의 논조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이슈에 대해서도 언론사의 정치 사회적 성향에 따라 다른 논조로 논쟁이 전개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고, 이에 더하여 언론사의 특성상 필자의 주관에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 리서치는 실제 판결문을 읽고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여 정리하고 요약하는 활동이

었습니다. 판결문 내용은 부당이득금 반환에 있어서 집합건물에서도 민법의 법리를 가져올 수 있는지, 또한 이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해석이 가장 큰 쟁점으로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기존의 판결과 달리 최종심에서 전유면적에 따른 대지사용권의 처분일체성을 인정하여 원심판결 파기 환송이 되는 데 주요하게 작용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기존에 쌓은 법학 지식으로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논리로 판결이 나게 된건지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법학 논리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와 쟁점을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법학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익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법과 정치 영역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평소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최근 이슈들을 접할 수 있었고, 법에 대해 익숙해지고 더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 봉사활동도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 ○ 영

이번이 작년 겨울학기에 이은 두 번째 봉사활동이었다. 나뿐만 아니라,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는 봉사를 신청하는 대부분이 법조인과 관련된 진로를 꿈꾸기 때문일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 가장 유의미한 것은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라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 단체에서의 활동이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는 소감을 밝힌다.

작년에는 헌법 번역과 판결문 리서치와 의정 모니터링에 참여했다. 올해는 작년에 여건이 안 되어 가지 못했던 사법감시 배심원단 활동과 필수 활동인 국정감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했는데, 특히 사법감시 배심원단 활동을 위해 직접 가게 된 법정에서 많은 부분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다. 흔히들 변호사는 직업에 감정을 심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만, 두 번의 사법감시 배심원단 활동에서 마주한 변호사분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옳지 못한 것과 옳은 것을 알고, 피해를 받은 이의 아픔에 공감하고, 정당한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뛰어다니는 모습에서 누군가에게 두드러 맞은 듯 아,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지, 하고 가고자 하는 길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2022 고단 6891 사건을 방청하기 직전 말씀해 주신 변호사 윤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번에 기소된 피고인 조성재는 무려 변호사였다. IDS 홀딩스 사기 방조 사건에 연루되어 연루되었다는 말과 사기 방조라는 말이 실은 무력한 것이, 변호사라는 직업의 신뢰도를 무기삼아 직접적으로 전면에 나서 사기를 행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저 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아무튼 변호사는 공익을 위해 법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그것이 결코 법을 알고 법의 구멍을 알게 됨으로써 자행되는 범죄에 결코 가담해서는 안 되며 또한 윤리적으로 공익적으로 법복을 입으면서 약속했던 그 맹세들에 욕보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마음 깊이 새길 것을 다짐했다

○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김 ○ 은

2023년도 법률소비자 연맹 가을학기 봉사활동은 나의 첫 대외활동이었다. 법 관련 전공을 공부하면서 로

스쿨 진학과 법조인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관련된 활동을 탐색하던 도중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되었다. 기존에 연탄봉사, 급식 봉사 등 다양한 종류의 봉사활동을 하였으나, 법과 관련된 봉사활동이라기에 과연 어떤 활동이 있을지 기대를 하며 신청했다. 법률소비자연맹에는 국정감사모니터링, 사법배심원단, 번역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고, 이 중에서 가을학기의 필수 활동인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제외하고는 봉사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었다. 다양한 활동 중 국정감사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법정모니터링, 사법감시배심원의 4가지 활동을 선택하였고, 이 중 국정감사모니터링과 사법감시배심원 활동이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았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의 경우 항상 뉴스나 유튜브의 짧은 영상을 통해 단편적, 간접적으로 접하기만 해보았는데, 이 활동을 통해 직접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실제로 피감기관과 상임위원회가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국정에 관한 사항을 지적하고,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 단편적으로 본 국정감사의 모습은 국회의원들이 즉석에서 질문을 하고 피감기관장은 답변하는 형식의 단순한 모습으로 기억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경험해 본 결과, 생각과는 다르게, 양측에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날카로운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 점이 놀라웠다. 물론, 실망적인 부분들도 보였지만, 이들이 국정 감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귀중한 기회였다.

대학교에서 법학 계열의 전공을 배우고 있으나, 법의 이론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학습하였을 뿐,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할 기회가 부족했다. 국정감사, 판결문리서치도 물론 도움이 되었지만, 법정모니터링이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통상, 대부분의 형사재판은 간이공판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에, 일반인이 홀로 재판방청을 하게 될 경우 대부분 10~20분 이내로 재판이 끝나며, 선고 위주의 재판이 이루어지기에 재판의 모든 절차를 보기는 어려운 편이다. 그러나 사법감시배심원단과 법정모니터링을 통해서 증인 신문이라는 경험하기 어려운 재판 절차를 방청할 수 있었다. 가령 TV 속 화면으로만 보던 증인 선서라든지, 검사와 변호인의 주신문과 반대신문, 그들 간의 공방을 지켜볼 수 있었다. 법원이 접근성이 좋은 편은 아니기에 법원 방청을 자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감수할 정도로 법정모니터링은 법률 소비자 연맹의 봉사활동중 단연코 가장 유익한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재판이 공개주의인 이유는 민주적 정당성을 위해, 즉 재판의 절차를 공개하여 그 어떠한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시민들이 재판 절차를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법정모니터링의 취지가 공정한 재판을 증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과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기여했다는 생각이 든다.

대학 생활과 병행하여 봉사활동30시간 이상을 충족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학업은 물론, 그 외중 봉사활동에도 상당한 신경을 써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학업을 통해서 는 법적 이론을, 법률 소비자 연맹의 활동을 통해서 는 법의 실질적인 부분을 경험, 관련 지식의 습득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이점이 있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법조인을 희망하거나, 적어도 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법에 관련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기회가 앞으로 로스쿨을 지원하고, 법조인이 되는 과정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활동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전혀 후회되지 않는 귀중한 경험이었다.

○ 서강대학교 글로벌한국학과 김 ○ 린

헛수로 벌써 2년째,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학기마다 봉사활동 참여 신청을 할 때마다, 익숙하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성실하게 해내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봉사활동을 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하고 참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봉사활동이란 무엇일까요?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은 다른 봉사활동들과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다른 봉사활동들과는 달리, 사회 전반에 도움이 되는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가을학기의 경우 국정감사 모니터링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작년 가을학기에 진행했던 국정감사사와 자연스럽게 비교해볼 수 있었는데, 작은 변화들이 느껴졌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면 '파행'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의 감사 모니터링을 할 때에는 파행 항목에 2회 정도 표시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올해 모니터링의 경우 단 하나의 파행도 확인해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최근 사회면 뉴스를 확인할 때에도 '국정감사의 파행' 등의 기사가 많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이 추구하는 공익적 성격의 봉사활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당시에도 봉사활동의 결실이 단순히 한 명의 개인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 사회 전반에 돌아가게 된다는 설명을 읽었습니다. 다음 겨울학기 봉사활동에도 참여하여 재판 모니터링, 언론 모니터링 등 사회 전반의 법적 성격을 띠는 활동을 모니터링하며 사회에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소비자연맹의 공익적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김 ○ 연

이번 가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은 저에게 매우 뜻깊었습니다. 먼저 국정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며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국회의원들은 어떤 법리적 근거에 의해 이를 제시하는지 점검할 수 있었

습니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일회용품 저감사업과 마포쓰레기소각장 안전은 당장 우리의 생활과도 맞닿아 있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국정감사에 국회의원들이 성실히 참여해준 덕분에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은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이었던 사설 모니터링을 통해서 는 현재 떠오르는 이슈에 대한 쟁점을 파악하고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언론사들의 다양한 시각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 대해 10대 언론사들이 모두 공통적인 의견을 도출한 점이 가장 흥미로웠으며 이를 통해 한시라도 국정이 원활히 운영되길 바라는 그들의 염원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형 제시카법은 아직 더 많은 법적 논의와 합의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는 이슈였습니다. 또한 정치와 사회 이슈에 치우친 현재의 주제에서 벗어나 문화나 경제 주제도 활발히 다루어 앞으로는 다양한 이슈의 사실들을 접하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봉사활동에서 진행한 국정 모니터링과 사설 모니터링을 통해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법률적 지식을 배우고 하나의 사건을 다각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희망만 품은 채 학교생활에만 몰두하며 법과 떨어진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을 실제로 접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뜻깊었으며 법조인이 되고 싶은 꿈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보람찬 경험이었습니다.

○ 국민대학교 법학부 김 ○ 연

저번에 이어 두번째로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공익을 중점으로 두고 있기에 의미가 남달랐고, 저의 진로인 로스쿨과 관련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로 번역봉사 위주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영어에 자신이 있었던 저는 법에 관련된 영어 용어들을 익히고, 다른 나라의 법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하며 번역 봉사활동에 지원했습니다. 미국 주의 헌법을 번역했는데, 민주적 국가의 헌법에 각 기관들의 균형과 견제가 잘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두 개의 주의 헌법을 비교하면서 번역을 할 수 있어서 각 주마다 서로 다른 헌법의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언어와 문장이 길어 번역하기 어려웠지만, 민주적 국가의 첫째인 미국 헌법을 번역하므로써 법대를 다니며 대한민국 헌법을 배우고 있는 저로서는 양자를 비교해서 각 나라마다 중요시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더 바람직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나라의 기본이 되는 법인 헌법을 규정하는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국가인 공통점을 가져 한국과 미국의 헌법에 다른 점은 크게 없었으며, 약간의 다른점(예를들어 상원제 하원제)에 대해 번역할 때는 차이점을 찾아가며 흥미를 느끼면서 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모니터링 봉사를 하였습니다. 국정감사 두 개 모두 실시간 감사를 했는데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실시간으로 감사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국회의원들마다의 특징과 어슬을 들으면서 배울점이 많았습니다. 또한 국회가 하나의 당만으

로 이루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했고, 각 당의 의원들이 서로 다른 입장이 있기에 국회의원들이 안일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현재 위치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제와 관련된 국정감사를 실시했는데, 국가의 예산이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잘못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는 압박을 하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시정을 요구하는 점도 보였습니다. 이에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김 ○ 주

현재 제가 활동하고 있는 법학회의 선배님께서, 로스쿨 입시설명회 때 소개해준 활동 중 가장 해보고 싶은 활동이 법률소비자연맹 봉사여서 택하였다. 학기 중에 30시간 이상의 봉사 시간을 채워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 수업과 시험에 영향이 가지는 않을지 고민하였으나, 현장이 아닌 온라인으로 국정감사모니터링을 대체할 수 있는 등, 대안이 많아서 유용하고 나름 편하게 봉사활동한 것 같다. 법원 안에서 재판을 방청한 적이 없었는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현장 봉사활동을 하며 재판도 현장에서 방청할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법률의 소비자'가 국민이라는 것이, 당연하면서도 '법'이라는 것의 무게감 때문에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과 국정감사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법률의 소비자로서, 국민들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의 경우, 케이스노트와 같은 판례사이트가 아닌 직접 법원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서 유용했다고 생각하며, 해당 재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조인들의 과거 이력까지 알아보며, 리서치를 하는 것이 신기했다.

○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김 ○ 윤

4학년이 되어서야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를 알게 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했기에 관련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가을학기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국정감사활동에 대해서는 사실 관련 봉사활동으로서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사법 관련한 봉사활동만을 생각했던 저에게 국정감사활동은 정치계에 발 딛을 사람들에게나 중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활동 또한 저에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티비 보듯이 국정 감사를 지켜보았다면 못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의원들의 발언이나 제시하는 발언들을 세세히 정리하고 기록하면서 관련된 입법안들 또한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국정감사활동에서 언급된 입법안들이 정식적으로 국회회의를 거치고 법안이 제정된다면 결국 사법부는 이 법안을 집행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법에 관심이 있다면 국정 감사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법안들이 법률적으로 합리적인지를 고려하며 문제점은 없는지, 이 법이 제정되었을 때 사회적 파장은 어떠한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제 사법 위원회에 대한 국정 감사활동은 직접적으로 법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인 맥락에서도 볼 수 있지만,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위원회 위원들의 발언이 타당한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에도 정치적인 영향으로 인해 억지 주장이 펼쳐지는 모습들도 간간히 등장 하였고, 훗날 사법부에서 일할 때에는 정치인이 아닌 법조인으로서 오로지 공정하게 법에 따라 사안을 다뤄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가을학기 봉사활동을 통해서 얻은 것은 전문적 법률 지식을 가진 법조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법의 수범자인 국민으로서 국정감사활동과 판결문을 해석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엘리트 코스만을 밟으며 전문적 지식인으로서 존재하는 법조인과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법조인은 훗날 법을 다루는 태도와 역량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가장 주목한 것은 법률소비자연맹 단체의 이름 그대로 법률을 소비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법을 바라볼 수 있는가 입니다. 물론 법조인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 감정에 의해 휘둘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조인으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직 법리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공명정대한 판단을 하되, 국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법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을 읽었을 때, 가장 큰 문제로 느낀 것은 만연체 문장이 난무하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관습이 있겠지만, 판결문을 읽게 될 국민에 대한 배려가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이 더 쉽게 법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내용을 좀 더 쉬운 문장으로 정리하면서 더욱 쉽고 간결하게 바꿀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작업의 중요성은 국민들이 법의 태도를 이해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무슨 법이 이래' 또는 '이래서 법조인이 문제야'라며 수범자가 법을 회피하고 혐오하는 현상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사법에 대한 무너진 신뢰 또한 회복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개인적인 역량 뿐 아니라 사회적 공익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희망을 품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김 ○

법 관련 봉사활동을 알아보기 전까지는 법률소비자연맹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법률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알아보다가 가을학기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큰 보람을 느꼈다.

내가 참여한 가을학기 봉사활동은 크게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헌법 번역 봉사 활동이었다. 먼저,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10월 열리는 국정감사를 평가하는 활동이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봉사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국정감사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그 과정을 알게 되었고, 국민의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국민의 평가가 없다면 정책이 잘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예산에 낭비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총 2회로, 문화체육관광위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행한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했다. 이전에는 국정감사를 국회의 의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국정 감사가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제도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또, 올해 각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주요 이슈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다음으로, 번역 봉사에 참여했다. 내가 맡은 봉사활동은 미국 일리노이주 헌법이었다. 주별로 헌법이 있는 미국의 헌법을 번역한다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였다. 헌법에 사용하는 영어 단어는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달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가며 번역을 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법에 관련한 봉사활동은 처음 진행해보는 것이라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법률소비자연맹 측에서 제공한 자료 및 피드백을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법과 정치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었으며, 기회가 된다면 다음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또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번역 봉사활동 말고도 다른 종류의 봉사활동에도 참여해보고 싶다.

○ 단국대학교 법학과 김 ○ 지

지난 여름학기에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처음 접하고 활동하면서 전공을 살려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했다는 뿌듯함을 크게 느낀 바 있습니다. 가을 학기에도 이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 봉사활동 신청 공고가 뜨자마자 재빨리 신청하고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하게 된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였습니다. 저는 형사사건에 관심이 많아 업무상배임죄 사건과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학기에 한 차례 경험했기 때문인지 보다 능숙하게 판결문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두 학기에 걸쳐 진행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 덕분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판결문 요약 과제도 수월하게 해낼 수 있었고, 법학도에게 정말 유익한 활동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게 된 활동은 국정감사 모니터링이었습니다. 가을학기에만 할 수 있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이번 학기 봉사활동을 신청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활동이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진행하는 국정감사에 운이 좋게도 현장 모니터링 위원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쉽게 출입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긴장도 많이 됐지만, NGO모니터링위원단 자격으로 참석하였기에 무게감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방부 국정감사는 국방부장관 임명에 대한 피케팅 이슈로 파행되었으나, 그간 뉴스에서만 봐오던 것들을 생생한 현장에서 접했던 것이 매우 신기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을 대표하여 국정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에 큰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과방위 산하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선택하여 온라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피감기관을 향한 국회의원들의 날선 질문들을 정리하면서 피감기관과 관련된 올해 이슈들을 한 차례 되짚어 볼 수 있어 좋았고,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루고 발전해나가는 우리

사회의 체제에 대한 중요성을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습시다.

짧은 활동기간이었지만 활동을 통해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느낀 점도 많았고, 전공 분야와 관련된 활동인 만큼 남은 학기에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자극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 동국대학교 광고홍보학과 남 ○ 민

법과는 전혀 상관 없는 전공을 공부하다가 법조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여름 방학이었습니다. 성적에 맞춰 진학한 학과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저의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무렵, 저는 좋은 기회로 로스쿨에 진학한 선배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학과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선배가 방향하던 이야기, 그러다가 선택하게 된 법조인의 길에 대한 이야기는 제게 큰 동기부여가 됐고, 이 날로 인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법조인'이라는 직업에 대해 자세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사법 활동에 관심이 많았지만, 기사나 관련 책들을 조금 찾아보는 정도였을 뿐 적극적으로 탐색을 해본 경험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이쪽 길을 진로로 잡다니, 말도 안 돼' 라며 저도 모르게 선을 긋고 있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관심을 두고 있던 분야인데도 말입니다. 당시 방학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고, 덕분에 저는 법조계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알아보며 흥미를 더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더 가까워서 이 분야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게 동기를 주었던 선배가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추천해주어 바로 가을학기 봉사 신청을 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학기에 한 봉사활동은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 국정감사 모니터링, 법정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 위주의 활동을 하였는데, 법정에 가본 적이 없었고 재판 과정을 지켜본 적은 더더욱 없었던 저는 픽션 속 재판이 아닌 실제 재판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2호선 교대역에 내려 서울중앙지방법원까지 걸어갔을 때의 느낌과, 처음으로 법원에 들어섰을 때의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벅차오른다는 느낌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재판의 체계와 사건의 흐름, 판사/검사/변호사는 어떤 식으로 재판에 임하는지, 분위기는 어떠한지 자세히 체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모니터링 시간이 길게 느껴지거나 버겁진 않을까 걱정도 했었지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봉사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학번이었기에 개강한 뒤로는 바쁜 시간표로 정신이 없었지만, 공강시간에 틈틈이 법원에 들러 모니터링을 하며 시간을 채웠습니다. 공강이 생기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때리는 것이 일상이었던 제게 생긴 작지만 큰 변화였습니다. 제가 법원에 봉사하러 간다고 하자 부모님께서 놀라시던 모습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길지만 짧았던 봉사활동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느꼈

고, 많은 변화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봉사에 참여하여 제가 해보지 못한 다른 활동들에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노 ○ 연

팬데믹으로 서울 소재에 있는 학교에서의 대면 수업과 멀어진 저는, 대학교 총 8학기 중 5학기가 지날 때까지 봉사활동이라 부를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팬데믹을 핑계로 제가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회피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3학년 들어 첫 대면학기를 시작한 이후에서야 본격적으로 저의 장래를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정치학이 좋아 이학과에 입학했으나, 때로는 정치가 당장 오늘의 삶의 몫조차 힘든 개인을 당장 구제하지는 못하는 '가진 자들의 학문'이라는 생각에 회의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한편 교양 및 전공수업을 들으면서 제도권 내에서 사람을 위해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법학임을 깨달아, 법조인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법은 사람과 사회를 위해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때문에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역량은 사회 참여와 글쓰기라고 생각했고,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을 알아보던 중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결리서치, 국정감사모니터링, 법정모니터링 등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대부분의 활동이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했다고 생각합니다.

활동 시작 이후 제가 처음 참여한 것은 법정모니터링이었습니다. 법정에 직접 들어가서 재판을 방청하는 것은 이번이 첫 경험이었었는데, 법정 분위기는 저의 예상과 아주 달랐습니다. 판사복을 입고 엄중하고 딱딱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를 상상했으나, 피고인을 대하는 친절하고 따뜻한 모습에 사뭇 놀랐습니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유추해석금지'를 언급하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는데, 이에 대해 판사가 유추해석금지원칙은 이론상 법률해석 단계에서의 원칙이지 사실관계확인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피고인의 법리오해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주었습니다. 판사라는 직업에 관해 가졌던 저의 편견을 깰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거의 없는 당사자의 경우,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머지 사건 관련자가 당사자를 배제한 채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은 언론에서 드러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특정 기관에 대해 비판을 하고자 한다면 동시에 그에 대한 대안이나 큰 틀을 제시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들 중에는 '하나마나 한', 건설적이지 못한 이야기를 하거나 피감기관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이도 있었습니다. 한편 특정 주제에 대해 심도 깊게 자료조사와 분석을 진행하여 유의미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한 의원도 많았습니다. 이 덕분에 모니터링과 별개로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루는 사건과 주제들에 대해 많이 배우고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판례리서치를 통해 판례와 법률을 직접 찾아보면서

법학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고 3심까지 진행된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실관계도 중요하나 그보다 법률관계와 그에 대한 오해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판례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관계에 초점을 둔 쟁점이 아니라, 당사자가 관련법에 의거한 사업자가 맞는지, 특정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등의 법률적 사실 여부에 따라 판결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약관법과 온라인판매 및 중개 등에 관해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압축적으로 많은 활동을 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단순히 법률과 판례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와 배심원단 활동 등 법률에 관한 실질적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소비자연맹 활동의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한 학기 동안 덕분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류 ○ 정

대학교에서 여러 법 과목들을 수강하며 법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법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해 보고자 올해 여름 학기에 이어 가을 학기에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 활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담당자님들께서 봉사 활동 결과물에 대해 정성스럽게 피드백을 해주신 덕분에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국정감사모니터링과 번역봉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국정감사모니터링 활동에서는 10월에 열린 국정감사 중 최소한 2개를 선정하여 보고서 양식에 맞춰 국정감사를 평가해야 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의 경우 2개의 국정 감사를 선정하였는데, 러닝타임만 각각 6시간, 9시간씩 진행되었습니다. 거기가 국정감사 시청과 별도로 국정감사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추가로 각 1시간 30분가량 걸렸습니다.

보고서에 작성해야 할 목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감사위원별 질의시간 2) 해당 피감기관에 대한 주요 국정감사 이슈 (상위 5개) 3) 감사위원별 국정감사 질의 내용 정리 4) 국회의원별 질의내용 분석 5) 국회의원 평가 6) 피감기관 평가 7) 상임위원회 평가.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별로 다루어진 모든 질의를 모으고 정리하는 과정은 절대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활동을 통해 국정감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진 이슈 중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값진 배움이었습니다.

번역 봉사활동에서는 미국 위스콘신주의 헌법을 배정받았습니다. 영어 실력에 자신이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번역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영문 소설 및 뉴스와 괴리감이 느껴지는 법조문 특유의 딱딱한 문체, 가독성이 떨어지는 긴 문장들,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혼합되어 번역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조문이라는 것이 어떠한 형식으로 작성되는지, 문장들이 어떠한 짜임새를 가지고 기능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학기에 번역한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헌법과의 차이점을 발견하는 과정이 즐거웠

습니다.

가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 활동은 학교 수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제가 배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법은 항상 제게 생소하고,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는 분야였습니다. 그러나 봉사 활동을 통해 법이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친숙한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법과 정치라는 두 분야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해 겨울 학기 역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 활동에 도전하여 또 다른 새로운 배움을 얻어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봉사 활동 결과물에 항상 정성스럽게 답변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의 모든 담당자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 일반 민 ○ 희

이번 가을학기 봉사활동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그리고 사설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먼저, 국정감사 모니터링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헌법 재판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했다. 국정감사의 목적은 정부 부처 및 기관의 업무를 검토하여 투명한 행정을 보장하고, 의회가 정부를 감시하며 권력을 분산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 활동을 보장하는 중요한 민주적 절차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국정감사가 다소 정치적으로 변질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감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는 감사의 본질적인 목적과는 거리가 있을 것이다. 특정 이슈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공방은 때때로 감사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본래 목적인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은 국정감사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 요소와 상호작용하면서 복잡한 과정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에서 국정감사의 중요성과 동시에 그 한계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으로는 2건의 형사사건 판결문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판결문은 스토킹 범죄에 관한 것이었으며, 처음 판결문을 접한 나에게는 익숙해지는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두 번째 판결문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된 것이었고, 이전 경험을 통해 더 빠르게 판결문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법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판결의 근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결의 타당성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추가적인 공부が必要하다고 생각했다. 두 판결문을 분석하며 법이 개인의 삶과 사회적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법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특히, 형사 사건 재판에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피해자가 소외될 가능성에 대해 곱씹어 보았다. 물론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보호될 수 있는 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사설 모니터링 활동에서는 10대 언론사의 사설을 정치외교, 사회문화, 경제 분야로 분류하여

대상 기간 동안의 주요 이슈에 대해 분석하였다. 평소 이렇게 다양한 언론사의 사설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사의 사설들 간 집중하고 있는 이슈들의 차이와 정보 제공 방향성이 얼마나 다른지 깊게 고민해본 적은 없었는데 본 활동을 하며 언론사마다 주요 이슈를 다루는 방식이 얼마나 다르며, 정보 전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봉사활동은, 법이 단순히 책이나 규정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상 속에서도 미세하게 작용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박 ○ 진

올해 여름에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법률연맹이라는 비정부기구를 알게 되었고 친구와 함께 봉사활동을 신청했다. 첫 봉사활동은 사법감시배심원단활동이었다. 이를 통해 첫 재판 방청을 해봐서 아직도 피고인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임했던 기업의 이름도 기억이 난다. 주변으로부터 실제 재판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며 따분하다고 들었지만 이와 달리 증인신문이 생생히 기억날 정도로 방청은 재미있었다. 초중고 시절에 영화 "재심"에 나온 재심 전문 변호사나 영화 "변호인"의 주인공 노무현 인권변호사 등 인권이나 사회정의의 위해 사명을 다하는 변호사가 있다는 것을 매체를 통해 알게 됐다. 위의 영화처럼 심하게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는 아니지만 한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러 투자자들을 위해 직접 고발하며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등 사명에 맞게 살아가는 증인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 영화보다(물론 실화바탕의 영화이지만...)더 현실적이고 또 진짜 현실이었기에 피부로 와 닿았던 것 같다. 이후에도 법정모니터링활동을 하며 당해 사건을 통해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좋았다. 예컨대 이태원참사 사건을 방청하며 형사책임은 어떨 경우 부과되어야 하는지, 공직자로서의 책임 등을 생각해보았다.

다음으로 국정감사모니터링이 기억에 남는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제를 취하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서로 견제를 하며 국가권력이 균형을 이룬다.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수단 중에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대표적이다. 국정감사에 대해 배운 적은 있지만 직접 국정감사를 볼 것이라 생각한 적은 없었다.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 접한 국회의원에 대한 나의 인식은 그다지 좋지는 않았다.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국회의원을 보며 '모든 국회의원이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아니구나. 누군가는 뒤에서 열심히 국민을 대표하여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또한 거시경제수업을 통해 배운 중앙은행, 헌법 수업을 통해 배운 헌법 재판소에 대해 몰랐던 사실이나 제도, 내부사정을 알게 되었고 정치적인 시각(차기 총선에의 영향, 정부에의 영향 등)에서 바라볼 수도 있게 되어 좋았다.

여름부터 초겨울까지 법원, 국회, 정부, 현재, 한국은 행까지 여러 국가기관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해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자율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몰랐던 점을 배우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못 느꼈던 감정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정의를 위해,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단체가 있다

는 것이 기쁘고 희망적이다. 그리고 정의나 민주주의의 첫 걸음은 정치적 관심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법률연맹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뉴스라도 한 번 더 보고, 판례를 보더라도 공부거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에게는 진짜 일어난 일이고 나아가 사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에 영향을 끼칠 것인지 등을 생각해봐야겠다.

판결문리서치활동, 언론모니터링활동 등 아직 안 해본 활동이 많아 아쉬움이 남지만 좋은 시간이었다. 주변에서 봉사활동을 찾고 있다면 법률연맹봉사활동을 추천해 주어야겠다...!

○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박 ○ 영

법과 정치의 실상에 다가서기

이번 가을학기의 필수 활동은 국정감사 모니터링이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국정 전반에 관하여 실시하는 정기감사로써,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적 기능을 실현함과 동시에, 감사의 공개성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소감문의 자리를 빌려 감사를 방청하며 개인적으로 느낀 문제점을 간략하게 적어보고자 한다. 우선 감사의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다. 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감사 범위를 소관위원회별로 분류하고 있다지만, 대상기관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어떤 기관의 경우에는 감사에 출석은 하였으나 어떤 감사위원도 질의를 하지 않아 그대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사전에 질의사항의 분배를 적절히 이루어두든지, 일부 대상기관은 서면감사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음으로는 질의의 내용이 다소 정치·편향적이며, 이러한 부분에 있어 중복되는 질의가 상당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다양한 현안 중 국민의 의혹과 관련된 사항을 성실히 질의하는 것은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 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피감기관의 정책에 대해 당연히 여·야간의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수장에 대한 비판 및 옹호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피감기관의 업무처리가 법에 어긋남 없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는지, 설정한 정책과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 행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등 점검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매년 1회로 한정되어 있는 자리인 만큼 보다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봉사를 하기 전까지 국정감사와 같은 국회의원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로 온라인 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을 해보니 어떤 국회의원은 사안 하나하나에 대하여 고심하여 질의하고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가 하면, 어떤 국회의원은 주어진 시간을 적당히 넘기기 위한 표면적인 질의에 그치기도 하였다. "모든 국가는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는 격언이 있다. 국가의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는, 법률을 소비하는 소비자로서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알 수 있었다.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에서 재판 참관을 하며 방청의 중요성을 느꼈다. 재판관계인 외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 그 재판에 임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이나 배심원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역봉사에서는 일본 저작권법 시행령을 번역했다. 보통 법을 공부하다보면 법률에서 그치고 시행령까지 살펴보는 경우는 드문데, 이를 직접 번역해보면서 입법체계와 그 구조에 대해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다.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받아 제정되는 하위규범인 만큼 보다 구체적 이어서, 저장되는 매체의 규격 및 기준까지 세세하게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는 규범을 만드는 입법이 얼마나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인지 느낄 수 있었다.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박 ○ 혜

우선 가장 최근에 진행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 있어서는 사회적 이슈로만 알고 있던 것들을 이전에 배워본 적 없는 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기뻐했습니다. 전공이 경영학이다 보니 법에 막연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집중하여 하나의 사건을 뜯어본 적은 없었는데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부러 민사와 형사 사건에 대한 판결을 각 하나씩 분석해보았습니다. 평소 TV 프로그램 등 매체를 통해 민사재판에는 쉽게 흥미를 가질 수 있지만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처음 접해본 것 같은데 일종의 사회 질서 측면에서 사법 체계의 중요성, 정부 정책의 투명성, 법질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저도 직접 국가에 세금을 납부할 기회가 생기곤 하는데 그렇다보니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하여 최근에 이루어진 판결도 분석하기에 재미가 있었습니다.

가장 뜻 깊었던 활동은 가을학기 봉사에 포함되어 있는 국정감사 모니터링이었습니다. 저는 관심사에 맞추어 10월 10일에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와 10월 26일에 진행된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대해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최근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게 된 이유에는 정치적 효능감이 부재한 것이 주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치적 효능감이란 개인이 정당이나 시민사회 등의 정치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자신의 의견이 그 과정에 반영되어 실제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때에 느끼는 성취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두 개의 정당이 중심이 되어 주요 의석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선거 등의 정치 과정에 내가 참여해도 딱히 바뀌는 것이 없다고 느끼게 되어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정치에 대해 배운 적이 없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여하고 그 방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 내가 정치에 참여했을 때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작 국정감사 2차시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고 해서 크게 바뀔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주요 부처들이 수행한 업무들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금은 알

고,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피감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인촌 장관이 광범위한 문화의 영향력에 대해 강조하신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본인께서 배우 출신이시다보니 전문적으로 해당 분야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활동에 있어서도 좀 더 관심과 기대감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한 번의 법률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언론모니터링 활동도 수행해보고 싶습니다.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박 ○ 은

이번 가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느낀점들이 정말 많은데, 이것을 소감문에 적어보려 한다. 먼저 봉사 참여 계기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현재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고 있고 이에 관련된 활동이 무엇이 있는지 열심히 찾아보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알게 되었다. 나의 꿈인 변호인과 관련된 의미있는 활동이라 생각해 바로 신청하였다. 정확히 어떤 종류의 봉사활동이 있는지 알고 있지 못했는데 오티를 통해 법률소비자연맹이 번역봉사, 언론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법정 모니터링, 그리고 국정감사 모니터링 등 다양한 봉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중 내가 관심 있었던 활동은 법정 모니터링이었다. 일반인 중에 법정 방청을 갈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거의 없을 것이라 예상하고 부끄럽지만 나도 '그 사람들'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실제로 법원에 가 재판의 생생한 현장을 느끼고 싶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학교 일정과 추가적인 대외활동으로 인해 법정 모니터링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마음 속에 큰 아쉬움이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재판을 방청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이를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기에 활동이 끝난 이후라도 꼭 재판 방청을 가 보려고 한다. 참여한 활동은 번역 봉사와 가을학기 필수 활동인 국정감사 모니터링이었다. 번역 봉사는 미국의 동물복지법을 번역하였는데, 생소한 법이었기 때문에 번역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번역 봉사를 통해 여러 나라의 법률을 배우고 우리나라의 것과 비교해보면서 인사이트도 꽤나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가을학기 국정감사모니터링은 2회 진행하여서 더욱더 인상 깊은 활동이다. 국정감사는 국가의 예산 집행 및 정책 수립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국정감사모니터링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활동을 검토하고 감독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정당한 절차와 규정이 준수되는지 확인하고, 사회적으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활동이라 생각한다. 이전에 국정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무슨 기관들이 참석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었다. 그러나 모니터링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며 국정 감사가 국회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회의록도 남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관심'만 있으면 접근할 수 있겠다고 느꼈다. 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위원회, 두 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하였다. 각 지역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어떤 사항을 질의하는지 등을 정

리하며 새롭게 깨달은 것들이 많았고 생각보다 굉장히 현안에 대한 직접적이고 날카로운 질의와 요청이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보았다. 이번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의 예산 집행 및 정책 수립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정 감사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시민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법과 정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책임감을 실천하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다. 이 경험을 통해 법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을 것이며, 공익을 위한 봉사 활동의 가치를 더욱 느낄 수 있었다. 아무래도 처음 참여하는 봉사라 서툴고 어려웠던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는 것이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봉사에서 진행하지 못한 법정 모니터링, 언론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등의 다양한 법률 봉사종류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느꼈다. 다음 학기 봉사에는 가을학기에 얻은 배움과 의지를 바탕으로 더욱 성장할 것이다.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박 ○ 서

이번 학기에는 국정감사모니터링과 번역봉사로 총 2 가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를 올해 초에 알게 되었고, 봄학기과 가을학기에 봉사활동을 했는데 배우는 점이 많아서 좋다. 두 가지의 활동을 통해 어떤 점을 느끼고 배웠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번역봉사는 봄학기과 마찬가지로 미국 플로리다주 헌법을 이어서 번역했는데 전체 범위를 해석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들여다봄으로써 어느 정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 명시해놓은 section에서는 "이것까지 들어있어..." 싶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부분들도 꽤 있어서 흥미로웠다. 아직 학부생이기에 우리나라의 헌법도 모두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타 헌법을 일부 해석함으로써 "이런 것도 있구나~"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다음으로, 국정감사모니터링은 이번 가을학기에 처음 해본 활동인데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얻은 점이 좀 있어서 인상 깊었다. 사실 맨 처음에 5~6시간 되는 분량의 영상을 1분 1분도 놓치지 않고 요약하면서 봐야한다는 생각에 집중력이 따라올 수 있는 건지, 너무 힘들지는 않을지 걱정을 많이 했었다. 여러 분야의 국정감사 중 어떤 감사를 볼까 고민하던 중에, 아무래도 경영학과이다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이 '중소벤처기업부'로 향하게 되었다.

느낀 점부터 말하자면 놀라웠다. TV에서 잠깐 잠깐 나오는 주고받는 대화를 본 것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국정감사를 들여다본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법학에 관심이 있고 좋아하지만 정치에는 그닥 관심이 없고 딱히 궁금해 하지도 않는 편이라, 흔히 말하는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다. 감사장에서 소리지르고 싸우고 서로 비난하는 그런 이미지들만 머릿속에 갖고 있었다. 두

번의 국정감사 영상 시청 중에 목소리를 높이고 비난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 몇몇의 의원님들이 계시긴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단 약했고, 전체적으로 양측이 조화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특정 내용에 대해 지적을 하거나 질문을 하면, 질문을 무시하거나 그 주장이 틀렸다고 단언하지 않고 최대한 논리적이고 침착하게 답변해내는 모습에서 감명을 받았다. 또한, 그것이 단순히 몇 명에게 질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 내내 수 십 명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는 것인데, 매번 꾸준히 성실하게 잘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 멋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역시 자리는 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잘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점도 다시금 깨달았다.

이번 학기에 아쉬웠던 점은 판결문 리서치를 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봄학기 봉사활동 때도 하고 싶었는데 시간적 제약으로 하지 못했다가 이번 학기에는 더 바빠져서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되었다. 로스쿨 진학이 현재 가장 가까운 목표이고,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하는 봉사활동만큼 가치 있는 활동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에 졸업 때까지 매 학기 꾸준히 해서 자기소개서에도 작성할 계획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음 학기부터는 판결문 리서치도 해보고, 방청도 가보고, 보다 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다.

○ 국민대학교 공법학전공 박 ○ 수

처음에는 여러 법률과 관련한 활동들을 알아보다가 우연히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고, 이에 합격하여 총 1년동안 법률 관련 활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정모니터링과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국정감사모니터링이라는 크게 세 가지 활동들을 하였는데, 세 가지 모두 기억에 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활동하고자 지원했던 것은 의정모니터링입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의정모니터링이라는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의욕만 앞서서 신청했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배우지 않았던 국회와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초반에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건지, 이렇게 조사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 등등 확신 없이 계속해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차 정확한 공약 점검을 위해 하나 둘 자료들을 찾아 보니 조사의 방향성이 잡히고 동시에 조사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신감도 향상되어 후에는 조사 시간이 확연히 단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 국회의원당 흔히 알고 있는 공약들이 아닌 숨어있는, 국민들이 잘 모르는 공약들도 꽤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지켜진 공약들이 아닌 지켜지지 않은 공약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자서라도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갖게 된 활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국회의원들의 공약들을 살펴 보면서 제가 몰랐던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들(추진, 유지, 확보, 조성 등등의 지원활동)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고 사회의 여러 활동들과 관련하여 무지했던 저를 성장시켜준 것 같아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의 동기들이나 주변인들에게 꼭 한 번씩은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했던 활동이

었습니다. 두 번째로 활동하고자 지원한 것은 법정치의식 설문조사입니다. 이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매년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이하여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치의식을 조사하는 활동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설문조사라고 생각했으나, 받은 파일을 열어보니 검수완박, 대장동 50억클럽 특검, 민주노총 간첩단 연루사건 등등 심화적인 정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가볍게 여기면 안된다고 생각하여 동기들에게도 진중하게 부탁하였습니다. 동기들은 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저에게 어렵고 생소한 내용이여서 뉴스와 SNS들을 찾아보면서 작성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설문조사는 법정치의식과 관련하여 대학생의 의견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대학생들에게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상식들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정치 문제들을 알려주는 활동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 활동하고자 지원한 것은 국정감사모니터링 활동입니다. 이는 말그대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감사에 대해 모니터링 한 뒤 주요 국정감사 이슈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질의내용은 무엇인지와 더불어, 질의시간이 적절했는지와 같은 질의매너까지 하나하나 보고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국정감사 자체가 시간이 길기에 최소 3시간에서 시작하여 많게는 9시간까지 감사가 진행되어 집중하기가 힘든 점도 있었지만, 그만큼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다는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의 시사점을 알아볼 수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정치활동에서 중요시되는 사안이 무엇인지 확연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었기에 저에게 인상 깊었던 활동이었습니다.

○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배 ○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열의적 탐구를 통한 리걸마인드 고취』

저에게는 가문의 단비와도 같았던 3개월간의 봉사활동을 어느덧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공헌 활동에 관심이 많았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법학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았었습니다. 3학년이 된 만큼 진로에 적합한 활동을 탐색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법률소비자연맹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미진하지만 법학 전공지식을 활용해 사회에 조금이라도 공헌하고 싶다는 의욕이 솟구쳤습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을 지망하고 있었기에 법률리서치 활동과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내적으로도 성장하기를 바라며 첫 발을 용기 있게 내딛었습니다.

물론 처음이라 어렵고 낯선 용어들이 많아 좌절할 뻔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불안한 마음이 무색하게도 봉사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소감문은 첫 번째로, '국감 모니터링'에 파견되어 현장에서 배운 점과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적어본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추천 요령, 두 번째로는 판결문 리서치를 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로, '국감 모니터링'을 하며 피감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에 현장 파견되면서부터 점차 봉사활동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국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무작정 현장 모니터링을 신청했습니다. 심지어 기본적인 '상임위원회', '피감기관' 용어도 모르는 수준이었습니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

一見)의 정신으로 일단 가서,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고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모니터링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개 청문회라는 의미에 걸맞게 국정감사는 절차대로 순리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앉은 자리가 보좌관 좌석이기도 해서, 바로 앞에 의원들이 있었고, 또한 피감기관 장들이 대각선에 앉아있었기에 자세에 대한 압박감이 엄청 컸습니다. 그렇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나는 법률소비자 연맹 NGO 봉사단의 얼굴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되새기면서 8-9시간에 걸쳐 피곤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자세부터 바르게 하니 뭉롱했던 정신도 점차 울끈아졌습니다.

국감 모니터링의 평가요소는 ① 감사위원별 질의시간, ② 피감기관에 대한 주요 국감 이슈(상위 5개), ③ 감사위원별 국감 질의내용, ④ 질의내용 분석(문항별 1~5점 부여), ⑤ 국회의원 평가(잘한 의원, 못한 의원 각각 3명 선정) ⑥ 피감기관과 상임위원장 평가 이렇게 크게 6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주요 국감 이슈를 직접 뽑고 핵심을 정리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여야가 주로 대립하는 쟁점을 선정해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피감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에서 나온 주요이슈들이었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대체투자, 법정 자본금, 히든 챔피언 등의 사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크게 대립되었던 쟁점 사항은 "한국수출입 은행은 남북협력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였습니다. 여당의 경우, 은행이 북에 빌려준 차관을 다시 가져올 만한 대응책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야당의 경, 남북관계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기금을 장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국감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이슈를 뽑는 과정에서 상임위와 피감기관에 대한 배경지식을 함께 넓히고, 더불어 여야 간 입장 및 대립관계의 수준도 함께 파악하며 입체적으로 보고서를 그려내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 의원의 태도만을 보고 표면적으로 작성할 수도 있겠으나, 만약 이 모니터링을 통해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것이 많다면, ①해당 국회의원이 서-본-결에 의거해 논리적으로 비판을 제기했는지 ②실효적인 개선방안을 2023년도 가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 소감문

추구했는지, 그리고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③ 질의 및 감사 매너 부문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나눠 보다 체계적인 작성을 권장합니다.

상대를 지적만 하고 끝나는 의원보다는, 상기한 문제점을 통계를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더 좋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원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며 모니터링을 작성하면, 훨씬 더 많이 배우고, 깊이감 있고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판결문리서치' 활동의 경우 국감모니터링보다도 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취소 사건을 리서치 했는데요.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행정소송과 달리 지방법원 등을 거치지 않고

서울고등법원에 바로 제소해야한다는 점,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 대법원의 2심제를 따른다는 점과 같은 배경지식이 없어, 존재하지 않는 3심을 계속해서 찾으며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판사가 되었을 때를 가정하면서 판결문도 직접 짜보고, 쟁점정리와 판결요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조인'의 역할에 대해 더 깊이있게 고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사실관계와 당사자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동시에, 다양한 판례와 법조문을 활용해 근거있고, 논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기술 유용 사례를 보며 상경·이공계열 지식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비법학적인 지식까지도 융합하고 통섭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법조인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법률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자발적으로 민주적 시민의식을 고양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몇 번의 난관에도 포기치 않고 내딛은 저의 작지만 용기있는 발걸음이, 법률에 무지하여 고통받는 제3자의 알 권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분명 봉사자본인에게 남는 것이 많은 활동이 될 것임은 분명할 뿐더러, 국가사회를 구성하는 공동체 전원에게까지도 공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향후 로스쿨에 들어가서도 민법, 형법 관련 판례를 공부하며 어려워도 포기치 않는 열의적인 탐구를 통해, 성장을 멈추지 않는 변호사가 되리라 다짐했습니다. 더불어 법률소비자연맹 역시도 국민의 기본권과 공익 보호에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관심이 많은 자들을 잘 파악하여, 지금처럼과 같이 그들의 자발성을 응원하고 지지해줌으로써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지속해서 미치는 봉사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다음 학기에도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직접 방청도 해보며 예비법조인으로서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가 리걸 마인드를 훌륭하게 다잡으리라 다짐했습니다.

○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서 ○ 현

저는 이번 가을학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법 관련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었던 단순한 마음이었지만, 점차 여러 활동들을 접하면서, 진지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경찰행정학과 학생으로서, 법과 관련된 봉사활동 중, 이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해보고 싶었던 봉사활동이었는데, 역시나 뜻깊었던 활동이었습니다. 이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존재하는 법, 정치 문제들과 관련 이슈들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서, 가장 어려웠던 활동을 꼽자면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입니다. 교육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얼핏 들어만 봤던 국정감사 현장을 자세히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현장에 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국회의원들과 그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 기자들이 국정감사 활동 하나만을 위

해 많은 준비를 한다는 것이 몸소 느껴졌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질문과 답을 듣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서로 관련 문제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볼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정치문제들과 관련 이슈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었고, 봉사자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또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내 활동이, 국정감사 활동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기억 남았던 활동으로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했던 법정모니터링 활동이었습니다. 누구나 법원에 가서 방청할 수 있다는 것을 들었긴 했지만, 생각보다 방청하는 것이 쉬웠으며, 방청을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퇴장하는 순간까지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아 놀랐습니다. 방청을 하면서, 가장 크게 들었던 인상은, 역시 현실은 드라마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었으며, 생각보다 사건들이 다소 짧고 간단하게 진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법정은 이렇할 것이라라는 편견이 깨지게 되는 기회였습니다. 또한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이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하였는지 점검하고, 법조계 현장을 직접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어서, 색다른 경험이라 좋았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법률은 생각보다 가깝게 존재하고 그리고 강력한 수단 중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률소비자연맹 가을학기 봉사활동은 저에게 뜻깊었던 활동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론적으로만 접했던 법 관련 지식을, 이 봉사활동에서 조금이나마 활용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일을 하게 되어 뜻깊었고, 저에게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 지원한 것이었지만, 점차 우리나라 법조계 현장과 관련 정치적 이슈들, 문제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고 다양한 방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 또한 제 봉사가, 더 나은 법치주의 환경과 법원 현장을 위한 발걸음이 되었다는 사실에 보람차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던 기회였던 만큼, 다음에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전공 서 ○ 원

저는 이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과 언론모니터링 이슈 분석 활동에 참여하여 봉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에서는 10월 12일에 행해진 문화재청이 주요 피감기관이었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그리고 10월 27일에 행해진 환경부와 기상청이 주요 피감기관이었던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분석하고 평가했습니다. 언론모니터링 활동에서는 제22대 총선을 앞둔 선거제 개편 논의에 대한 중앙일보와 한겨레의 총선 1년 전부터의 온라인 보도를 분석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정치계의 활동을 살펴볼 때 어떻게 공익을 판단할 수 있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공익성을 판단할 방법이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아서, 정치계의 활동을 표면적으로만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정감사 모니터링 보고서에 작성해야 할 사항들을 충족시키며, 의정활동의 공익성을 더 자세하고 뚜렷하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해 언론사들의 보도 경향을 분석하면서도, 언론사의 보도 경향을 살피는 방법을 이전보다 기준 있게 더욱더 정확하게 돼 보도의 공익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방법을 세우고 행하는 공익적 활동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봉사활동은 눈에 실제로 보이는 실체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법률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 대상을 직접 마주하지 않더라도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번 봉사를 통해 제 전공 지식이 조금이라도 장점이 되어 봉사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선거제도에 대해서 제가 기존에 배운 내용이 언론모니터링 이슈 분석 활동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존 전공 지식으로 총 80여 개의 선거제 관련 기사 내용을 이해하는 게 수월하였고, 분석 보고서의 분석체계를 잡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봉사와 관련 없어 보이는 저의 전공의 지식도 장점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활동이 어려워도 몰입하는 저의 모습을 보며, 제가 공익적 활동에 흥미를 보이며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모습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시에 정치와 법 분야에 그동안 몰랐던 정보가 대단히 많았음과 그를 알 수 있었던 경로가 많았음을 알게 되어 정치 분야 전공자로서 부족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국회 국정감사 영상회의록과 언론 분석 웹사이트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공익적 정보를 제 역량에 따라 얻을 수 있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일상에서도 공익적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그러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보람찬 활동이었습니다. 사실 참여한 봉사활동 모두 어떻게 해야 할지 구상하기도 어려웠고, 각 봉사활동을 하는 시간도 적지 않게 걸렸습니다. 특히, 중간고사 기간과 국정감사 모니터링 기간이 겹쳤을 때는 더욱 힘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 공익적 활동에 보람도 느끼고, 새로운 정치사회적 지식 또한 많이 알게 되어 흥미도 느낄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법률연맹 봉사활동을 계기로, 앞으로는 이번 활동처럼 저의 전공과 연관되거나 전공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또 어떤 것이 있을지 찾아볼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알아볼 것 같습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시간을 조금씩 투자하여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도 더 탐색해볼 것 같습니다.

제 봉사활동 참여의 시작은 학교의 학점 봉사활동 공지를 보고, 제 전공과 연관 분야라 가벼운 흥미를 느껴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기대로 참여했던 것보다 더욱 많은 보람과 지식을 얻은 공익 활동이었습니다. 활동 계기를 마련해준 학교와 법률연맹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국민대학교 법학부 공법학 전공 소 ○ 완

이번 법률소비자 연맹 봉사활동은 저의 삶 자체를 돌아보게 하는 기회를 마련해주었습니다. 크게는 번역 봉사 와 가을 국정감사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번역 봉사의 경우 미국 캔자스 주의 헌법을 번역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우리나라와의 차이점과 함께 미국의 해당 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도 알 수 있었던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헌법에 담긴 상당 부분의 본질적인 부분이 우리나라의 헌법과 맞닿아 있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의와, 인권, 평등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시간 역시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영어로 된 법률용어가 상당 부분 학습이 필요한 것을 느끼어, 관련 사전을 켜서 200개 이상의 영어 법률 용어의 의미와 그 용례를 학습하며, 스스로도 더욱 발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거치자 이후에는 다소 생소하였던 처음보다 훨씬 수월하게 번역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의원의 수 및 의원의 보수, 선거, 임기와 같은 부분은 스스로도 정확히는 알지 못하였던 부분인지라 번역하는 도중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떠한지를 직접 비교하며 더욱 안목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후 진행한 국정 감사의 경우에는,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트이게 해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디어를 통해 많이 들어보기는 하였지만,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며 그 안에서 논의된 내용을 곱씹으며, 여러 시각에서 한 현상을 관찰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각 부처별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생각보다 훨씬 넓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그동안 깊이있게 알지 못했던 뉴스에 대하여 언급이 될 때마다 검색해가며, 국정 감사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전보다 더 폭넓은 관심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정감사의 기능, 범위, 절차를 국정감사위원의 질의 및 이에 대한 피감사기관장의 답변을 통해 몸소 느낌으로써 예산의 국정감사의 중요성 역시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깊이 살피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를 관찰하며, 이에 대한 많은 지식과 안목을 쌓아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법조인을 희망하는 학생으로서도, 희망하는 진로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스스로의 미래에 자양분이 될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손 ○ 수

이번에 처음으로 법률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해보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기존에 했던 봉사활동들은 저의 신체적인 인력을 이용한 봉사활동들이나 멘토링 등 지식나눔 봉사활동에 국한되어있었습니다. 이번 법률연맹에서 했던 봉사활동은 제가 봉사를 했다가보다는 되려 많은 도움과 배움을 얻어가는 활동이었기에 정말 뜻깊었던 것 같고, 가을학기 봉사활동에서 매우 만족하여 이번 겨울학기에서도 이어서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법감시 법정모니터링을 갔을 때, 법학을 전공하고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혼자 재판 방청을 가볼 생각도 못했었다는게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법정에 들어가서 재

판을 방청하면서 그간 글로만 접했던 현장을 실제로 느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또한 제가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사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뿌듯함과 만족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매년 국회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만 있었지, 실제로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해 본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국정감사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국정감사에서 어떤 부분을 누구에게 어떻게 감사하는지에 대해서 직접 보고 모니터링 자료를 정리하면서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해서 국민의 관심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또 제가 작지만 그 역할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은 저에게 심화학습 같은 활동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법을 전공하며 많은 판례를 접하고 배우지만, 정작 하나의 사건을 두고 1심부터 3심까지 그렇게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며 사건 흐름을 완벽히 이해해본 경험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들이 얽힌 판결문을 천천히 읽고 정리해 나가면서, 사건과 판례를 바라보는 시각과 접근성이 높아지게 되어 실제 전공수업에서 판례를 배울 때도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법률연맹에서의 봉사활동 경험은 제가 민주 사회의 시민이자 미래의 법조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명감과 법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현장감을 충족시켜주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한 법률연맹에서 계속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 복단대학교 법학과 송 ○ 경

2023년 가을학기 봉사활동을 하면서 온라인 국정감사 와 중국어 번역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첫번째, 온라인 국정감사를 관람하면서 다양한 감정과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문체부와 관련된 활동은 미술, 문학,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 진행과 그 결과에 대한 토론이 눈에 띄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선, 화상 감상을 통해 느낀 것은 온라인 형식이라도 감사의 의미와 중요성이 크게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정부 대표들 역시 질문에 대한 열린 자세로 응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화면을 통한 소통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문체부와 관련된 활동에서는 문화와 예술, 교육 등에 대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교차되었습니다. 특히 예술과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었고, 예술가와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문체부는 예술과 문화를 통해 국가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국민 간의 소통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관 중 하나로 인식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문체부의 예산 배분과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일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예산 낭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는 미래를 위한 계획과 개선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온라인 국정감사 활동을 통해 문화와 예술에 대한 높은 관심과 그에 따른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체부의 정책이 국가의 소통과 아이덴티티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고 국가의 문화와 예술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국정감사를 통해 코로나 시대에도 의회 활동이 지속되며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희망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는 기술의 발전과 현대화된 시스템이 국가의 핵심 기능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형태의 감사가 지속되어 국가의 미래발전과 국민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번째, 번역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법학 대학에서의 전공을 통해 쌓은 중국어 능력과 법률에 대한 지식을 봉사활동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뿌리 깊은 문화와 역동적인 법적 환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동시에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기대했습니다.

봉사활동 중, 다양한 분야의 문서와 텍스트를 번역하면서 언어의 중요성과 미묘한 차이가 법률 분야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법률 문서의 번역에서는 정확성과 명확성이 중요하며, 언어의 선택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몸소 체감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이해력과 민감성이 필요한데, 이는 내 전공 지식이 어떻게 실제 활용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경험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법률 분야의 텍스트를 접하면서, 중국 법체계와 한국 법체계 간의 차이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양국 간 협력 시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예측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에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법률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는 과정에서 내가 아직 학습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번역 봉사활동은 언어 능력 뿐만 아니라 문화 간의 이해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해주었습니다. 법률은 언어와 문화의 제한을 극복하며 인류의 협력과 정의를 추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이러한 경험들은 내 전공 지식과 언어 능력을 보다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미래에 나아갈 길에 대한 확신을 더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법률과 언어의 결합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의 학문과 경력에서 이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 복단대학교 법학과 송 ○ 얼

국정감사에 참여하면서 정치의 실제적인 모습을 직접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텍스트나 뉴스에서 접하는 것과는 다르게, 현장에서 정쟁하는 의원들의 토론과 논쟁을 목격하면서 정치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각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에서도,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눈에

띄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정치적인 결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이슈와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으로서 제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책임감도 커져갑니다. 앞으로도 정치에 대한 이해를 깊이 기르고, 나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번역봉사 참여 소감문

번역봉사에 참여하면서 언어의 힘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면서 소통의 다양성이 얼마나 풍부한 경험인지 깨달았습니다. 번역은 그저 언어를 변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언어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번역봉사를 통해 그 내용을 다른 언어로 전달함으로써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느낌은 정말로 큰 보람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고 소통의 다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놀랍고 멋진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번역봉사를 통해 얻은 이 경험을 토대로, 미래에도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소통의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 각지의 이웃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신 ○ 현

의미 있는 대학생살을 보내고자 대외활동을 알아보던 중 법률연맹 봉사활동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법 분야에 재미를 느꼈고, 고등학교 때는 관련 활동도 참여했던 지라 막연히 그 분야를 진로로 생각했었는데,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다시 생각해보니 법 분야에 흥미가 있는 것과 적성에 맞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진로 설정에 있어 더 깊은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률연맹 봉사활동은 비대면이라 제주도민도 참여할 수 있고, 초보자도 할 수 있다고 하기에 참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청한 봉사활동은 총 3개로, 판결문 리서치 봉사, 번역 봉사, 법정 모니터링 봉사였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국정감사 모니터링에 대한 문구는 읽어도 자세한 안내는 없었어서 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3개의 활동으로 최소 봉사활동 시간 30시간을 채우기 위해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2~3회할 생각이었으나 도중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 일정을 계획하면서 1회만 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위해 판례를 고르면서 자료가 흥미가 있는 사건인지, 3심 모두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판결문을 최종 선택했고,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하면서 해당 사건을 어렸을적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나서 신기했습니다. 제가 맡은 판례는 1심과 2심은 모두 같은 논지로 전개되고 3심에서 결과가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1심과 2심을 분석하면서 해당 논리에 대해 수긍했었는데 3심에서 해당 논리가 생각도 못한 부분에서 반박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감탄했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번역 봉사과 경우에는 영어에 대단한 자신감이 있는 것은 아니나 여러 사전과 번역기의 도움을 받을 각오를 하고 신청했었습니다. 10쪽을 신청했는데 다단으로 굉장한 양의 주헌법을 맡게 되어 당황했었고, 다행히 법률조문이라 해서 어려운 문법이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법조문처럼 번역하기 위해 한국 법조문 형식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또 번역을 하면서 어려웠다고 느꼈던 부분은 제가 맡은 주의 헌법은 마침표(.)로 문장을 끊기 보다는 세미콜론(;)으로 문장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는 그런 식으로 문장을 이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문장을 끊고 번역하는 데 있어 제 판단과 의역이 많이 들어가야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번역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이 익숙해지고 나니 '이 나라의 이 주의 헌법은 이런 부분도 규정을 하고 있구나.' 등의 생각이 들면서 재미를 느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온라인 회의록을 들으러 가니 모두 7~10시간이어서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국정감사가 회의 하나하나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줄 몰랐기에 새삼 국회의원 분들과 그 관련자분들의 노고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국정감사모니터링을 하면서 해당 부처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국회의원 분들은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고, 정당 갈등을 지켜보는 것은 피곤했지만 뉴스로만 보던 얼굴이 본업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는 새로운 일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정모니터링 활동을 신청했으나 재판 방청을 위해 제주지방법원을 3차례 방문했었는데, 그때가 추석연휴가 다가오거나 끝났던 무렵이라서 오전 재판이 없는 상황이라 방청하지는 못했습니다. 학교 시간표상 수요일 오전밖에 시간이 되지 못 했고 과제와 시험이 겹치면서 결국 법정 모니터링 활동은 하지 못한 채로 마무리 되어서 아쉽습니다.

활동 하나하나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고, 재미는 있었지만 학기 중 학교생활과 병행하기에는 확실히 버거운 면이 있었기에 방학에 신청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활동이 의미가 있었고 해당 봉사활동에 대해 더 일찍 알았으면 더 꾸준히 본격적으로 활동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쉽기도 했습니다. 학기 중에 병행하느라 버거웠어도 처음 의도했던 대로 의미 있는 대학생 활을 한 것 같아 뿌듯했고 해당 분야에 대해 더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신 ○ 성

평소에 법과 정책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저는, 우연히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접하게 되었고, 경험을 쌓아보겠다는 다짐으로 활동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총 두 가지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는데, 첫 번째는 일본 법률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봉사활동이었고, 두 번째는 국정감사를 평가하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TMT 분야의 변호사를 꿈꾸고 있는 저에게 본 봉사활동들은 경험을 쌓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활동들이었습니다.

국정감사는 가장 중심이 되었던 활동입니다. 이전에도 국정감사에 대한 이야기는 뉴스에서 들어봤고, 학교

에서 배웠기에 기억 속에 어렴풋이 존재하고는 있었지만, 그 구체적인 진행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점들이 존재했습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정부의 업무를 평가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일반 국민은 국정감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일반 국민이 국정감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국정감사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정부의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국정감사를 통해 이런 점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최선을 다해 평가지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며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고 의견을 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실현되고 토의되고 있는지에 대해 직접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국회의원의 존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투표를 통해 선발되어 의견을 진실되게 반영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게리맨더링이나 제시카 법과 같은 국민에게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국정감사 내지는 국회의원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금 인식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개인적으로 법률 번역 봉사를 진행하며, 일본의 법률 체계와 한국의 법률 체계를 비교해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번역을 진행했는데, 그 짧은 조항들 안에서도 일본의 사회 모습이나 정신들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법률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번역을 하면서 문맥의 연결뿐만 아니라, 각국의 법률 체계와 비교하여 최대한 한국어에 적합하게끔 번역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에도 한국의 "조, 항, 호, 목"과 같은 체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비슷한 조항도 꽤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법률 용어는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번역을 하면서 법률 용어를 찾아보고, 그 의미를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법률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본 활동을 통해 법조인이라는 꿈을 확정 지을 수 있었고, 사회문제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법률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이번 학기에 진행하지 못했던 활동들도 함께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 덕성여자대학교 법학과 안 ○ 원

이번 2023년도 가을학기 봉사활동에서 시행한 국정감사모니터링과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통하여 판례에 더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하면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개별 국회의원들의 발언과 질의를 하나씩 분석해보면서 국정감사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특히 공정하면서도 객관적인 근거를 통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중하게 살펴보았는데,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마냥 추상적인 표현으로 질의를 하나 구체적인 시행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고 구두로만 시정요청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의 태도가 다소 무

게감이 없다고 느껴졌다. 반면에 국회위원들 중 일부는 구체적인 피감기관의 정책시행여부와 그 사례에 대한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하였고, 이를 통하여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등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하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점에서 감탄하기도 하였다. 전반적으로 국정감사활동을 하면서 국정감사의 이상적인 모습을 국민으로서 구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 같다.

또한 판결문리서치 활동은 다양한 판례를 직접 접하고 판결문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쟁점을 다루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판례를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세상에서 쟁점과 다툼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부분과 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그 추상적이지만 나름의 일리가 있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형사소송법상의 '반의사불벌죄'의 인정실익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유를 적어놓은 판시사항은 읽어보면서 기존에 생각했던 '반의사불벌죄'가 가진 의의보다 더 큰 형사소송법상의 기존의 형법상 기초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고, 이를 이해하니 법원의 판단이 합리적이라는 생각도 절로 들게 되었던 것 같다. 따라서 단순한 법원의 판단(승패여부)에 대한 부분만으로 법원의 판단사항을 비난하거나 논란을 삼기 이전에 구체적인 법원의 판단이유(판시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찾아서 읽어보며 이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성숙한 국민의 법감정이 자리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인 바람이 생겼다. 이로 인하여 더욱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기관의 역할이 두려움의 대상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안 ○ 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과 법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이전의 세대가 땀과 피를 흘리며 어렵게 일구어낸 민주사회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일까?" 대학 입학 후 언제나 가져왔던 물음이다. 답을 찾고자 저소득층과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봉사, 환경봉사, 외국인의 한국 적응을 돕는 봉사, 헌혈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속에 공허한 느낌은 지울 수 없었고, 우리의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고 무임승차하는 느낌이 계속해서 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의 활동을 접하게 되었고, 의미를 찾고자 했다.

활동을 하면서 쉽지만은 않았다.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이 많았고, 그 때마다 의미를 하나하나 찾아가며 곱씹어야 했다. 하지만, 처음으로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금까지의 활동이 단순히 공부를 하고, 소수의 특정인들을 돕는 봉사였던 반면, 법률소비자연맹을 통해 하게 된 이번 봉사활동은 민주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사회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이었다.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나는 이번 가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서 국정감사모니터링에 집중하였고, 정치인들의 발언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들을 수 있었다. 의회정치론 전공 수업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다. 특히, 국회의원들에 대해 가진 막연한 부정적인 인식과는 달리 많은 국회의원들이 사회현안에 대해 심도 깊게 고민하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당에 따라 같은 입장만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하나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각도의 의견이 나오기보다는 주로 두 정당의 정파가 대립하는 형태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은 토론이 부재한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하면서 느낀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현재 다양한 담론을 다루지는 못하고 있다.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당의 의견만을 대변하는 몇몇의 국회의원들은 일반적인 사회구성원들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다. 즉, 단순히 국회의원들만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국회는 우리 사회를 축소시켜 놓은 하나의 마을과 다르지 않기에 국회에서 토론이 부재하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 사회에서 토론이 부재하다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산업화', '민주화'를 이을 다음 거대 담론이 '다원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2개뿐만이 아닌 훨씬 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내가 이번 가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다. 따라서 나는 이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담론이 제기될 수 있도록 시대의 흐름에 맞는 다양한 문제들을 생각해 볼 것이고, 이것이 공론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전 세대가 그랬듯이 피를 흘려야 할 정도의 위험은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을 수 있다. 어렵더라도 가야하는 길이다. 대한민국에 산적해 있는 문제는 단순히 2가지 의견만으로 풀리지 않는 복잡한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양 ○ 혁

나는 전역을 앞둔 군인이었다. 계획했던 만큼 군대에서 이루지 못해 이대로 전역하기엔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들어 다양한 활동을 찾아보던 중 대학 선배의 소개로 법률소비자연맹을 처음 알게 되었다. 법조인을 꿈꾸지만 아직 전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나에게 현장의 열기를 느낄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은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그렇게 군인의 신분으로 2023년 가을학기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단순히 법 관련 활동을 해보기 위해 시작한 봉사활동이었으나 나에게 새로운 경험을 안겨주었다. 학기별 필수봉사활동이 있었고, 이번 학기는 '국정감사모니터링'이 필수봉사활동으로 지정되었다. 정치에 큰 관심도 없고 살면서 한 번도 국정감사를 본적이 없는 나는 설렘 반 걱정 반으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군인이었던 만큼 국방부의 법 관련 문제를 감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헌법재판소 감사와 평소 관심이 있었던 복지 부분에 보건복지위원회를 선정했다. 국정감사는 정해진 진행 형식에 맞게 각 위원별 질의시간을 부여

받고 기관장이나 기관 관계자에게 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처음 3-4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던 감사는 10시간 이상 지속되었고 처음 접하는 내용도 많아 흐름을 따라가기 힘들 때도 있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민의 권리에 대한 실효성 높은 질의가 많이 오갔지만, 국방부 감사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큰 논란이 되었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외압과 항명에 관한 질의들이 주를 이뤘고 감사가 다소 정치적이라는 느낌도 받았다. 소속 정당별로 의견은 일치했고 여야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 같은 위원회에서 진행된 감사임에도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처음에는 정치적 질의가 많이 오갔고 언성이 높아지며 감사가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감사 중반에 들어서 건강보험 재정 보장성, 요양기관 부정수급, 인공눈물 가격인상, 필수의료진 부족 등 많은 질의가 오갔다. 대중적 이슈 외에 의료사각지대에 놓은 소수의 입장까지 대변하는 위원들의 모습을 보며 뒀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잘되어 있다고 하지만 재정문제가 심각하고 아직 희귀 질환과 관련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국정감사는 우리나라의 1년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들을 한 번에 정리해 놓은 느낌이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하면서 처음 듣는 이슈들도 많았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앞으로 사회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고 다짐했다.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을 통해 법정에 처음 발을 디게 되었다. 처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입구를 보고 긴장했으나 법정은 생각했던 것만큼 엄하지 않았다.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총 2번의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을 했으나, 한 번도 본 재판을 방청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처음 저작권법(미국수능SAT) 위반 사건은 본 재판이 아닌 재판준비절차였고, 두 번째 방문한 IDK홀딩스 변호사 사기방조 사건은 증인신문절차였으나 증인불출석으로 재판이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은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는 재판장에서 변호사와 검사(형사재판의 경우)가 일어서서 언성을 높이며 발언하는 장면이 많았으나 실제로는 앉아서 마이크를 사용했다. 또한, 재판이 하루에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재판준비절차가 따로 존재했고, 본 재판도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연기되기도 하고, 추가 재판이 필요한 경우 다음 기일을 잡기도 했다. 내가 방청한 IDK홀딩스 변호사 사기방조 사건의 재판은 증인신문기일이었으나, 증인이 불출석하여 재판이 내년으로 연기되었다. 22년에 접수된 사건이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것이다. 피해자들은 하루 빨리 재판이 진행되길 바라는데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몇 개월이나 재판이 연기되는 것을 보고 조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제도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가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법률 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학기는 국정감사를 진행해 법보다 정치와 사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해주었지만,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을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법학 지식도 다시금 떠올리게 해주었

다. 여건이 되지 못해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전역한 지금 봉사활동을 이어나가며 다음 학기에는 법정모니터링, 판결문리서치, 번역 활동을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을 활용하고 내 꿈을 보다 구체화해 나가려고 한다.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오 ○ 석

봉사활동의 필요성을 느껴 적절한 봉사활동 단체를 찾던 중, 지인의 추천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률소비자연맹을 알게 되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는 구체적인 사회봉사활동의 내용을 보고, 리걸 마인드의 형성과 법률적 지식의 함양과 동시에 사회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특히 가을학기 필수 봉사활동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에 깊은 흥미를 느껴 법률소비자연맹의 2023년 가을학기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다.

여러 번의 총선과 대선에 투표하고, 신문과 뉴스를 통해 정치 상황을 접해 왔으나, 실제로 국정감사를 시청한 적은 없었다. 국가 주권을 가진 한 명의 국민으로서, 나의 대표자로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수행하는 중요한 과업인 국정감사(비록 입법활동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질지라도)에 부끄럽게도 소홀했던 것이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가을학기 필수 봉사활동으로 채택한 것은 나를 포함한 봉사자들에게 국정감사의 필요성과 국민의 알권리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현명한 선택으로 생각한다. 이번 가을 학기 총 6회의 모니터링을 수행했고, 법사위, 과방위, 교육위, 행안위에서 수행한 국정감사를 모두 시청했다. 종래 뉴스를 통해 국정감사를 접할 때에는 인지도 높은 국회의원들의 질의,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들, 정치적 이슈가 된 인물과 사안들, 자극적인 주제들만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정감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부 시청하면서,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태도, 자세, 준비 정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고, 당해 상임위원회와 소관 정부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특정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알 수 있었던 최초의 경험이었다. 또한 가장 특징적이면서도 고무적이었던 것은 정치적 아젠다, 화제성을 위한 질의에만 매몰되지 않고, 나름 지역이나 전체 국민의 실제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제들, 문제들의 해결 요구, 대응책, 향후 과제 등을 질의하고 이에 대한 확약을 받는 과정들이 적게나마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수행하지 않았더라면 영영 알 수 없었을 소중한 경험이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외에도 6건의 판결문 리서치를 수행했다.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을 수행하기 전에는 판결문을 접해본 경험이 없었다. 법원의 준엄한 판결문은 막연하게 복잡하고, 어렵고, 길고, 현학적인 표현들로 가득 차 있는 '어려운' 글이라는 느낌만이 있었을 뿐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살면서 한 번쯤은 반드시 판결문을 접해야 할 경우가 올 것인데, 평소 판결문을 전혀 접해보지 않았다면 판결문 속에 담긴 재판부가 판단을 내린 논리와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을 수행하면서 판결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판결문'이라는 일종의 글의 '장르'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판결문 리서치를 수행할 판결문은 시의성이 높고, 실

생활에서 자주 접해 익숙한 주제를 가진 것 위주로 선택했다. 최근 잦은 교권 침해로 일선 교사들의 안타까운 선택이 지속적으로 보도되며,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가 한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학부모의 행정소송인 2023두37858 사건을 선택했다. 국정감사에서 메인 이슈였던 KBS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해서는 군 영내 TV 수상기에 대해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2023두39724 사건을 선택했다.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승객의 불편에 대해 항공사가 승객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를 다룬 2021다259510 사건과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워킹맘을 위해 회사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여부를 다룬 2019두59349 사건도 다루었다. 이외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협박과 스토킹과 관련 있는 2023도5814 사건과 위안부 할머니들을 주제로 한 특정 도서에 의해 할머니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2017도18697 사건에 대해 리서치를 수행하였다.

판결문 리서치의 의의는 판결문에 익숙해지고 사법감시 활동을 수행하는 것 외에도, 당해 사건에 참여한 법조 3류,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학력과 경력을 조사하고 과거 수행한 소송 기록을 검토해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에 대한 포괄적 이해, 형사사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있다. 위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마찬가지로, 판결문 리서치를 수행하며 국민의 일원으로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특히 법조 분야에 있어 능동적인 국민으로 행위해야 하는 책임성을 느낄 수 있었다.

○ 인하대학교 중국학과 오 ○ 화

수많은 봉사활동 단체 중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을 선택한 것은 다양한 법률 활동을 체험해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로스쿨을 준비하셨던 주변 선배들의 추천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총 3번의 학기동안 법률소비자연맹과 봉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법률소비자연맹에서는 다양한 법률 봉사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새로운 봉사활동인 사법감시배심원단과 판결문리서치를 진행해보며 많은 도움을 얻었고, 나의 꿈을 더 구체화하고 정확히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번역봉사는 항상 참여해왔던 봉사활동이었다. 물론 중국학을 전공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중국어에 익숙하지만, 중국어 특성상 한자가 매우 많고, 법전과 같은 전문서적은 오랜 시간 이어져온 것이기 때문에 옛날 단어들도 많다는 점과 법률 용어와 문맥의 미묘한 차이들을 해결해내는 것이 가장 극복해내기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다. 예를들어, 단순히 한 단어가 희망이라고 해석된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이 아닐 수 있으며, 희망이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단어가 매우 많고 어떤 한자를 선택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작은 소망인지, 내가 꿈꾸는 개인적인 희망인지, 아니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하고 싶은 희망인지, 매우 원하는 갈망인지와 같이 그 뉘앙스가 매우 달라질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석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찾아보기도 하고, 중국어 선생님께 여쭙보기도 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내용을 번역해내기 위해서 노력했다. 법률은 정확하고 명료해야하기에 자칫 잘못해석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매학기마다 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번역봉사는 다른 활동보다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학기 지원해서 봉사를 진행하면서 언어적인 능력 뿐만 아니라 법적 이해도를 키울 수 있었고, 이러한 정어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과 깨달음은 향후 더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키워줄것이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사법감시배심원단에 열심히 참여했었는데,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보다 배심원단으로써 참관하게 되는 사건들이 매우 흥미로웠기 때문이다. 큰 돈이 얽혀있는 사건뿐만 아니라 내사상태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루어진 사건 등 흔히 접할 수 없는 사건의 재판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다. 해당과정에서 운이 좋게도 직접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볼 수 있었는데, 변호사는 의뢰인을 지키기 위해 검사측 증인에게 꽤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판사도 증인이 했던 대답을 토대로 논리구조가 맞지 않은 부분을 약간 다른 문장으로 질문하여 이전의 질문과 같게 대답하는지, 다르게 대답한다면 이전엔 이렇게 대답했는데, 이번에는 왜 다르게 대답하는지 등과 같은 모습을 잡아내는 것 또한 볼 수 있었다.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과 대답들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판사의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존경심 또한 갖게 되었다. 그리고 사법감시배심원단으로 참여할때마다 느꼈던 점은 검사의 서류 양이 정말 많다는 점이었다. 저 많은 서류 속 내용을 기억하고 정리해서 재판에 참여하는 검사의 노력과 업무의 양에 다시 한 번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다. 재판과정을 직접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었다. 그래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를 진행하게 될 모든 분들께 법정모니터링이나 사법감시배심원단은 정말 추천하고 싶은 봉사활동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판결문리서치는 참여했던 봉사활동 중 가장 어려웠던 활동 중 하나였지만, 정말 법률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어주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선배님께서 판결문리서치가 실제로 로스쿨에 들어와서 판결문 리서치를 하는 과정과 매우 유사하니까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추천해주셔서 하게 되었는데, 처음엔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리서치를 할 사건을 고르는 순간부터 해당 판결에 대한 나의 생각까지 정리하는데 정말 수월하게 넘어갔던 부분은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과정을 해나가면서 내가 정말 법을 좋아하며, 진심으로 법조인이 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이번에는 정말 서투른 점이 많았던 판결문리서치였지만, 다음번 봉사활동에 또 참여하게 된다면 더 많은 판결문을 리서치하면서 조금 더 정확하고 간결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어려운 용어들을 해석해내어 잘해내고 싶다.

이번 법률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법조인의 꿈을 갖게 해준 정말 의미있는 시간이

었다. 마지막으로 소감문을 정리하면서 사법감시배심원단을 담당해주셨던 분께서 평소에 재판장을 가보면 사람이 많지 않고, 논란이 되었던 사건들조차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재판을 방청해주고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재판당사자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주셨던 게 기억이 난다. 이를 기회삼아 앞으로도 재판방청과 사법감시배심원단에 열심히 참여해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싶다. 이렇게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마련해주시고 항상 함께해주시며 많은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법률소비자연맹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탈리아어과 오 ○ 현

저는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 중 국정감사 모니터링, 번역봉사, 언론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총 4가지의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국가의 가장 기초가 되는 헌법을 번역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여겨 이탈리아 헌법을 번역했습니다. 이탈리아 헌법을 번역하면서 번역의 매끄러움을 위해 대한민국 헌법과 비교하며 번역을 진행했는데 우리나라 헌법을 한 글자씩 곱씹는 것도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던 뿐만 아니라 두 국가 사이의 차이점이 헌법에서 드러나서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의 역사적 배경을 헌법 곳곳에서 찾을 수 있었고 한 국가의 헌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습니다. 가을학기 봉사활동의 필수활동이었던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에서는 국회의 다양한 역할 중 하나를 직접 확인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 노출되는 국회의 모습이 부정적 이다보니 정치나 국정 이슈를 외면하였는데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배웠으며 국민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태도와 함께 국회 활동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번째로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과학기술 연구개발 R&D 예산 등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논쟁을 통해 주요 국정이슈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똑같이 주어진 시간에도 충분한 깊이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피감기관과 관계없는 질의로 당쟁에만 몰두한 의원들도 있어 많은 국민들이 국정감사에 관심을 가져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이들을 가려낼 수 있기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금융에 관련된 진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거시적 관점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및 금융시스템 관리, 감독 업무를 바라볼 수 있어 진로와 관련한 지식을 쌓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역할을 실감하게 되어 큰 책임감을 갖고 진로를 준비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언론 모니터링 봉사활동으로는 10대 경제지의 일간 사실을 분석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생각보다 경제지에서 다양한 이슈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물론 경제지는 경제 성장을 위해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옹호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수밖에 없겠지만, 다루는 이슈가 한정적이고 의견 또한 획일적이라서 분석을 하면서도 반복 작업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경제를 다루는 언론사는 사실만을 전달하고 정치 색깔에 좌우되는 기타 언론사보다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생각을 바꾸고 다양한 시각에서 이슈 또는 사건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 리서치는 가장 애를 먹은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검색을 통해 대법원 판례, 2심 판례만을 제공하고 1심 판례는 제공하지 않는 사건이 너무나 많아 판례를 결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건을 결정하고 난 뒤에는 사건 관련 법조인들의 경력 및 과거 담당 사건 등을 찾는 데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판례의 사실관계와 요지 등을 찾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판례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법령이나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법리를 해석해놓았기 때문에 쟁점을 파악하고, 요약하고, 근거를 찾아 이해하는 것이 판례를 검색하고 법조인을 찾는 일보다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그동안 알고 싶었던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어떤 식으로 법리를 해석하는지 그 판단의 과정, 논리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 평소 어떤 사건을 접했을 때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오 ○ 경

이번 가을학기 봉사활동은 법률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한 지 세 번째인 학기였습니다. 벌써 세 번째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번 학기에는 특별히 이전에 해 보지 않은 활동을 두 가지 더 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기간을 맞이하여,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국정감사는 뉴스에서 잠깐씩 보았을 뿐, 처음부터 끝까지 모니터링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국정감사기관은 기상청과 서울고등법원이었습니다. 기상청의 경우 우리 일상에서 기상청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관심이 소홀했던 부분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올해 R&D 예산 삭감 이슈와 관련해서는, 기상청에 연구개발비를 더 편성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상청 상황이 열악한 부분이 있음을 처음 알게 되었고 사회 여러 분야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어야 변화와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평소에 관심이 있던 분야라 잘 알고 있는 이슈를 많이 다루어 비교적 수월하게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법원은 정치권과 독립되어 재판하여야 하는 기관인데 여야 의원 모두 지나치게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소모적인 주장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칼부림 사건 등 강력범죄 문제에 대하여 법원이 범죄자 처벌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전국민적 비판이 있었던 만큼 초당파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이슈에 대해 더 집중했다면 좋았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이번 가을학기 활동에서는 사법감시위원

으로서 변호사의 사기방조사건을 방청하면서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법정 모니터링도 한차례 진행하였는데 목비권에 대한 고지와 증인신문 절차와 반대신문을 지켜보며 학교에서 배운 형사소송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법률연맹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무엇보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하고 계신 담당자님들의 수고를 느끼고 있습니다. 법정모니터링 현장에서 법률연맹 관계자님들을 보면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시민과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다는 존경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미래에 법조인이 된다면 그 때 느낀 감정을 잊지 않고 가진 지식과 힘을 올바른 곳에 써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이자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 앞으로도 여력이 되는 한 사법정의의 실현에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고자 여력이 되는 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지속할 생각입니다.

○ 고려대학교 정부행정학부 오 ○ 서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법 정책학회 KUALP에서 부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의 진로인 법률 연구원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률소비자연맹 봉사에 참여할 수 있어 봉사를 진행하기도 전에 설레는 마음과 큰 동기부여가 부여되었던 것 같습니다. 법률연맹 봉사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들은 법과 제도를 바로 잡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며 입법부, 사법부 등 국가 5부를 움직이는 실효적 영향력이 있는 봉사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더욱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높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이번 가을학기에서 참여한 봉사활동은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하여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 번역 및 조사 활동입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법제사법과 행정안전부를 맡아서 진행하였으며 번역 및 조사 활동은 뉴질랜드 변호사-중개사법 번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참여한 법제사법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변호사-중개사법 번역 활동을 통해 뉴질랜드 변호사, 중개사법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변호사, 중개사법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게 되었고 추가적인 학습으로 인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좁았던 제 시야를 국제적인 시야로 넓힐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었고, 번역 활동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은 앞으로 제가 사회에 기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책임감과 열정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오 ○ 율

2022년 여름 이후, 오랜만에 참여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이번 학기 필수활동이었던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은 이전에 해보지 못한 것이라 더욱 뜻깊었습니다. 노동환경과 복지에 대해 관심이 이전부터 많았기 때문에,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했던 국정감사의 모니터링을 담당하고자 했습니다. 모니터링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제게 나름의 사명감을 주었습니다. 보다 객관적으로 감사 태도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감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나 뉴스, 해당 분야에서 오랜 시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등에 대한 공부가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단시간에 하기에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내가 사는 세상에 대해 깊고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 문석영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고용노동부의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하신 말씀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동료지원가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일자리로 중증장애인인 동료지원가가 다른 중증장애인을 만나 취업을 연계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번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계기로 중증장애인의 취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동료지원가 문석영씨가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사업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태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 처음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열정적으로 국정감사에 임하는 듯 보이지만, 관련 분야에 대한 사전 조사가 미비한 상태에서 질의하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깊은 사전조사를 통해 자세하고 방향성이 명확한 효율적인 질의를 하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피감기관의 수동적인 태도나 불명확한 답변에 답답함을 느끼게 되기도 했지만, 이번 학기 봉사활동 이후에도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을 이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수 봉사활동 이외에 번역봉사를 했던 학기였습니다. 제가 맡은 법률은 일본의 변호사법이었지만, 한국이 변호사법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변호사법과 일본의 변호사법이 매우 닮아있었고, 법률 서비스가 다각화된 현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 그와 관련된 쟁점들이 변호사법에서 다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일어일문과에 재학하면서 번역에 관련된 수업을 많이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법률 문서를 번역해보거나 이에 관련하여

깊이 고민하는 수업을 수강하기가 어려웠는데,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활동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한 학기를 돌아보며 다시 한 번 뜻 깊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경북대학교 영어교육과 우 ○ 옥

2023년 가을학기 법률연맹에서의 봉사 활동에서 미국 유타주 헌법과 영국 법정변호사 행위규범의 번역 작업 및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하였고,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미국 유타주 헌법과 영국 법정변호사 행위규범의 번역은 오롯이 문서의 언어를 옮기는 것을 넘어, 그 근본적인 의미와 법률적인 원칙을 정확히 전달해야 하는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와 특수한 용어, 맥락 등을 고려하여 번역을 진행하면서, 원문의 명확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 문서의 핵심을 깊이 파악하고,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모니터링 봉사에서는 정부의 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 지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데의 도전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결정과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교육 분야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문으로, 이를 모니터링하며 정부의 정책과 실행 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교육위에서는 교육체계의 효율성과 교육 기회의 평등성을 검토하였으며, 산자중기위에서는 산업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기업의 경쟁력을 주시하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 하나하나를 정리하고 실제 정책과 관련성을 조사해보며, 분석하는 과정에서 흔히 언론에 비친 국회의원의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들의 전문적인 업무 수행에 깊은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를 위해 힘쓰며,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 수립과 실행에 대한 성실한 검토를 펼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전문성은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서로 정당이 다르고 수권유무가 다르다 보니 대통령과 작은 연관성만 있으면 정책 질의의 방향은 대통령의 정책 비판으로 시작되어 피감사인들은 그것을 방어하는 데에만 급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산자중기위 감사에서 대통령의 R&D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정책을 부정적으로 발언하게 유도한 점이 눈에 띄었고, 교육위 감사에서는 정순신씨에 대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질의하는 점이 감사의 목적과는 다르게 와 닿았습니다.

국가의 핵심 부문에 대한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평가를 제공함으로써, 법률가를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가을학기 봉사경험을 통해 봉사는 단순히 지식을 나누는 것을 넘

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법률연맹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소중한 경험을 쌓게 해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봉사와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힘쓰겠습니다.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유 ○ 진

봄학기에 이어 가을학기에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서 감회가 새로웠다. 이번 가을학기 필수봉사인 국정감사모니터링을 하면서 내가 생각보다 사회에 관심이 정말 없었구나 깨닫게 되었다. 날카로운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피감기관의 답변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반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정감사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본 적이 처음이어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이 실현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더 많았다면 다른 국정감사도 모니터링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어서 아쉬웠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국정감사가 제일 인상 깊었는데, 장관님과 청장님이 정말 진지하게 답변에 임하고 진심을 다해서 질의에 대하여 고민한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님은 국회의원의 질의에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거나 웃으며 국정감사에 비교적 무겁지 않은 태도를 보여서 매우 실망스러웠다. 국정감사모니터링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의 노고에 대해 알 수 있는 경험이 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시각이 좋지 않은데, 그 이유는 국회의원이라는 높은 자리에 비해 역할에 맞게 충실하게 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국회의원이 높은 지위와 명예를 지니면서도 편한 직업이라는 편견이 있었다. 그러나 여러 국정감사를 보면서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준비한 자료와 수준 높은 질의를 통해 국회의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제대로 느끼게 되었다. 이번 가을학기엔 3개의 판결문을 리서치하였다. 봄학기에 판결문리서치를 하나만 한 게 너무 아쉬웠기 때문이다. 나의 전공이 법학부다 보니, 확실히 판결문을 읽는 데에 어려움은 없었다. 기본적인 법률용어와 개념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흐름을 파악하기엔 쉬웠으나, 여전히 쟁점을 찾는 것은 좀 어려웠다. 쟁점이라는 개념이 나에겐 모호하게 다가온 것인지, 판결문이 쟁점을 명확하게 구분짓기 어렵게 구성되었어서 어려웠는지 그 원인은 아직 모르겠다. 그래서 판결문리서치를 한 후에 설문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판결문이 용어가 어렵거나 문장이 길어서 읽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쟁점이나 주장, 사실관계를 깔끔하게 구분짓지 않아서 머릿속에서 정리가 쉽지 않았던 것 같다. 앞으로의 판결은 한눈에 보기 쉬운 구성으로 정리되면 좋을 것 같다고 느꼈다. 또한 용어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용어와 법률용어에 차이가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이러한 차이점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정말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예를 들면 '고의'이 우리는 실생활에서 그저 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태도의 의미로 쓰이지만, 법률용어로서의 '과실'은 고의란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며

행위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조건의 하나이다. 물론 비슷한 의미로 쓰이지만, 한곳 차이로 뉘앙스가 살짝 다르다. 이렇게 법률용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고 판결문을 읽으면 이해도가 훨씬 올라간다. 그래서 판결문리서치 활동 중 용어정리하는 것이 이 판결문리서치 활동의 취지에 정말 잘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가을 학기 봉사 역시 가치있는 활동들로 꼭 채워서 정말 보람있었고, 겨울학기 봉사에도 참여하여 활동을 이어가려한다.

○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유 ○ 석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처음으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사법감시배심원단 법정모니터링을 하면서 처음으로 법원에도 가보며 추후 법조인이 되었을 때 어느 직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나한테 적합한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판결문리서치를 통해 평소 부족했던 민법, 특히 채권법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임은 물론 관심 있는 분야인 공정거래법 분야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내부거래'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뉴스가 통해서가 아닌 직접 영상과 회의록을 통해 전체 회의를 보면서 현재 해당 분야에서 이슈가 되는 점은 무엇인지, 국정감사가 전반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법률 관련 봉사를 할 수 있는 한편, 법학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겨울학기는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며 우리나라가 사법정의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윤 ○ 혜

국정 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농림수산물해양수산 상임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외 피감기관,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식약처 피감기관으로 총 두 곳의 상임위원회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했습니다. 감사위원별 질의 시간을 확인하고 각 감사위원별 국정감사 질의내용을 정리했으며, 국감위원 별 질의내용을 예산 낭비, 피감기관의 부정비리 지적 등의 항목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피감기관장과 상임위원회의 태도 및 질의도 함께 평가했습니다.

실제 관심 있던 분야의 국정감사였기에 모니터를 하며 흥미로웠습니다. 직접 국정감사 활동을 체험하고 문제점을 분석하며 더욱 성숙하고 효과적으로 국정감사가 운영될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성실성, 봉사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권분립 체제에 맞게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 잘 이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두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생각보다 얽힌 사회문제가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까지 포함한다면 크고 작은 사회문제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며 이런 복잡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번역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봉사란 '금전적 기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활동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재능을 기부 및 투자한다는 형태에서 더욱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 변호사법을 번역하였고, 직접 한 자 한 자 찾아보며 법률적인 면에서 생각해보고 번역해나가는 과정에

서 단순히 타인을 돕는 것에 더불어 나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자원봉사에 대한 자연스러운 동기부여가 되어 더욱 보람차고 가치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봉사활동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온라인으로 활동을 진행하는 번역 봉사는 시공간의 제약에 벗어나 더욱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인 봉사활동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로써 한 학기동안의 봉사활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해 사회생활을 하며 저도 모르게 봉사 정신을 점차 잃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게 다시금 봉사 정신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윤 ○ 린

2023년도는 제가 법에 관심을 갖게 된 첫 번째 해입니다. 학교에서 여름계절학기로 '현대생활과 법'이라는 교양과목을 듣게 되었고, 중학교 사회과목 이후로 법을 접할 일이 없었던 저는 처음으로 법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학과 학생으로서 더 이상 학교 안에서 법을 접할 기회가 없었고, 관련된 활동을 찾던 도중 법률소비자연맹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가을학기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공지가 올라왔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신청하였습니다. 오티 대신 나눠주신 교재를 읽어보고 당시 신청 가능했던 모든 봉사활동을 신청하였습니다. 안내문을 꼼꼼히 읽어보고필수활동이었던 국정감사모니터링 외에 번역봉사에 눈길이 갔습니다.

이번학기에 저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헌법 중 제 2조 입법부와 제4조 행정부 부분을 번역하였습니다. 번역을 시작하기 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대해 간단하게 조사하였는데, 위치와 면적, 인구와 같은 내용뿐만 아니라 나라의 건국 배경과 관련된 역사, 정치적 특징에 대해 조사하며 봉사활동에 깊이를 더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영어실력이 좋지 않고 법학전공자도 아니기에 번역을 시작할 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단어 한 단어 사전을 찾아보고, 사전에 없는 단어는 따로 검색하여 맥락에 맞게 한글로 옮기다보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매끄러운 번역과 적절한 단어 사용을 위해 미국의 입법부와 행정부,기타 부서에 대한 내용을 찾아봄으로써 미국의 입법부와 행정부의 구조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학기 봉사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헌법 번역을 이어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필수 활동이었던 국정감사모니터링 또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국회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멀게 느껴졌고, 부끄럽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 일을 바로 처리하고 있는지 알아보려는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었습니다. 국정

감사모니터링을 진행하며 1년간 있었던 주요 이슈들과 각 기관에서의 대처, 개선방향 및 계획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청년이자 대학생으로서 더더욱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주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사안이 우선해서 다루어졌고, 국정감사에 참여한 의원들과 기관장의 태도에서 국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8일 진행된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에서, 처음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방청해볼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전에는 법원은 법원관계자와 재판당사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였으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재판은 방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방청 시간이 짧고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재판이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대략적인 과정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사기방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 방청 당일 피해자 또한 방청에 참석하여 재판을 지켜보았고, 원래 피해자에게 발언권이 남아있지 않았으나 마지막에 판사가 피해자의 발언을 듣고 의문점에 대해 설명해준 것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을 1회만 진행하였으나, 다음학기에도 기회가 된다면 해당 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또한, 법원은 엄숙한 분위기로 혼자서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다음학기에는 재판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법정모니터링 활동도 수행할 계획입니다.

○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윤 ○ 영

2023년도 가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법적 소양을 기르고 사회를 폭넓게 바라보는 시각을 겸비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 감사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영국법정변호사 행위규범을 번역한 경험은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법조인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자질에 대해 배울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학기 봉사활동에서는 국정감사모니터링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국정감사모니터링은 투명성, 책임감, 시민 참여, 감사과정 개선, 민주주의 강화 등 다양한 의의를 가지며, 정부와 시민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저는 이러한 의의를 모니터링과 보고서 작성을 통해 몸소 깨닫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회가 정부 기관과 사업체를 감사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국가의 운영 과정을 면밀하게 살필 수 있었습니다. 주요 사업과 정책에 대한 논의 과정에 함께 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관한 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슴아파했던 사건 사고에 이어 '필수의료 공백' 같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이슈들에 관해 국회와 피감기관 측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의 질의 응답을 살펴보고 당사자의 이야기를 청해 들으며 사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컨대 이전에는 뉴스와 기사로 하나의 사안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만 접했다면, 국정 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는 행정부와 국회의 다양한 의견에 빚대어 사안을 다방면에서 살피고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질의 과정에서 정책과 근거 법을 기준에 두고 국정 운영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모습을 보며 '법'의 역할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법은 사회 정의를 수호하고 국가 존속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유의미합니다. 이번 학기 국정모니터링을 통해 우리 사회를 둘러싼 법의 역할을 더욱 잘 이해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법정변호사 행위규범'에 대한 번역을 진행하며 법조인으로서 지켜야 할 소양과 가치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변호사가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그 중 법정변호사는 변론전문가이자 조언자로서 실질적 혹은 잠재적 분쟁을 겪고 있는 전 세계 의뢰인들에게 양질의 변론 서비스와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법정변호사들의 변론과 교육은 전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변호사의 행위를 규정하고 바른 가치를 추구하도록 안내하는 규범을 번역하면서 법조인이 지켜야 할 소양과 자질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변호사가 의뢰인의 자금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번역했습니다. 각 조항마다 '투명성', '청렴', '의뢰인에게 최선이 되는 결정'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을 보며 변호사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윤리 의식과 책임감도 함께 겸양해야 하는 직업임을 깨달았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학기 배운 가치를 토대로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 경희대학교 철학과 이 ○ 경

지난 여름 학기, 처음으로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 활동하게 되었는데, 짧았지만 한 학기의 활동이 저에게는 인상 깊은 기억으로 남아서 가을 학기에도 활동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의 핵심 활동은 국정 감사 모니터링이었는데,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국정감사의 현장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12일에 있었던 행정안전부의 경찰청 국정감사현장을 시작으로 16일에 있었던 국방부 국정감사까지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기자분들과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함께 있어서 신기하면서도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국정감사를 감시하고, 관심을 가지고 국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장 모니터링 이전에 안건으로 제시된 사항들을 검색하고, 숙지한 후 현장에 참여했지만,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문답들을 들으며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사항들도 알게 되었고, 현재 국정 운영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알지 못하는 문제들이 더욱 많아질 것임을, 저 또한 나라의 상황과 문제에 무관심했음을 느끼며 국정의 올바른 운영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임을 다시금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상황 중 하나는 여러 국회의원들이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다가도 쉬는 시간에는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지만,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서로를 비난했던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지만 정당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나누어져 서로를 적대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에 양가적인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하면서, 특히 현장에서 생생한 감사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먼저는 함께 할 수 있다는 감사한 마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 대한민국 국정감사의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 국민으로서 국정감사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나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경영학과 이 ○ 영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무료 급식 봉사, 교육 봉사 등 다양한 봉사를 해왔습니다. 봉사가 끝나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내가 직접 도움을 행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저의 봉사가 개인에게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 아쉽기도 했습니다. 개개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폭넓게 전달될 수 있는 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그러던 중 대학교 4학년이 되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휴학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왕 자유시간이 많이 생기는 김에 봉사를 하고 싶어 알아보다 '법률소비자연맹'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모니터링 및 의정 모니터링, 법정 모니터링 및 배심원단, 언론 모니터링, 각국의 헌법 번역, 판결문 리서치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봉사자 개인의 적성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 가장 큰 끌림을 느꼈습니다. 또한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저에게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사회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되어 바로 지원하였습니다.

마음으로는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하여 국회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각국의 헌법 번역 활동에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시한 법무부 국정감사와 환경노동위원회가 실시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했는데, 국정감사를 처음부터 끝까지는 처음으로 지켜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단편적으로 뉴스에서 국정감사의 결과나 문제점을 들었을 때는 단편적으로 장면이 전달되다 보니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봉사활동을 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모니터링하니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되는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제가 모르는 이슈가 있기도 했지만, 온라인으로 봉사활동이 진행된 덕분에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자료를 찾아보며 참고할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국정감사 당시 다양한 사유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화가 났던 순간들이 있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삼권분립의 중요성과 시민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도 했습니다.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모든 부처가 다 그렇겠지만, 특히나 고용

노동부의 경우에는 기업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지속적인 감시가 없다면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큰 사고들이 사회에서 연달아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비 지양이나 불매와 같은 시민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저도 여기에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각국의 헌법 번역 봉사의 경우 저는 미국의 조지아 주의 헌법을 배정받았습니다. 독일에서 교환학생 신분으로 6개월간 공부하면서 독일의 법에 대해서도 배운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른 국가를 맡게 되어 더욱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이 연방제를 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인 만큼 우리나라 법 제도와 의 차이를 잘 느낄 수 있었고,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어로 된 법적 용어들을 찾아보면서 제가 알고 있었던 지식을 더욱 확장할 수 있었고, 찾아보는 과정에서 더욱 큰 지식의 확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가을학기를 덕분에 뜻깊게 마무리할 수 있어 법률소비자연맹에 굉장히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덕분에 예전부터 생각했던 사회 전반에 이바지하는 봉사를 실천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얻은 지식이나 깨달음도 굉장히 큼니다. 그러나 다양한 봉사를 덜 체험해 보았다는 아쉬움이 한편으로는 남아 있기도 하여 후에 기회가 된다면 법률소비자연맹을 통해 다른 봉사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 연세대학교 언더우드학부 경제학과 이 ○ 빈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저는 일반적인 공부 루틴에서 벗어나 사회에 봉사하고 변화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법률연맹에 봉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3달 정도 지났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한 봉사활동은 제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유익하고 뿌듯한 활동이었습니다. 정의와 법률을 수호하는 것은 NGO의 대표나 법조인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저 같은 일반 대학생도 참여하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 기뻐했습니다. 저는 이번 봉사 활동 기간 동안 거의 모든 종류의 봉사 활동을 모두 체험해보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소감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언론 모니터링 활동입니다. 평소에 뉴스를 챙겨보는 습관이 있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여 비교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방대한 양에 당황했지만, 차근차근 정리하다보니 언론사 간 정보량과 논조의 차이가 있는 것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어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각 보고서를 완성하기까지 25시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10대 일간지와 8대 경제 사설을 분석한 것은 유익하고 보람찬 활동이었습니다. 특히 9월 첫째주와 셋째주는 통계 조작 논란, 잼버리 이슈, 수능 킬러 문항,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등 뜨거운 감자 주제가 많아 주제별 보도 빈도량을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언론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언론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활동은 사법배심원단 법정 모니터링이었습니다. 법

률연맹 봉사자가 되기 전에는 저 같은 일반인이 사전 예약 없이 법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혹시 감독관이나 판사가 안된다고 하실까봐 긴장하며 들어갔는데 정말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는 분위기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는 동시에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감시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의로운 재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윤소라 부장님과 함께 큰 사건 재판들을 들어가며 다양한 큰 규모의 사건들을 접할 수 있었으며, 여러 판사와 검사, 변호사 성향을 보며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처럼 검사의 책상에 종이 자료가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신기했으며, 또 제 예상과는 다르게 모니터가 있어서 자료를 판사가 띄우면 함께 볼 수 있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다음은 국정모니터링입니다. 저는 운 좋게도 온라인 모니터링과 오프라인 모니터링까지 참여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비교해보기 위해 같은 부서의 감사를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참석했는데, 노트북으로 보던 사람들을 실물로 보니 신기했고, 마치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이 된 것 같아 재미있었습니다. 새로 알게 된 점은 국정감사 모니터링이 영상으로 모든 국민이 열람 가능하게 제공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국정감사가 국정의 일이기엔 내용이 기록되지만 열람은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영상회의록 시스템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 나중에 현안과 시사 공부할 때 잘 활용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국정감사가 형식적인 회의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실제로는 목소리를 높이는 언쟁도 가끔 있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국회의원 분들을 보고 정말 열정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용혜인 국회의원을 처음 봤는데,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노키즈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와닿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판결문리서치입니다. 법학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저에게도 유익해서 1석 2조였던 활동이었는데, 제가 관심 있는 행정법, 금융, 투자 등을 중심으로 리서치하며 사실관계에 따른 법관의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 심도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는 또한 담당자님께서 코멘트도 해주셔서 더욱 의욕적으로 완성하여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연맹은 나중에 법조인이 된 이후에도 다시 참여하고 싶은 봉사활동입니다. 감사드립니다.

○ 세종대학교 법학과 이 ○ 정

저는 특별히 타 대외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해 본 적이 없이 대학교에서 그저 수업만 듣거나 학문적인 지식들을 습득하기에 바빴던 법학과 대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적인 자세에서 학문만을 습득하기에는 딱딱한 법에 다가가는 데 더욱 무섭기만 하고 두렵기만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고민을 한 끝에 봉사활동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여러 서치들을 해 본 후 '법률연맹'이라는 곳을 우연히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지원을 하게 되었고 감사히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 가을학기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법률연맹 측에서 온라인 자료를 통한 OT를 진행하셨고 제공해주신 OT 자료들과 퀴즈들을 꼼꼼히 보고 학습하며 여러 법률과

관련된 흥미로운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이러한 학습들을 진행하니 보다 더욱 법률연맹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었고,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 법률연맹 필수 봉사활동인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법무부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실시간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생각보다 국정감사 진행시간이 길어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24시간에 육박하는 국감이 진행하여 본인으로서 너무나도 놀라고 조금은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를 한 번도 보거나 경험해보지 못했었기에 너무나도 가치적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힘든 만큼 기억에 오래 남듯이 이날의 국정감사 주요 이슈들은 아직까지도 저의 머릿속에 고이 저장되고 있을 만큼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서에 요약하여 잘 정리한 후에 법률연맹에 제출해야 했는데, 보고서에 요약하면서 또 한 번 국정감사 이슈들을 정리하고 또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태도나 질적인 질의태도 등을 재차 다루어볼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 저는 법정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 전날인 11일 국정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밤늦게 취침을 하여 조금 늦은 오후에 가게 되어 아쉬웠지만, 그래도 법정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음에 좋았습니다. 법정 모니터링은 법률연맹 활동 중 가장 짧은 시간 진행하였지만, 집에서 출발하는 과정에서 지하철을 자주 환승해야 해서 체력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을 가보니 여러 법률 전문가, 변호사, 판사, 검사분들을 실제로 바라보게 되어 영광스러웠고, 또 언젠가 본인도 법률적 전문가가 되어 법원에 당당히 들어가는 날이 오기를 빌었던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하여 법정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쟁점을 이해하기 힘들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힘들었지만, 실제적인 법정 자체를 보는 게 너무나도 신기하고 새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흥미로웠던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끝내고 그다음 활동으로 번역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번역 봉사활동을 해 본 적은 단 한번도 없었지만, 영어를 해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존재하거나 두려운 편은 아니었기에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법령 해석을 맡기로 하였고, 그중 가장 관심이 많은 형법 해석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살면서 미국연방 형법은 처음 보았기 때문에 매우 신기했고 엄청난 글자수에 압도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글자 수답게 예상보다 어려운 문장 해석에 당황하였고, 또 그것을 해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석하였고 각 조문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맺을 수 있도록 연결한 노력 덕에 해당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5시간 정도, 총 3일동안 15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여 2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의 법령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엄청난 집중력을 투자하여 해석을 하였기에 매우 힘들었지만, 그만큼 값졌던 시간이었기에 다음 봉사활동을 하게 될 때에는 다른 언어로서의 번역 봉사활동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법무부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진행한 국정감사는 확실히 전의 경험으로 훨씬 편안하고 이해하기 쉬운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교적 짧은 시간의 국정감사 활동을 진행하였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란버스법이나 유권해석 등은 본인도 몹시 궁금해하였던 부분이었는데,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들의 질의가 쏟아지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면서 해당 주제와 관련된 전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10월 27일에는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서 법무부에서 활동하였던 국정감사와 달리, 환노위 국정감사는 해석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노고가 존재하였습니다. 우선, 환경적으로 지식이 미비하여 사전 조사가 필수적이었으며 해당 위원들의 발언을 집중하여 듣고 재차 해석함으로써 국정감사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인이 재학 당시 수강하였던 환경법과 관련된 용어가 여러 번 나와 신기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포괄적으로 총 6번의 활동을 진행하였고, 법률연맹으로부터 총 50시간의 봉사활동을 인정받았습니다. 법률연맹을 봉사하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법률연맹을 좀 더 일찍 알지 못해 아쉬웠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률연맹은 제가 경험하고 진행하였던 활동 중 가장 값지고 가치적인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공부만 하고 정적인 시간들을 보내는 여타 법학과 대학생들과 달리, 보다 실질적이고 유동적인 가치적 활동들을 진행함으로써 매우 뿌듯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법정 모니터링 활동은 단 한 번밖에 못 해 아쉬운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리하여, 겨울 봉사활동에도 법률연맹 봉사활동을 신청하여 법정 모니터링과 관련하여서도 알차고 값진 시간들을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을 제공해주신 법률연맹에게 너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법률연맹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법과 관련된 분야에서 보다 더 실제적이고 가치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이 ○ 지

전공인 '보건정책관리학'에서 '법과 보건정책관리' 수업을 수강하며 법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민법, 헌법, 형법을 들으며 법의 기초를 쌓으니 이제 이 법률들이 어떻게 적용될 지 궁금해졌습니다. 법률 스터디, 학회 등을 찾아보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여러 활동 중, 이번 학기에는 국정감사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법정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국정감사 시즌인 가을학기에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서,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끝까지 들어보고 각 의원들의 주장을 요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전에는 국정감사를 어렵듯이 매년 진행된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국정감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공을 살려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하는 국정감사를 2회 모니터링 했습니다. 처음

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감사했고 두번째에는 요즘 뜨거운 감자인 국민연금공단을 감사했습니다. 본 전공을 살려 국정감사를 진행하니 처음하는 것임에도 주제를 잘 이해하고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진행한 봉사는 판결문 리서치입니다. 전에 형법을 공부하며 유명한 판례들도 몇몇 배웠기 때문에 판결문 읽기에 익숙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1심 2심 3심을 전부 찾으며 판결문을 읽어보니 수업할 때 요약만 읽었던 것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제가 선택한 판결문은 '대법원 2016도21314'로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진료한 것이 한의사 면허된 행위 안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판결하는 것이었습니다. 1심과 2심까지는 위법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1심과 2심의 판결 과정을 따라 요약해갔더니 당연히 위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으로 3심 대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을 이해했는데 3심에서 뒤집히니 대체 무슨 이유인지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3심 판결문을 정리하며 전문을 읽었더니 1심과 2심의 판단 근거를 전부 반박하며 무죄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저와 같은 일반인도 그 근거를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판결에서 끝나지 않고 관련 기사를 찾으며 당시 관련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찾아보니 대법원 판결의 파급력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세번째 봉사는 법정 모니터링입니다. 집 근처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을 처음 가보게 되었습니다. 수원법원은 상위 층에는 고등법원이, 하위 층에는 지방법원이 있는 형태였습니다. 다른 후기와는 다르게 수원지방법원에는 오늘의 재판 게시판이 없어서 어느 법정으로 가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지만, 안내 데스크에 여쭙보니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형사 사건이 있는 법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부 처음 하는 봉사활동이라 낯설었지만 그만큼 봉사가 끝나고 난 후의 성취감이 컸습니다. 다음 겨울학기 봉사도 신청해 이번에는 해보지 못한 언론 모니터링을 해보고 싶습니다

○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이 ○ 용

이번 2023학년 가을학기 처음으로 법률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진행한 봉사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와 국정감사 모니터링이었습니다. 우선, 국정감사 모니터링의 경우는 매년마다 가을에 정기적으로 국회에서 국정의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고 행정부 및 사법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하는 국회의 핵심적인 역할이자 기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처음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할 소관 상임위원회를 선정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등의 영상매체를 비롯한 문화컨텐츠와 국방정책 등에 평소에 관심이 많아서 상임위원회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선정하여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영상으로 녹화가 된 국정감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해당 피감기관에 대한 주요 국정감사 이슈와 감사위원별 국정감사 질의내용을 정리하였고 국감위원 별 질의내용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피감기관에 관하여도 피감기관의 태도나 상임위원장의 태도 및 질의에 관하여 전

반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수많은 정부부처 사람들이 나와서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대답과 해명을 하며 국민들이 기존에 몰랐던 부분을 알 수 있게 하거나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다시 복기시켜 국정감사라는 제도가 무엇보다 국민들의 알권리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에는 담당 분야가 광범위한 만큼 프로야구, 아이돌 계약관련 분쟁,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의 비위 의혹 등 정말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비록 중간 중간에 고성이나 항의가 존재하긴 했지만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 만큼 국회 의사진행이 폭력적이지 않은 점은 나를 신기했던 점이었습니다.

국방위원회의 경우에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흉범도장군 흉상 이전관련 논란 초급간부 처우 논란 등의 다양한 국방 현안 관련 이슈에 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중 몇몇의 논란에 관한 사실들은 이전에 제가 몰랐던 부분에 관하여 다루고 있기도 하여서 제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새롭게 국방 분야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이 많이 생겼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한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입니다. 사실 일반국민이자 학생으로서 대법원이나 다른 법원들의 판결문 전문을 읽고 분석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번에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이슈가 되었던 주거침입 관련 판례와 모 유명 가수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미국으로 도피해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사건에 관한 우리 법원의 판단의 법리적인 결론이 어떠한지 개인적으로 궁금하여 이 사건에 관해 찾아보고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각 사실관계의 쟁점을 도출하고 그 쟁점을 각급 법원에서 어떠한 법리를 바탕으로 적용하고 결론을 내렸는지 그 논리구조를 집중적으로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고 여러 법률 용어와 법원의 재판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법 전반에 관한 지식을 증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공공부와 한 명의 일반 시민으로서 국회와 사법부가 헌법상 보장된 우리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우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 ○ 우

이번 가을학기 봉사활동 기간 동안 총 다섯 가지의 봉사활동을 했다. 첫 번째는 사법감시 배심원단 법정 모니터링, 두 번째는 캔자스주 헌법의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내용을 번역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국정감사 모니터링이었고, 네 번째는 직접 현장에 가서 하는 국정감사 모니터링이었다. 마지막으로 총 2번의 법정 모니터링을 했고, 그렇게 이번 학기 봉사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사법감시 배심원단 법정 모니터링은 첫 번째로 참여했던 봉사였다. 내 평생 처음으로 법정에 가는 경험이어서 그랬는지 설레었고 긴장되는 경험이었다. 법정에

들어갔을 때 엄숙한 분위기를 느꼈고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경험을 하며 뿌듯함을 느꼈다. 비록 내용도 별로 없고 재판 자체도 짧아서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법정의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경험에서 유익했다.

두 번째로 했던 봉사는 타국 법률 번역이다. 이번 활동에서 번역한 법률은 미국의 캔자스주 헌법의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규정이었다. 타 국가 주의 법률을 직접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라 좋았다. 번역을 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각종 법률 용어들을 번역하며 학습하고 친숙해질 수 있었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구성과 역할, 그리고 그 외의 규정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여서 유익했다.

이번 봉사 기간의 필수 활동이었던 국정감사 모니터링이 세 번째 봉사활동이었다. 현장에 직접 가는 모니터링이 아닌 집에서 모니터를 통해 시청했던 첫 번째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보건복지부의 감사였다. 국정감사라는 것을 처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경험이었다. 조금 지루한 면도 있었지만, 그래도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많은 이슈들과 문제들을 직접 듣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유익했다. 국회의원들과 각종 기관의 기관장들이 쓰는 언어와 그들의 지식을 간접적으로 배우고 학습할 수 있어 미래에 많은 도움이 될 경험이었다.

네 번째는 직접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하는 현장 국정감사 모니터링이었다.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의 국정감사는 대검찰청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엄숙한 분위기와 위원들의 아우라에 압도를 당했다. 다양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이슈들에 대해 많은 질의를 하는 위원들을 직접 보고, 나도 언젠가는 저런 위치의 사람이 되어겠다는 동기를 부여해주었다. 물론 아침 일찍 시작하여 오후 11시까지 이어진 국정감사라 많이 힘들었지만, 그 공간에 내가 있고, 거기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뿌듯했고, 많은 용어들과 이슈들, 대검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점들을 직접 듣고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

마지막은 법정모니터링이다. 총 두번의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는데, 하나는 민사부 재판, 다른 하나는 형사부 재판이었다. 먼저 민사부 재판은 너무 짧게 진행되어 아쉬운 부분이 컸지만, 그래도 민사 재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원래 한 재판부가 몇몇 사건을 심도 있게 길게 진행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 형사재판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유사했다. 실제로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인도 내가 상상했던 것과 유사하게 멋있었고, 내용도 흥미진진했으며, 그러한 이유들로 1시간 넘게 법정에서 재판을 방청할 수밖에 없었다.

통틀어 이번 가을 학기 봉사활동은 내 미래에 도움이 될 경험들이 넘쳐났고, 많은 학생들이 꼭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

○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이 ○ 인

2023년 가을학기 법률봉사 활동을 마치고, 활동 과정을 기록하며 소감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평소에 법에 대해 투철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저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법과 관련한 수업이나 대외활동 등을 되도록

많이 경험해 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지난 학기에 '형법의 이해'라는 수업을 들으며 법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공간 속에서 현실감 있게 이를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원이라는 공간에서 법을 몸소 체험해 보며 법조인이라는 제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에 해당 봉사활동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째로 했던 활동은 사법감시 배심원단 활동이었습니다. 제가 참관한 법정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절차가 있었습니다. 본 공판 전, 저작권법과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쟁점 정리와 공판 기일 확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해본 재판 방청 경험이라, 엄숙한 법원의 분위기에 많이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법원 내에서 정의 실현과 공정한 법의 판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뿌듯한 마음이 가장 크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진행된 법정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사법감시 배심원단 활동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판장 내 모습을 눈에 담고, 전체적인 과정들을 익히며 모니터링 과정을 연습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했던 활동은 이번 학기 필수 활동인 국정감사 모니터링이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평소에도 법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에 법제사법위원회는 꼭 모니터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해당 모니터링 이후에 법사위의 또 다른 국정감사 영상을 찾아보았는데, 정의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사법기관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언론이 지닌 책임의 무게감과 이러한 매체환경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모니터링은 우리나라 정치 전반에 대해 직접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알찬 경험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업무의 특성 차이로 인해 구분된 부서에 속해있긴 하지만 모든 분야의 정치 체계 자체가 유기적인 연결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활동은 법정 모니터링이었습니다. 실제 재판 공간에서의 현장감 있는 모습과 생생한 과정들을 느낄 수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실제로 재판 방청과 모니터링을 경험해 보면서, 제가 사사롭게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있었던 엄숙한 분위기와 법관분들의 논리정연한 언변들이 직접 체득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의를 지향하는 법의 본질과, 그러한 법을 다루는 과정 속에서 신뢰를 지키는 법조인의 역할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법'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저를 가슴 설레게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법에 대한 앎이 항상 간절했고,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간절하고 싶습니다. 이번 법률봉사 활동을 통해 그러한 열정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씩 쌓아왔던 법률적 지식에, 이번 활동을 통해 얻게 된 실질적인 경험이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권 시민으로써, 공정한 법의 판결과 법정 내에서의 정의 실현에 제가 기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오직 공정성에만 의존하여 약자를 위한 법을 다루는 사

람이 되는 것, 이것이 제가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삶의 목표입니다. 활동들 속에서 얻게 된 그간의 배움을 벗 삼아, 법조인으로 가는 길에 하나하나 디딤돌을 놓아보고자 합니다, 아직은 원석에 불과한 제 열정을 보석으로 다듬어 낼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이 ○ 현

저번 학기에 이어서 법률소비자연맹에 법률봉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저번 학기에는 의정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 그리고 재판모니터링 봉사활동을 위주로 봉사활동을 하였으니 이번 학기에는 새로운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외계층을 돕는 봉사활동을 평소에 자주해 왔었고 법률봉사 또한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으로는 국정감사모니터링과 번역봉사를 하였습니다. 국정감사모니터링은 법제사법위원회 2번, 환경노동위원회 1번을 하여 총3번 실시하였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였는데 저의 진로가 검사인만큼 흥미로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사법기관으로서 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두 기관이 국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장래에 검사가 된다면 어떤 검사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국정감사를 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는데 국민들의 대표로서 국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잘한 국회의원, 못한 국회의원 모두 있었지만 결국 선출직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정감사에 관심을 갖고 시청하였다면 다음 총선에서 투표로 잘한 국회의원을 뽑아 더 나은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번역봉사는 미국시 진흥법의 일부를 번역하였는데 이번 학기 수업으로 듣고 있는 시와법이라는 과목과도 연관성이 있어 더욱 열심히 임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관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법률로써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이 선진국으로서 그런 모습을 모범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을 본받아 인공지능 분야에 더욱 투자하고 입법, 사법기관에서도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국가에 이바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이 ○ 민

법에 대해 관심도 많고, 법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법률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하며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활동이었다. 나는 법정 모니터링과 국정감사, 법률번역 총 3가지의 봉사를 진행하였다. 그중 가장 힘들었던 건 국정감사였는데, 누군가가 말하는 걸 집중하고 그걸 정확히 기록하는 게 정말 힘든 일임을 알게 된 봉사였다. 하지만 힘들기만 하고 얻어가는 것은 없는 그저 그런 활동은 아니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 되고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논제와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좋은 경험

이라고 생각한다. 법정 모니터링은 정말 많이 다니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들인 노력과 시간 대비 아주 조금의 봉사 시간만 인정받아 날 아주 힘들게 하였다. 15개의 법정을 모니터링했는데, 직접 보는 시간만 해도 30시간에 작성하는데 10시간은 할애했지만 8시간 11분을 인정받아 내 마음을 찢어지게 하였다. 하지만 법정에 들어가서 모두절차, 심리 절차의 과정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변호사석)에 스는 모습을 그리는 등 동기부여에 좋은 활동이었다.

번역 봉사는 내 마음을 찢어지게 한 법정 모니터링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활동이었는데, 법률 용어가 너무 어렵고, 단어의 뜻을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애를 먹었다. 그래도 영국의 법률용어도 공부하고, 영국의 변호사 체계에 대해서도 알게라도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다. 초반 번역에 공만 들이면 금방 마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법률 번역 봉사 관리해주시는 분이 수고했다고도 해 주시고 그래주셔서 뿌듯하였다. 다음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다른 나라의 헌법을 번역하면서 우리나라와 차이점, 공통점을 비교하면 재미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상황 파악이 빠르다는 장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법정 모니터링을 하다보면, 중간에 들어가거나, 재판이 이미 몇 차례 진행된 공판에 대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검사, 판사,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어떤 사건인지 금방 알아낼 수 있는데, 쉽게 해내는 내 모습에서 눈치가 빠르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꼼꼼함이라는 장점도 찾을 수 있었다. 국정 감사를 진행할 때, 의원이 질의를 하게 되면 누군지, 어디 소속인지, 무슨 질문을 했는지, 질의 시간은 얼마나 했는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기록해야 하기에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질의 시간도 대충할 법한데, 타이머를 재가면서 정말 꼼꼼하게 진행하는 내 모습에서 꼼꼼함을 느꼈다.

법정 모니터링 봉사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 사회봉사가 국가의 형사 절차 모니터링에 도움이 되는 활동일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법정 방청객이 거의 별로 없어서 누군가 한 명 들어오면 판사들도 좀 더 신경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봉사 활동을 하면서 이런 단체들이 있어서 사회가 보다 밝아지고 있음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 이런 단체들이 더욱 더 많아지고, 그 단체에 활동하는 대학생들,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내 또래들이 많이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분들이 정말 많음을 알게 되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고 있는 봉사활동이 매우 다양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봉사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봉사자가 직접 능동적으로 찾아서 봉사활동을 진행해야 하고, 봉사 시간 인정에 있어 실제로 봉사한 시간보다 덜 인정해주어 30시간 이상을 채우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이 ○ 육

저는 법률소비자연맹 가을학기 봉사에 참여하며 재

판 방청, 국정감사 모니터링(현장&온라인), 판결문 리서치에 참여하였습니다.

재판 방청을 통해서 실제 재판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공판이 증인신문을 하는 공판이었기에 다른 공판에 비해 크게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도 없었고, 생각보다는 잔잔한 재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소비자연맹의 사법 시스템을 감시한다는 소명 아래에서 본다면, 꽤 인상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증인에 대해 판사님이 직접 몇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검사의 질문만큼이나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고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 중요한 질의를 하시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라마나 매체에서 보던 판사를 생각하면 항상 가만히 있고, 마지막에 판결만을 내는 사람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극적인 스탠스로 재판에 개입하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서 국회의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고, 생각보다 이 모니터링이 상당히 의미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연찮게 제가 현장에서 모니터링한 국정감사는 국방위원회의 첫 국정감사로, 파행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국정감사였습니다. 그 때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삼권분립 체제에서 각 권력이 서로를 견제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인데, 제 판단에는 크게 중요치 않은 사안을 핑계로 국정감사를 회피하는 의원들을 보고 회의를 느꼈습니다. 물론, 이번엔 여당이 파행을 했지만, 여당 측 주장으로는 과거에 야당이 동일하게 파행을 했다고 말하는 점에서, 특정 당파를 비판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당파의 잘못인지를 떠나서, 입법부에서 입법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간주되는 국정감사를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추후 기사보도에서는 이런 현장감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 그런 면에서 현장 모니터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저 스스로도 뿌듯함을 느낀 활동이었습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한 국정감사는 매우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때는 반대로 국회의원들이 생각보다 열심히 국정감사를 준비하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고서에서 못한 국회의원을 뽑으라고 제시되어 있었는데, 누구 뽑아야할지 곤란할 정도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자료조사를 해오셨던 것 같고, 제가 국민으로서 평소 애용했던 것(예컨대 R&D예산 삭감)들을 관련 공무원들에게 잘 질의해주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에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국회의원들을 비판했던 적이 있었는데, 최소한 국회 본회의 영상, 국정감사 영상 등을 평소에 좀 관심있게 챙겨보고 그런 의견을 개진해야겠다는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법원처럼, 국회의원들의 활동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선거권을 더 가치있게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한 아주 의미있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는 개인적으로 제 꿈에 가장 근접한 활동이었는데,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정리하면서도 재밌게 즐기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판결문은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기존 판례를 뒤집은 사건인데, 판결문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대법원 법리의 문

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법을 공부하면서 판례가 아예 낯선 입장은 아니었다 보니, '판결문의 가독성' 등 연맹 측에서 원했던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모르겠으나, 이 또한 판결문이 일반인에게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가의 사법 체계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법 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일조했다는 사실에 상당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가의 사법 체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임 ○ 민

재학 중인 과 특성상 많이 개설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다양한 법의 지식을 쌓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 초, 세무법인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법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법학 지식과 흥미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대외활동을 알아보던 중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을학기 동안 법률소비자 연맹에서 사법감시배심원단 모니터링, 법정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국정감사, 번역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판결문 리서치는 평소 판결문을 접할 기회가 많았기에, 저에게 있어서는 익숙한 활동이었으며 해당 활동을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법학 지식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시험을 위해서만 읽어야 했던 판결문과 다르게 원하는 판례를 직접 읽으며, 쟁점, 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니 해당 판례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사법감시배심원단 모니터링 및 법정 모니터링은 시작 전부터 기대가 되는 활동이었습니다. 법조인을 희망하는 저는 봉사활동을 통해, 직업 체험을 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드라마나 영화와 달리 실제 판사님의 발언, 변호사/검사분의 진술을, 피고인의 진술 등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활동이었습니다.

헌법을 번역하는 것이었다. 번역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익숙하지 않은 내용을 이해하며 문맥에 맞게 번역한 것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단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국 헌법을 천천히 읽어보며 번역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헌법과 유사한 부분과 다른 부분을 비교, 대조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영미법에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체위와 국방부의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하게 되었는데, 국회의원들과 피감기관이 질의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비판하는 과정을 직접 관찰하며,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질의로 인해

모니터링 시간이 상당히 길었다는 점에서는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국민으로서 국정감사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위 활동들 외에도 다른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싶었지만, 시간의 한계로 참여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특히 법정 모니터링을 주말에 할 수 없다는 점과, 늦은 시간에 갈 수 없다는 점에서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아, 안타까웠습니다. 따라서 다음 학기 봉사활동도 신청하여 이번 학기에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할 생각에 있습니다.

○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장 ○ 원

법조인을 장래희망으로 두고 있었던 만큼 경험을 쌓고자 봉사활동 또한 관련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던 중 2023학년 가을학기 처음으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법정모니터링, 사법감시배심원단, 국정감사모니터링 등 법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법정모니터링 및 사법감시배심원단으로서 민/형사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재판을 방청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제가 실제 법률의 적용과 선고가 이뤄지는 재판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전공강의와 책, 판례를 통해서 법과 관련된 이론, 사례, 학설 등의 학술적 지식을 알 수 있을지라도 실제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실제 법원에서 재판 방청을 하지 않는 한 제대로 알기 어려움을 깨달았습니다. 모의재판에서 경험했던 것과 달리 한 사건에 대한 변론이 하루 안에 진행되지 않고 수차례의 공판절차를 거쳐 종결된다는 점이 매우 인상깊었고, 방청 중 모니터링과 더불어 증인 및 피고인 신문에 있어서 검사와 변호사가 던지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려우면서도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재판 중에 판사, 검사, 변호인, 법정경위이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및 태도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국정감사모니터링 활동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국회가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행정부를 비롯한 여타의 국가기관을 감시·비판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의 진행과정이나 결과의 경우 뉴스 또는 신문 기사를 통해 접하였을 뿐 실제로 모니터링을 진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국정감사온라인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모든 재판이 공개되듯이 국정감사 또한 국민에게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통해 공개된 상태에서 진행되며 관련 회의록 및 동영상 또한 추후 업로드되어 언제나 확인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공개되고 있다고는 하나,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을 때 비로소 국정감사의 투명성이 보장받을 수 있음을 깨달았기에 보다 진지하게 모니터링 활동에 참가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모니터링을 통해 국회가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피감기관과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에서 문제

를 제기하고 비판과 더불어 시정을 요구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감사에서 시정 또는 변경을 약속받은 사안의 실질적 개선 여부 확인, 노란버스대란을 비롯하여 최근 이슈화된 관련 사회/인사문제 대처 과정상 한계 및 결과상 문제점 지적, 유착관계 또는 비리로 보일 수 있는 업무 수행상의 지연 및 (공수처 등) 기관의 기대성과 미달성 비판, 예산 운영상의 비효율 개선 요청 등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장에게 질의 및 지적하는 다양한 쟁점들을 정리하며, 기관의 앞으로의 보다는 운영을 위해서는 피감기관의 주요 활동 및 구성원에 대한 다방면에서의 문제점 검토와 국정감사를 통한 피감기관에게로의 관련 사항 전달 및 비판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외에도 감사 진행에 앞서 미리 대략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질의와 관련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6시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감사회의를 이어나가는 국회의원과 그들의 조력자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보다 투명한 국가기관의 운영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학기중이었던 만큼 시간 관계상 보다 다양한 종류의 봉사활동에 참가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판결문 리서치와 언론 모니터링 활동은 꼭 해보고 싶었던 만큼 여건이 된다면 겨울학기에 이어서 관련 봉사단 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나아가, 만약 가능하다면 다음 의정 모니터링 및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에도 꼭 참여하고 싶으며, 오프라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판과 국정감사의 진행 목적 및 양상을 비롯한 법률에 관한 국가기관의 실무에 대해서 알아보고 법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법 관련 유익하고 의미 깊은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영광이었고 기회를 주신 법률소비자연맹께 감사드립니다.

○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장 ○ 선

법조인의 꿈을 가지게 된 후, 대학생의 신분으로 법률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찾아다니다가 법률소비자연맹을 알게 되었다. 올해 1학기에도 봉사를 신청했지만, 아쉽게도 30시간을 채우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꼭 미리일정을 확보해 두겠다고 생각했다. 여러 종류의 봉사활동이 있지만 나의 관심사에 따라 판결문 리서치와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신청해서 활동했다.

판결문 리서치는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등재된 사건들 중 하나를 골라 판결문을 일반인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하고 정리하는 활동이었다. 법조인이 되었을 때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판례와 판결문일 것이므로 기대가 되기도 했다. 이번 학기에 분석했던 판례는 치료를 받던 중 후천성 장애인이 된 경우에서 치료한 의사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과, 자전거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이 형벌 면제 사유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었다. 1학기에 처음 판결문을 읽고 굉장히 길고 난해한 문장 길이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논리 체계를 이해하기 어려웠음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째서 판결문의 문장들은 그토록 긴지 궁금했다. 짐작하건대 법리를 설명하고자 할 때 많은 전제조건과 제한조건을 언급해야 하다 보니 굳어진 관습인 듯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나 관련자 아니고서야 판결문을 일반인이 꼼꼼히 읽어볼 일은 많지 않을 것이므로 판결문 기록 방식이 가독성을 굳이 따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편 내가 맡은 두 사건 모두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판결이 나와 다행이었다. 의료사고와 관련한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의사 측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고 한 2심의 판결에 반해 파기환송을 선고했고, 자전거 사고 관련 사건에서는 성년후견인이 가해자와함의 및 처벌불원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유죄 선고를 내렸다. 모든 사건이이처럼 보통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결과로 끝나지는 않겠지만 법이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례로 남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일반인인 나의 관점에서는 법이 당연히 약자의 편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의료사고는 의사의 책임이고 당사자가 표시하지 않은 의사는 진실된 의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관련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때 어떤 재판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를 가지고 격렬한 논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관련 법에 자세한 규정이 없다면 유사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 것인지, 입법자가 입법 당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법을 만들었는지, 법관의 재량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등에 관한 논쟁은 끝이 없을 수 있다. 법은 가장 객관적인 판단기준이지만 동시에 편향된 관점을 가진 사람이 만든 추상적인 대상이기 때문이다.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판결문 분석 체험을 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법관이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다. 경우에 따라 약자를 위해 법을 너그럽게 적용할 수 있는 법관 개인의 도덕적 재량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환경노동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진행한 감사를 대상으로 했다. 1년에 한번씩 입법부가 행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교과서에서 배워서 익히 알고 있지만 그 현장을 실제로 보는 것은 색다른 경험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실제로 모니터링해보니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던 것 같다. 일단 감사가 한두 시간으로 끝나게 아닌 데다,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 받는 사람 사이에서 말씨름과 기싸움도 심심찮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감사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언성을 높이는 일도 심심찮게 있어 눈살이 찌푸러지기도 했다. 그외의 시간에는 피감 기관의 1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과정이 이어졌는데, 기존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추진한 사업이 부작용을 낳은 경우를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도, 질의가 부족한 부분을 지적한 후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하면 피감기관장이 '노력하겠다' '개선하겠다' 등의 대답만 되풀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아쉬웠다. 아무리 즉석에서 질의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개선할지 혹은 어떻게 수정할지에 대해 간단히라도 방향성을 제시해서 답변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한 학기 동안 법률봉사를 하면서 나의 진로에 대해 조금 자세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방학에는 여유시간이 더 많은 테니 겨울 봉사활동도 신청해서 더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다.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전 ○ 비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법정 모니터링 활동입니다. 저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법원에 처음 다녀왔습니다. 처음 방문한 법원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숙했습니다. 방청자도 생각보다 없었으며,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방청을 하면서 가장 놀란 부분은 재판 시간이었습니다. 법관이 한 시간 동안 5~6개의 사건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는 기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검사와 변호사의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던 점과 사투리나 발음 때문에 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법정 모니터링 활동은 제가 변호사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모니터링 활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방청했던 재판의 변호사와 피고인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느끼기에 변호사가 있는 피고인과 변호사가 없는 피고인은 태도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있는 피고인은 대부분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정확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였고, 변호사가 없는 피고인은 비교적 주눅 들어 보였습니다. 변호사의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느낀 활동이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도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법 공부를 하면서 판결문을 찾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찾아볼 때마다 대법원 판결문만 찾아서 사건의 결론만 알아내려고 하였고, 판결문 사본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원심 판결문도 찾아보면서 한 사건의 판단 흐름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리서치 활동 중에서 특히 좋았던 점은 보고서의 구성이 판결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판결문을 붙여 넣는 것이 아니라 법관, 대리인, 용어설명, 관련 기사 등을 찾아보면서 사건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과정만이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판결문을 읽을 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보고서를 채워 나가면서 이해한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리서치 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판결문 사본을 얻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본 신청 후 판결문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본을 늦게 신청했습니다. 비록 시간이 부족하여 한 사건밖에 다루지 못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형사사건 판결문도 리서치해보고 싶습니다. 판결문 리서치의 목표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사건쟁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판결문이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법을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판결문이 심히 어렵게 작성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았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판결문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이라고 한다면 어려운 용어로, 쉬운 말도 어렵게 작성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재학 당시에는 판결문을 읽어볼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인식이나 어려운 법률용어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결문을 읽는데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판결문을 가벼운 마음으로 접할 수 있도록 쉬운 표현으로 판결문이 작성되었으면 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법조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꼭 해봐야 할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조문을 읽고 법 과목을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지식도 있지만, 직접 사법체계에 참여하면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법률연맹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전 ○ 진

9/19 오리엔테이션을 대체하는 자료를 정독하였고, 이와 관련된 퀴즈를 풀면서 가을학기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 개요와 내용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작성된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고 숙지함으로써 일정에 맞춰 원활하게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10/12 목요일 합동참모본부 현장 국정감사모니터링을 참여하였습니다. 밖에서만 봤던 국방부 건물 그리고 뉴스에서만 보던 국정감사 현장에 직접 방문하게 되어 흥미로웠습니다. 감사 진행과정에서 감사위원인 국회의원분들, 여러 군 간부분들이 있는 자리인 만큼 더욱 긴장했었습니다. 감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나서부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들이 올바르게 국정감사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데 집중하였고 효율적이고 공정한 국정감사에 기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책임감있게 봉사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평소에 몰랐던 드론작전사령부 창설과 같은 이슈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한 국방력 강화, 남북 군사합의 이슈 등 다양한 안건을 다뤄 새로운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유익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10/26, 10/27의 경우에는 학교 일정과 겹쳐 온라인 실시간 국정감사모니터링으로 참여했습니다.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통일부를 대상으로 감사가 이뤄졌습니다. 해당 감사에서도 감사위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저는 외교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어 외교부의 감사과정이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복송, 후쿠시마 원전수 방출 안전 등이 나와 감사위원과 피감사기관장이 이에 대하여 질의 및 응답을 진행하였는데, 외교적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해결방향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 및 정책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으며 국정감사장인 만큼 더욱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까지 알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스로도 외교적 문제해결 및 역할에 대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봄으로써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10/29 대법원 판결문 리서치활동을 통하여 어려운 판례를 간소화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였으며, 법률 용어 알기 쉽게 정리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판결문을 접했을 때는 내용이 쉽게 잘 읽히지 않아 요약 및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2회독 3회독하면서 사건 쟁점과 요지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렇게 파악

한 내용을 토대로 판결문을 보다 쉽게 정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판결문을 처음 접했을 때의 제 감정을 생각하면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판결문을 새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요약 및 정리능력, 법률지식 등을 얻을 수 있어 저에게도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었습니다.

○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정 ○ 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가을학기 사회봉사를 좋은 기회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엔 친구의 추천을 통해 하게 된 것이라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몰랐는데 오티 영상이나 안내문에서 자세하게 설명해준 덕에 기본적인 방법을 익힐 수 있었다.

나는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언론모니터링 두 가지를 진행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말 그대로 국회의 감사 영상을 우리가 직접 모니터링단원으로서 활동하는 봉사활동이었다. 7시간 분량의 국회감사 영상을 보며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에게 어떤 제안과 피드백을 하는지, 의견을 남기는 과정에서 무례하거나 비논리적인 부분은 없는 건지 직접 피드백 하는 일이 주요 업무이다. 봉사활동을 하게 되며 국회감사 영상이 전부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 직접 내가 심사위원의 일부가 되어 이들의 활동을 평가하는 일이 굉장히 뜻 깊게 다가왔다. 또 인상 깊었던 점은 피감기관과 관련된 (피감기관이 도맡아 진행하는) 분야의 이슈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나는 식품과 관련된 전공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감사를 모니터링 하였는데, 뉴스로 얼핏 듣기만 했던 이슈들의 세부적인 내용, 문제점, 개선해야 할 점까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다. 그리고 일단 내가 모니터링단원이라고 생각하니 봉사활동을 하며 느끼는 책임감을 좀 깊게 느낄 수 있던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다.

두 번째로 진행한 봉사활동은 번역봉사 활동이었다. 외국의 법을 우리나라 언어로 바꾸는 일인데 나는 뉴질랜드 변호사법을 할당받게 되었다. 일단 법을 번역하기 전에, 그 나라의 기본적인 정보나 법에 관련된 사전 정보를 찾아보고 번역을 하려고 노력했다. 그 나라의 문화같은 것들을 알아야 올바른 맥락에서 번역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한 문장 한 문장 번역을 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나는 법과 관련된 사람도 아닐뿐더러 오랜만에 많은 영어를 마주하려니 머리가 지끈거리기도 했다. 그렇지만,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임했고 다 끝냈을 때는 엄청난 뿌듯함이 느껴졌다.

가을학기 봉사활동은 시작할 때와 끝낼 때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달라진 거 같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기 바빴는데 하고나니 책임감도 느껴지고 봉사활동에 대한 의미도 스스로 깨닫게 된 것 같다. 나는 이제 졸업을 하게 돼서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더 이상 없지만 이후에 기회가 생긴다면 다양한 방면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해보고 싶다. 그리고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 후배들에게는 이 봉사활동을 꼭 추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학기 동안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빠르게 답변해주시고 신경써주신 담당자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정 ○ 진

전공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찾아보던 와중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단체에서 매학기 마다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번 학기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했던 활동들은 판결문 리서치와 국정감사 모니터링입니다. 먼저, 판결문 리서치는 꽤 재미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전공 수업에서 판례를 많이 다루어 왔기 때문에 판결문을 읽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리서치 활동은 내가 관심있는 사건의 판결문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판결문을 읽은 경험은 이전에도 제법 있으나 그 이전의 판결문들, 하급심의 판결문을 상세히 읽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건의 제3자라도 1심, 2심의 판결문을 요청하여 받아볼 수 있다는 사실도 봉사활동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해당 활동을 진행하며 새롭게 얻은 지식이 많아졌고, 학교 외에서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처의 국정감사 과정을 지켜보고, 정리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이 아니라면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보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선뜻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활동은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어 가장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기자단으로 일하며 해당 부처의 정책 및 진행하고 있는 활동에 관해 많이 알게 된 한 해였는데, 그런 부처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니 흥미로웠습니다. 다른 부처 국정감사를 지켜봤을 때에 비해 감사 안건에 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두 기관 모두 현재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이슈들에 관해 감사 및 질의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모니터링 시간은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했던 두 활동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특히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가을학기에만 진행되는 활동이므로 최대한 다양한 기관에 관해 모니터링을 한다면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 시간상 문제로 인해 법정 모니터링을 해보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또 다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봉사활동은 대학생으로서 사회의 올바른 법질서를 세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연세대학교 보건의료정보관리학과 정 ○ 수

평소 보건 정책과 의료법 분야에 관심이 있어 법률과 관련된 여러 활동을 찾던 중,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번역봉사, 법정 모니터링, 판결문리서치 등 다양한 활동들을 원하는 만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아 보였고, 법에 대해 경험해보고자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총 국정감사 모니터링 2회, 법정 모니터링 2회, 번역봉사 1회를 활동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국정감사 모니

터링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보건 정책에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보건복지 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들었었는데, 보건 분야 최근 이슈들을 한 번에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대한 국회위원들이 제시하는 해결방안과 이전에 지적받았던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들도 알 수 있어 어떤 정당과 국가 기관이 업무를 잘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시각에서 많은 문제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 활동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국정감사도 평소 접하지 않았던 분야의 내용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법정 모니터링 활동이 흥미로웠습니다. 이전에 동아리에서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단독과 협의부 재판부의 재판장 모습이 달랐던 것부터 사기 사건에서의 피고인이 7명 정도로 많았던 것까지 관찰 하였던 모든 것들이 신기했습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과 증인, 변호사 등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재판을 통해 그들의 성격과 유형이 압축적으로 단기간에 파악된다는 것도 새로웠습니다. 이를 통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각자의 주장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역 봉사는 처음 해보는 활동이어서 재밌게 참여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번역하는 봉사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경험하게 되어서 좋습니다. 미국의 위스콘신주 헌법을 번역하였는데, 국가가 크다 보니 주에도 헌법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 신기했습니다. 재정 부분을 주로 보았는데, 평소 가장 어려웠던 재정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아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법률 용어라 번역하는데 어렵기도 했지만, 고민했던 시간이 저에게도 도움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 활동에 참여하였지만, 학기 중에 진행했던 것이라 시간이 부족해 판결문 리서치 봉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나중에 법률 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다시 하게 된다면, 판결문 리서치 활동도 해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정 ○ 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한 이번 가을학기 봉사활동은 내가 처음 참여해 본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이었다. 전부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내가 관심 있는 법 관련 분야를 봉사라는 활동을 통해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젠가 꼭 참여하고 싶었던 활동이었다. 그러다 이번에 좋은 기회에 가을학기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덕분에 뜻깊고 가치 있는 가을학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가을학기 봉사활동에서 나는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 국정감사 활동,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하였다. 이 세 가지 활동을 하면서 나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봉사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찼다.

우선,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을 하면서는 이제껏 가

볼일도, 가 본적도 없었던 법정에 직접 방문하게 되었다. 이렇게 재판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방식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이 나에게 큰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다. 뿐만 아니라 법정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와 검사, 판사를 직접 봄으로써 그들이 법정 안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직접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는 값진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이 활동을 하면서 법조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나에게 법조인이라는 꿈에 대해 더욱 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도 하였다.

국정감사 활동에 참여하면서도 법조인을 직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법이 어떠한 방식으로 제안이 되고,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처음부터 직접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훗날 내가 법조인이 되었을 때 어떤 지점에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학기에 나는 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다보니,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을 실제로 제정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필요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 자체에 능통한 사람이 꼭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만약 내가 법 관련 일에 일조하는 사람이 된다면, 법을 제정하는 일과 관련하여 가능한 선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어 보다 나은 법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활동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면서 국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고, 그것을 분석하여 국민들과 국회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보람찼다.

마지막으로 판결문리서치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을 준 활동이었다. 판결문리서치 활동은 3심까지 간 재판을 하나 골라 1심, 2심, 3심에서 진행된 재판을 일반인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 정리하는 활동이었다. 이 활동을 통해 실제로 효력이 있는 판결문을 직접 읽어보고 해석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이는 간접적으로 법조인의 업무를 경험해볼 수 있었던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판결문리서치 활동은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처음부터 지켜볼 수 있는 활동이었고,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해당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내가 한 판결문리서치는 이혼과 관련된 민사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더 더욱 와 닿았던 것 같다. 이렇게 가을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법적인 지식을 습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조인들이 하는 일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었으며, 법 관련 일에 일조하고 싶다는 나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본 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여 보람을 느끼고 사회에 기여함과 동시에 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다음 봉사활동에서는 이번에 많이 하지 못했던 법정모니터 활동, 언론모니터 활동, 번역 활동 등에 참여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다.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과 정 ○ 서

국제학과에 재학 중인 저는 학교에서 국제사회에서 꼭 필요한 학문들을 배우고 있고, 그 중에서도 국제경제학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국제경영학 과목과 국제무역투자론 과목이 저에게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 위기와 공급망 이슈로 전세계가 혼란스러운 현 시국에서 해당 수업들을 수강하며 저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이 세워나가야 할 비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직종을 찾아보던 중 국제통상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글로벌한 시각에서 대한민국의 통상 관련 이슈를 다루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호기롭게 도전해 보고자 하는 마음은 생겼으나 막상 로스쿨 준비를 시작하려고 보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되어 국가 경제와 자국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살고 싶다는 사명 의식은 생겼지만, 사실상 제가 법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법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고 관련 활동들이 다양하게 마련된 봉사활동을 찾게 되었고, 이러한 계기로 이번 학기에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필수활동이었던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더불어 미국 유타 주 헌법 번역활동에 주력을 다했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서는 다양한 기관의 사업 현황에 대한 현직 국회의원들의 감사 현장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각 부처와 기관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올바른 민주주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같은 활동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번 학기에 미국 유타주 헌법을 번역하였습니다. 저는 국제학과에서 모든 수업과 소통을 영어로 진행하고 있고, 어려서부터 영어로 공부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터라 다른 활동들보다는 비교적 수월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국가별 문화 및 용어 차이로 인해 국내법률용어에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를 찾기 힘들어 해외 법률 사전의 영영풀이까지 참고해야 했습니다. 과정이 분명 쉽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싶은 만큼 영문 법률 용어에 익숙해지는 것은 필연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번역 활동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성취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신 법률연맹 담당자분들께 감사하고, 다음 학기의 봉사활동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일반 정 ○ 보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중국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 한명으로 태어나 내가 '최고' '운

리 원'이 될 것이다.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나라보다 어렵겠다고. 그러면서 그동안 특별한 사람이 되겠다. 멋진 사람 좋은 사람으로 성공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데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해온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한 지도 5년차가 되어가고 나이도 30살이 되었습니다. 항상 어딜 가든 내가 속한 곳에 충실하는 버릇이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때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지나고 보니 또 새롭게 하고 싶은게 생기고 지난 시간동안 그것을 위해 노력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만약에'병에 걸려버렸습니다. 마음이 좋진 않습니다. 어쩌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편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구태여 스스로 힘든 길을 선택하고 가려 하는것 같아서. 그리고 제일 문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인 노력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정말 달라져야겠습니다. 법률소비자 연맹 봉사활동 현장도 방문 하면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이를 수 있도록, 제 꿈을 이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 새로운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정 ○ 연

봉사와 성장

법률 관련 활동 및 수업을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첫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다른 매체를 통해서 법률 봉사활동이 어렵다라는 고정관념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를 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법학 관련 전공이 있었다면 더욱 도움이 되었긴 했겠지만, 관련 지식이 부족해도 나눠 주시는OT 자료나 참고보고서들에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 되어있어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다만 처음 접하기에 법률들을 해석하고 요약하는 과정들이 시간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 더 소요되긴 했으나 그 또한 봉사하는 마음이기에 너무나 보람찼고 개인적으로도 판결문을 읽는 능력, 요지를 빠르게 찾는 방법을 기른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읽으면서 '어떠한 법률에 근거하여', '어떠한 과거 재판 결과에 근거하여' 등의 여러 재판결과나 참고법률들을 예시로 들어가며 쟁점의 결론을 도출해 가는 과정이 논문을 읽는 방법과 비슷하다고 느꼈기에 더욱 흥미롭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또 다른 봉사활동인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할 땐 현장 요원으로도 참여했었습니다. 국정감사를 보며 각 기관들의 업무 수행결과 및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좋았으며 동시에 이 또한 정치의 일부이기에 정치적인 색이 짙은 질의응답도 많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보완해 나가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할 수 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이석 시간을 체크하고 각 질문의 요점을 정리하며 '국정감사' 그 자체를 감시하여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기본도 많이 느꼈습니다.다음 번에 봉사활동이 열린다면 그때는 더욱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도움을 드리며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고려대학교 정부행정학부 정 ○ 한

안녕하십니까, 법률소비자연맹 대학생 봉사단 가을학

기 봉사활동에 참가한 고려대학교 정재한입니다.

2023년 9월, 가을학기를 시작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였던 봉사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3개월의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 활동을 끝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검사를 꿈꾸며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대학 후배의 소개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대해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확립과 공정한 사법심사 및 집행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저의 신념과도 맞아 지원하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은 평소 관심 분야였던 사회, 노동, 행정 분야의 판례들을 직접 읽어보고 검색하면서 최근 사법부의 판결 동향과 트렌드에 대해 좀더 심도있게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단순히 판결문을 읽고 요약하는 것을 넘어, 해당 분야의 추가적인 독서와 고찰 등은 법철학적 사고를 통해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법감정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평소 관심있는 범위를 좀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 봉사활동에도 지원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세대학교 융합인문사회과학부 정 ○ 원

학교 안에서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는 직접적으로 사법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는지 알기 어렵고, 1학년 학부생으로서 전공수업도 많이 듣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번 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법이 어떻게 역할하는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은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서 가장 처음으로 참여한 활동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법원에 누구나 방청을 갈 수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법원 방청은 매우 엄숙하고 진중한 분위기로 쉽게 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활동을 통해 사법부가 모든 국민에게 열려있는 개방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고,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재판 방청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참여하게 된 첫 방청은 드라마에서만 보던 재판과 달리 실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때 형사법, 저작권법 등의 법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실제 재판 절차에 대해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작권(미국수능SAT)법 위반 사건의 수사과 재판을 국민과 역사에 고발한다"는 명칭으로 진행된 이 판결은 원심판결로부터 시간이 꽤 지난 사건이라 재판장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예상과는 달리 차분한 분위기에서 서면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실제 재판 분위기가 어떤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번역봉사를 하면서는 미국 헌법과 우리나라 헌법이 가진 다른 부분들을 알아볼 수 있어 인상 깊었습니다. 대륙법을 차용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미법계의 미국 헌법은 비슷하면서도 꽤나 다른 부분들이 많았고, 번역 과정에서 그러한 차이점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영미법적 특성에서 차용하여 우리나라 헌법을

보완할만한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활동은 판결문리서치활동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법률 분야에 관심이 있더라도, '적극' '소극' 혹은 '원심판결 파기환송' 등의 법률적 용어 이해가 어려워 판결문을 접할 기회가 있더라도 잘 읽어보지 않았고, 판결문을 찾는 방법이나 판결번호를 읽는 방법 등을 알지 못해 직접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어떤 식으로 판결문을 찾을 수 있는지, 또 판결문에서의 쟁점 파악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확한 방법을 배워갈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학교에서 수강하는 법 교양에서의 이해도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의 관심분야인 '지식재산권법' 관련 판결문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해보았는데, 무형의 재산이 가지는 불확정성이 쟁점 파악 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고 다각도로 쟁점을 찾아 판결문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리서치 페이퍼 마지막 장에 있는 '다른 판결을 내릴 것인지, 내린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지'에 대한 질문에 매번 생각해보면서 다른 관점에서의 판결을 생각해보고, 판결이란 적절하고 정확한 법리 이해에 달린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학기말에 참여하게 된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 역시 뜻깊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생겼음에도 국정감사를 한번도 모니터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처음 시정한 국정감사활동이라 어떤 방식으로 보고서를 써야할지 헛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동안 국정감사를 꼼꼼히 시청하고, 국회의원들이 질답하는 내용들을 보며 각 장관들이 유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학기도 봉사를 신청할 예정인만큼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저에게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봉사를 하며 더욱 더 사법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으로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 성신여자대학교 독일어문화학과 조 ○ 민

그동안 봉사활동 경험이 전무하기도 했고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제 전공 및 진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 이번 학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가을학기 사회봉사활동으로는 국정감사와 법정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학기에 학과 수업이랑 병행하느라 바거운 점이 없잖아 있었지만, 그래도 알찬 활동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국정감사모니터링 활동은 총 3회, 법률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한번은 현장감사를 신청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군사법원 국정감사장 현장으로 방문해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뉴스와 기사로만 보던 국정감사장에 제가 와있다는 사실과 처음 실물로 보는 국회의원들이 마냥 신기했습니다. 또한 이제껏 국정운영을 어떻게 하고 관리하는 누가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었으나, 스스로 그 자리에 서서 운영 보고를 듣다 보니 국회의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감사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현장감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원회에서 시나 도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감사도 온라인으로 챙겨보았는데, 감사가 진행되면서 제가 관심이 없는 다

른 사회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을 알 수 있어 시선을 넓히는 것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국회 사이트에도 여러 번 들어가 보며 우리나라 국정운영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얼핏 느낄 수 있어서 더욱 뜻 깊은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법정모니터링 활동으로 총 9개의 다른 재판부가 운영하는 법정에 들어가 방청해 보았습니다.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단지 방청인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 의미는 남달랐습니다. 제일 관심이 많았던 것은 아무래도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지만 재판부와 재판 형식의 다양성을 보기 위해 소액사건 및 행정사건 방청도 한 번씩 포함해서 진행했습니다. 법정모니터링을 하며 사건별로 재판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독 기억에 남는 것은 마지막에 들어갔던 형사법정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두어번 형사법정에 들어갔었으나 그때 증인신문이나 아직 피고인 신분으로 구속되기 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들어간 곳은 유독 사람이 많았고, 교도소 교정위원들도 방청석에 앉아 있어 들어설 때부터 위압감이 사뭇 달랐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피고인이자 증인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수감되어 교도소 복장을 갖추고 있었고, 전에 봤던 다른 법정보다 질문도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앞으로 제가 서고자 하는 자리가 저 형사법정의 검사 자리라고 생각하자 좀 더 집중하게 되었고 검사님이나 변호사님이 하는 질문들도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리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안도감과 함께 사건진행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세세하게 알 수 있었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가짐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가을학기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제일 크게 느끼는 점은, '그래도 끝까지 해냈다' 라는 뿌듯함입니다. 아무래도 학기 중에 봉사활동을 병행하는 것이고, 처음 해보는 봉사활동이다 보니 벅차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활동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으로써의 하나의 역할을 했다는 뿌듯함이 가슴에 남습니다. 또한 평상시 쉽게 접하지 못하는 기회와 정보들을 통해 다양한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제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봉사활동에 다시 한번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 단국대학교 법학과 조 ○ 큰

이는 대외활동을 일절 하지 않던 내가 난생 처음으로 참여하게 된 2023년도 가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대한 소감문입니다. 나는 로스쿨과 관련된 대외활동을 찾던 중 어느 한 블로그에서 법률소비자 연맹이라는 단체와 법률봉사활동을 알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대외활동을 일절 하지 않아 불안한 마음이 있었고, 마침 내 전공과 관련된 법률 관련 봉사라는 정보에 바로 신청하게 되었다. 처음 신청할 때는 최대한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려 하였으나, 학기 중 여러 변수가 생기게 되어 생각만큼 다양하게 참여하지는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나는 판결문 리서치와 국회 국정감사 모니터링에 참여하였으며, 이중 판결문 리서치는 내가 지금껏 학과에서 배워왔던 지식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내가 선택한 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문이었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은행에 착오로 자금을 송금하여 수취은행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였는데, 민법에서 배운 바와 같이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어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은행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기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기각당하였다.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에 대해 공부한 경험이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구조와 법원의 판시내용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으나, 직접 판결문을 찾아보고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니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지식이 확실히 체화되었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의정활동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 수 있었던 새로운 기회였다. 나는 평소 언론을 통하여 국정감사에 대해 피상적으로 접할 수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는 잘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나는 자연스럽게 국정감사를 정당한 이념논쟁과 무질서로 점철된 아수라장으로 생각해왔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감사위원마다 질의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으며, 해당 피감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잘 분석하여 질의하는 감사위원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여야가 치열하게 논쟁을 펼치는 과도도 상당히 흥미로웠다. 그러나 증인의 불출석 및 요구 자료의 미제출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도 있었다. 만약 이와 같은 활동이 없었다면 여전히 나는 국정감사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법률관련 봉사활동을 통해 법이 사회에서 작용하는 원리에 대해서 알게되었고, 조금이나마 시야가 넓어진 느낌도 들었다. 다음에도 만약 기회가 있다면 법률연맹에서 봉사활동을 이어나가 이번에 참여하지 못했던 법정 모니터링에도 참여하고 싶다.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조 ○ 희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조성희입니다. 한 학기동안 학점봉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한 법정모니터링+ 국정감사는 실제 법정에 가서 재판을 참관하며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바람직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던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재판도 행정, 소액, 민사, 형사를 두루 볼 수 있었으며, 재판부마다 분위기가 달라서 그 차이를 몸소 볼 수 있었던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형사 재판의 경우, 죄질이 나쁠수록 더 엄숙하고 다소 딱딱하다고 느낄만큼의 분위기로 진행되었고, 민사는 이보다 더 부드러운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실제 법관분들과 검사분들은 특히나 찜들어 있다는 인상을 줄만큼 재판에 몰두해 계신 모습이어서 그 분위기가 더욱 잘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전공이 경찰행정인만큼 법과 관련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해줄 수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부족해 더 많은 재판을 보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이후에 한 번 더 신청해도 좋겠다는 생

각이 들만큼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들인 노력과 시간에 비해 인정되는 봉사활동 시간이 적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었습니다. 학업과 병행하면서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좀 더 봉사활동에 열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주변 교수님들과 법원 직원분들의 친절함에 보다 수월하게 진행되었기에 다행이었습니다. 법정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억은 바로 형사재판이었습니다. 사기 관련 재판이었는데, 실제 재판이 끝나고 바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놀라서 자신이 왜 구속되냐며 판사님에게 계속 따지고 법원직원이 안으로 들어가셔서 말씀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도 계속 들어가지 않고 버텼습니다. 주소지 이전을 하고 이를 법원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에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은 할 일이 있다며 이견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이 상황을 두 눈으로 보니 놀라기도 하였지만 정말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더 놀라서 이 장면이 더 인상 깊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 ○ 수

2023년도 가을학기가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첫 봉사 활동이었습니다. 최근 법에 관심이 생겨 '법과 관련된 대외활동을 찾아보다가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모집 안내문을 보면서 국정감사모니터링, 언론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등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다양하여 큰 기대를 갖고 봉사자로 자원하였습니다. 이번 학기에 진행된 활동 중 저는 필수 활동이었던 국정감사모니터링, 번역봉사, 그리고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시간이 맞지 않아 법정 모니터링은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활동만으로도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저는 총 두 번의 국정감사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대전고법 등 15개의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하여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였습니다.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부산 돌려치기 사건'의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나와 진술한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 조금 솔직해지자면, 저는 언론이 보도하는 사건의 단편적인 면만 보고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아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법원이 피해자의 공판 열람 신청을 거절하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문서를 열람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법원이 이러한 한 점은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범죄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 양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 사건이 이후에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까지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두 번째 모니터링은 환경부, 기상청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여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관련 질의였습니다. 이때도 관련 참고인이 나와 진술하였는데,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정감사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공간이기도 하다는 점이 크게 와 닿았습니다. 또한, 정책 결정 시 인근 주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전반적으로 국정감사모니터링 활동은 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국정감사의 취지를 다시금 떠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활동으로 영국 법정변호사 행위규범 번역봉사를 하였습니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직역으로 말이 자연스럽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규정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하며 해석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일반적인 내용처럼 보이는 변호사의 행동을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변호사 윤리강령과 비교하여 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 활동입니다. 제가 다룬 사건은 행정소송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행정법을 배우면서 항고소송에 관심이 생겼었는데, 이번 판결문 리서치를 기회 삼아 1심, 2심, 3심 모두를 살펴볼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판결문의 내용도 길고 익숙하지 않은 법률 용어도 많아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의 반복과 쟁점이 쉽게 구분되어 있어 다행히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제가 다룬 사건에서는 법령의 특정 규정은 다른 법령과의 관계 속에서, 거시적 관점에서 해석하여야 함을 새롭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3심으로 갈수록 새로운 근거가 추가되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3가지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이슈를 대하는 자세,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새로운 시각을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건전한 정책, 사법 작용에 간접적으로나마 기여한 것 같아 이번 학기를 보람차게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채 ○ 진

3번 이상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했었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가을학기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한 점이 가장 뜻깊었습니다. 평소라면 기사 헤드라인 정도로 국정감사 이슈를 가볍게 접하고 넘어갔을텐데,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선택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를 최소 3,4번 반복해서 돌려보며 기사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국정감사의 분위기와 의원들의 기싸움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야를 떠나 국민의 이익을 따져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질의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정당의 이익만 대변하고 피감기관의 입장을 오히려 나서서 대변만 해주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일년 중 유일하게 피감기관의 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인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비판적인 질문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피감기관 장들의 고려해보겠습니다, 인지하고있습니다 등 무책임한 간결한 답변을 예상 외로 자주 하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의원들이 할 예상 질의 사항을 대비하고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명할 부분과 개선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과 같이 국민 건강과 노인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도맡아 하고 있는 중 공공기관 장일수록 개별 사안들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현장의 불만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답변하는 기관장의 태도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모니터링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평소에도 주요 국가 공공기관 및 정부부처의 크고 작은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다짐했습니다.

더불어 3개 판결문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하며 판결문의 구조를 익히고 개별 사건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일부 대법원 판결 결과만 뉴스로 간단히 알고 넘어갔다면,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서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나름 판결문 전문가가 공개가 된, 의미 있는 판결을 1심에서부터 찬찬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양국 합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사건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해당 판결을 모두 읽어본 결과 대법원이 12-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가 도출된 과정과 관련 논란을 더 고려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 합의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최종적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처럼 생존자도 얼마 남지 않았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상 찾아보기 어려운 비인도적인 억압이 타국에 의해 이뤄진 사건이었던 만큼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중국적인 합의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복잡한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고, 일본뿐만 아니라 향후 여러 국가들과 진행될 합의에 안 좋은 선례를 남기지 않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성 없는 일본의 사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명목적으로나마 일본에게 책임감 있는 역사인식 함양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대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기는 어려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채 ○ 진

주권 시민으로서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을 감시한다는 오티 자료를 살펴보며 고취된 의욕으로 이번 가을 학기 봉사활동에 임하게 되었다.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이번이 처음으로, 가을학기 봉사활동으로 필수 항목인 국정감사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위스콘신주 헌법 번역과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진행하였다.

국정감사 기간인 10월 중 진행한 모니터링은 기획재정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감사 당일 기재위에서는 미국의 고금리로 인한 한국 경제의 상황에 대한 논의 및 저출생 문제의 해결 방안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질의와 예산 삭감에 대한 구체적 질의 및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개별적 이슈들이 주가 되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사회경제 문제의 해결에 국가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내실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가 이루어졌으며, 파행도 없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문

체위에서는 국내외 전시에서 발견된 역사왜곡이나 공정성 시비 등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대한민국 국역사박물관에서의 한미동맹 전시는 공정성 문제에 대해 위원들 간 시각차가 있었던 이슈였다. 또한 문화계 지원이 탄탄하게 이뤄지도록 미흡했던 부분을 짚었던 위원들의 모습도 기억에 남는다. 예전에 청년 문화 예술인의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이 있는데, 비수도권 지역에서 공연 활동을 하는 데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지원이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겠다고 생각했다.

대륙법계를 취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미법계인 미국의 위스콘신 주 헌법을 번역하는 것도 흥미로웠다. 특히 이번 번역 부분은 자기 부죄 거부 원칙에 대한 내용이었다. 우리 헌법 12조 2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술거부권은 미국 수정헌법 5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영문을 번역하면서 위스콘신주의 다양한 사안에서 방어권 논리의 적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규범의 적용에 미묘한 유연성을 보였던 것이 흥미로운데, 예를 들어 "선의의 예외" 같은 것이 그러했다. 우리나라 행정법에서 행정행위에 약간의 흠이 있더라도 그것의 법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구상금 판결을 선정해 수행하였다. 현재 공부하고 있는 행정구제 내용 중 국가배상법 2조와 5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그 내용에 따라 잘 보장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판결이기도 했다. 판결문에 당사자에 관련된 정보는 잘 드러나 있지 않았지만 사실관계와 쟁점은 명확하게 잡혔다. 재판의 전제가 된 국가배상은 군총기 사망사고의 은폐라는 매우 안타까운 내용이었다. 늦게나마 대한민국은 유족에게 배상을 해주었고, 이번 재판은 원고 대한민국이 배상한 금액에 대해 피고 들에게 구상을 요구한 것이었다. 1심부터 대법원의 판단에서 나타나는, 피고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구조적 문제 및 국가의 관리 책임 또한 적지 않다고 보았던 태도가 인상 깊었다.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최 ○ 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정의를 수호하는 데 일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법조인의 꿈을 꾸었습니다. 학교에서 여러 법학 과목을 수강하며 어느 정도 법학적 소양을 쌓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법을 공부하며 그것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한 경험이 없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를 통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사회 봉사활동을 알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가을학기에 저는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미국 조지아주 헌법 번역 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부끄럽지만 평소 저는 정치에 큰 관심이 없어 모니터링을 하기 전에는 국정감사를 언제, 어떻게 진행하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가을학기 필수 활동이었기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하게 되었지만, 돌이켜 보면 봉사활동 기간 중, 나아가 이번 학기 중 가장 의미 있는 경험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주요 국가기관의 국정이 국민을 위해 수행되고 있는지, 나아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기에 모니터링의 취지에 공감하고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정치, 경제적 이슈를 조사하며 새로운 지식도 습득하였습니다. 또한, 거창한 활동이 아니더라도 사회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뜻깊었습니다. 앞으로 봉사활동이 아니더라도 매년 국정감사 기간에 주요 기관과 관심 있는 기관의 국정감사를 찾아볼 것 같습니다.

번역 봉사의 경우 가장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신청하였으나, 생각보다 해당 주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적절한 법률 용어를 사용하여 번역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번역한 헌법 내용이 추후 무언가에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임하였고, 영어 번역 경험과 어휘력을 쌓을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소중한 봉사활동 경험을 하게 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최 ○ 윤

이번 학기, 처음으로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참여한 활동은 '사법감시배심원단'의 일원으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특히,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사건과 SAT 저작권법 위반 관련 항소심 재판에 참관했습니다. 법원에 처음 가 보는 것이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법의 중요성과 공정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며, 국정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보았던 것처럼 목살을 잡는다거나 극심한 말다툼이 이루어지지 않는 않지만, 생각보다 격렬한 분위기라 놀랐습니다.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며, 정치 및 정책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갖게 되었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중요한지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각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고, 실행되는지에 대한 이해는, 사회와 정치에 대해 보다 깊이 사고하고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제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은 단순히 정책 결정 과정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 저에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일리노이 주의 헌법을 번역한 경험은 제 언어 및 법률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총 20페이지에 달하는 일리노이주 헌법의 한글 번역을 담당했는데, 이는 단순한 언어 번역을 넘어서, 미국의 법 체계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그 의미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저는 법률 용어와 표현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 맥락과 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과정은 제 언어 능력과 함께 문화 간 소통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미국 헌법에 나타난 가치와 원칙들을 고려하며, 다른 문화와 법 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번역 활동을 통해 저는 다국적 문화와 법률에 대한 지식을 확장할 수 있었으며, 이는 글로벌 시민으로서 제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리노이주 헌법에 담긴 다양한 인권과 자유에 관한 조항들을 번역하며, 저는 법의 중요성과 국가적, 문화적 가치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가 다양한 국가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와 사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번역 봉사 활동은 제게 단순한 언어 전달을 넘어서, 세계에 대한 이해와 연대감을 느끼게 하는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봉사 활동들을 통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의 봉사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다음학기에도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해,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자 합니다.

○ 건국대학교 음악교육과 최 ○ 연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 시작한 봉사였는데 이번 추계 봉사 기간 동안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주 가면서 재판부(법원)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사실 법은 사실 관계를 입증해서 그에 맞는 법 조항을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단순하고 일차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법정 모니터링을 하는 동안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던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

법정 방청을 하며 (민사재판인 경우) 원고와 피고 측 법정 대리인이, (형사 재판인 경우) 피고 측 법정 대리인은 서로 주장을 하기에 앞서 준비 서면, 참고 자료 등을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 관계를 입증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보였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은 증인 심문만 2시간 진행한 형사사건이다.

경제사기와 관련된 사건으로 증인 심문만 2시간 넘게 진행하였는데, 검사, 그리고 피고인들 측 변호사들이 단 한 명의 증인에게 상대방의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는, 혹은 자신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며 증인에게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노력하던 모습이 너무 흥미진진했다. 단순한 질문을 던진 변호사도 있었고, 정말 고차원적으로 압박하면서 증인을 정신없게 만들어서 답을 유도한 변호사도 있었다. 이처럼 변호사마다 증인 심문하는 방법이 달랐는데 논리적으로 증인이 빠져나갈 수 없지만 증인 자신은 변호사 혹은 검사가 원하는 답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질문을 던지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다. 이때, 왜 법학 적성에 '논리가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법정에서 이와 같이 사실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원고-피고, 검사가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법정에서는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며, 입증이 우선적인 목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법정에서 사실 관계의 입증에 관해서만 다루는 것은 아님을 알게 되었다. 어떤 사실 관계와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어떤 법 조항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 받기도 하였다. 특히, 형사 재판(항소심)의 경우, 사실 관계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없다면, 그 피고인의 고의성 등을 따져서 감형으로 선처해달라고 요청하는 변호사도 있었다.

이번 법정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민사 재판의 재판부가 원고, 피고에게 조언을 주던 모습이다. 재판부는 원고, 피고 측 법정 대리인에게 사실 관계 입증에 대해 필요한 서류 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디서 어떤 서류를 받아내야 함 등을 말하며 조언을 주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재판부는 법을 적용시켜 선고만 내리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엄숙하게 재판을 진행하되,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에게 서슴없이 필요한 질문을 던지는 모습도 인상 깊었다. 재판부는 원고, 피고 측이 제시한 서류만을 보며 소극적으로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사건을 이해하고자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긴장한 사건 당사자에게 현 재판 상황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풀어 설명해주는 모습도 인상 깊었다.

이번 봉사를 통해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더욱 커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법정에서 변호사, 검사, 그리고 판사의 모습을 보며 내가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어서 봉사 활동을 하길 정말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최 ○ 서

법률연맹 봉사활동을 한 학기 동안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평소에는 해보지 못했던 법률 및 국정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법조인이라는 꿈에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판결문리서치, 법정 모니터링, 법률번역 등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법과 판결문을 접하면서 법적인 지식과 개념을 많이 쌓을 수 있었고, 단순히 법전이나 책을 읽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법률을 접하고 공부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이번 학기는 국정 모니터링이 필수였는데, 덕분에 처음으로 내가 직접 국정감사를 찾아서 보게 되었다. 정치분야는 잘 모르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으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뉴스에서 다뤄지던 이슈들이 대부분 다뤄져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많이 없었던 것 같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했던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이번 계기를 통해 많이 알게 되었고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나 검찰에서 현재 다뤄지고 있는 사안들에 더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었다. 국정감사를 떠올리면 국회의원들이 싸우거나 소리치는 장면이 고정관념처럼

남아있었는데, 내가 모니터링 했던 국정감사는 생각과 다르게 전혀 그렇지 않았고 많은 의원들이 성실하게 본인이 찾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공유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현시대의 국정문제 등의 발생원인 및 책임소재를 찾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알아야 할 사안들을 다룬다고 생각했고, 장래에 열릴 국정감사도 찾아서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번 학기 가장 많이 한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 활동이다. 수업시간에 많은 판례를 접한 바 있지만 제1심, 제2심 및 3심의 모든 판결문을 찾아보고 전문을 읽고 정리해본 것은 처음이라 매우 흥미로웠다. 글이 길고 복잡하게 쓰여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글이 긴 이유는 그 문장 안에 판결의 모든 논리를 담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글을 읽으면서 판결문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적힌 글인지를 깨달았고, 법정의 논리를 하나씩 읽어 내려가다보면 그와 같은 판결이 나온 이유를 알 수 있어서 해당 사건에 관한 법정의 판단과 양형기준 등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다. 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에게는 판결문처럼 좋은 학습자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실제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알고 싶은 주제나 법률적 개념 등에 관한 판결문을 찾아 정리하였는데, 이를 통해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고 또 논리를 직접 적용해 볼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또한 스스로 어떤 판결을 내리는 것이 타당할지 생각해보기도 하고, 이에 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 각 법원의 입장도 다각도로 생각해볼 수 있어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봉사활동이 끝나더라도 수업 시간에 공부한 것 중 더 심화적으로 공부해보고 싶은 내용을 찾아 스스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계속해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 동국대학교 법학과 최 ○ 준

동국대학교 참사랑사회공헌센터의 사회봉사 교과목을 통해 법률소비자연맹과 함께 '봉사'라는 뜻깊은 행동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까지 살아오며 '봉사'를 단순히 어려운 사람이나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금전이나 노동을 무보수로 행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왔다. 정말 우연히 학우의 권유로 시작한 사회봉사 교과목에서 봉사가 비단 어려운 이를 돕는 것 뿐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순환과 사회구성원간 조화를 이뤄내기 위한 선의를 가진 사람들의 노력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필자가 사회봉사교과목 중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의 사법감시모니터링 및 국정감사모니터링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하다. 필자의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무를 진행하는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입법부 3권분립의 형태가 대한민국의 땅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며,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데 대한 궁금증을 품었기 때문이다. 비록 실제 법원을 방문하여야 하는 사법감시모니터링은 이동 시간의 문제로 인해 1회밖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법부 즉, 법원에서 재판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며,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드라마틱하고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다소 일반적인 사회분위기를 풍기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무는 필자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

졌다. 또한, 모니터링 문항을 통하여 이런 법원의 분위기가 각 법원, 그리고 법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적극적이지 못하고 피고나 원고를 편파적으로 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필수적임을 깨달았다.

그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모니터링을 통하여도 많은 것을 깨달았다. 필자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견제 과정에 대해서 평소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언론을 통하여 보아온 국정감사는 다소 거친 연변이 오가며 정해진 시간들을 넘어서서 발언하는 등의 자극적이지만 한 장면이었다. 물론 실제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행태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들은 우리 국민을 대변해야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국민을 위하여 발언하는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각기 당에 따라, 그리고 정부의 주장인 대통령의 소속 당에 따라 정부부에 대한 태도가 판이하게 달랐고, 중립을 지켜야하는 위원장 역시도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사법감시모니터링과 같은 이치로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활성화되어야 하며, 국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서도 많은 국민들이 이에 동참해야함을 알았다.

이런 봉사활동을 통하여 봉사의 정의를 새로이 할 수 있었고, 더 넓은 시야에서 국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되었고, 비단 봉사라는 명목을 벗어나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최 ○ 원

학교를 휴학하며 휴식과 더불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자 할 때, 마침 법률소비자연맹에서 가을학기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와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 있어 폭을 넓히며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지원해 가을학기에 활동하였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대체하여 보내주신 자료들을 읽고 회신을 하는 과정에서 연맹의 활동 취지 및 존재 의의를 알게 되어 더욱 좋았습니다. 또한 안내해주신 다양한 봉사활동들 중에서 법정모니터링, 판결문리서치, 국정감사모니터링 활동을 하였고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법정모니터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였지만,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하고 직접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방청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건번호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어떠한 죄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면서 기본적인 법적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봉사활동으로는 건축, 건설 등 전공과 관련 있는 판례들을 알아보고 싶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민사 소송 판례들을 찾아 리서치하였습니다. 전공 공부를 하면서 들어본 친숙한 단어들도 비교적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해 처음 읽었을 때 매우 어려웠습니다. 정해진 양식에 어려웠던 단어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거치고 요지를 정리하면서 유익하고 보람찬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주점유의 추정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두고 원심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리서치한 것이 판결문리서치 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없더라도 어떻게, 무엇에 초점을 맞춰 유권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

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전공과 비교적 관련이 있는 국가 기관들을 살펴보고 싶어서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부 산하 아홉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민생과 관련하여 전세 사기가 급증한 실태에 대한 질의가 많아서 더욱 더 집중해서 모니터링을 해야겠다는 책임감 또한 들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행한 것도 모니터링을 하였는데 마찬가지로 현 실태에 대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후쿠시마 및 인근 여덟 개 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모습들을 보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국정감사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가을학기 봉사활동 기간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또한 법조인이 되어 사회에 기여해야겠다는 꿈을 더욱더 확고히 하게 된 시간이었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어 매우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전공 공부 및 법 공부를 소홀히 하지않고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 되고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뇌 · 인지과학부 최 ○ 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023년도 가을학기에 처음으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에 참여한 최○윤입니다. 진로를 고민하던 중에 우연히 법과 관련된 다른 체험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법 관련 진로에 흥미를 가지게 되어 봉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알차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이번 학기 필수였던 국정감사 모니터링, 그리고 언론모니터링 활동 중 10대 일간지의 사설 분석을 하였는데 둘 모두 얻어가는 게 많은 활동이었습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저는 국회의원들의 정확한 업무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국정감사'라는 것이 진행되는 것은 알았지만 거기서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국정감사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국회의원과 참여 인원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몸소 느끼게 되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에서는 실제 국회의원들이 감사기관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고집고 질책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보며 정치의 실제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떠한 화제에는 굉장히 많은 의원의 관심이 모이는데, 반대로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주제들을 보면서 소외된 주제나 그와 관련된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관심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치 결정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입장이 작용하며,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낯선 경험인 것에 더하여 긴 국정감사 진행 시간까지, 첫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아주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완성한 후에는 국정감사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와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이해가 생겨서 두 번째 국정감사의 진행 시간이 훨씬 길었음에도 훨씬 수월했습니다. 단순히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낯설고 어려운 일에 점점 익숙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10대 일간지의 사실을 정리하는 일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입장과 성향이 다양한 신문사들의 사실에서 각각의 주장과 입장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능숙해지면서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범주의 주제에 대한 다양한 방향의 의견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되는 쟁점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 정리하는 경험이었던 때문에 지금의 세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커졌습니다.

가장 감명 깊게 느낀 것은 다양한 신문사 간의 입장 차이에 따른, 같은 화두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였습니다. 막연하게 보수 성향을 가진 언론사와 진보 성향을 가진 언론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번 정리를 통해서 어떤 신문사가 어떤 성향을 가지는지 직접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각 신문은 자체적인 시각과 강조점을 가지고 보도하며, 이를 통해 어떻게 사실이 작성되고 신문사의 입장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반드시 신문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정부를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앞으로 저와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정치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겠다고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은 저에게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아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어려운 것을 극복하는 힘과 넓어진 시야가 쉽게 얻기 힘든 소중한 경험이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 학기의 봉사활동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 단국대학교 화학공학과 최 ○ 지

저는 2023년도 여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가을학기 사회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평소 법조계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봉사활동 모집에 지원하였습니다. 제 전공과 법조계는 전혀 관련이 없었기에 평소 이와 관련된 분야의 활동을 쉽게 접하지 못하였던 제게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가을학기 동안 판결문리서치, 국정감사 모니터링 등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가장 먼저 판결문리서치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파기환송'에 관한 판결문에 대해 리서치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어머니와 동거남이 두 아이를 학대하여 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평소 범죄 사건에 관해 관심이 많던 저는 이 사건에 대해 단순히 판결문 리서치를 위함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에 이끌려 관련 기사와 자료들을 더 자세하게 조사하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분노의 감정 때문에 1심과 2심에서 징역이 제 스스로가 생각했던 형량에 미치지 않는 것을

보고 더 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통해 어떠한 경로로 그러한 판결이 나왔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고 누구 하나 억울하지 않도록 섬세하고 꼼꼼하게 증거와 복잡한 정황을 모두 다 파악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는 피고인 측에선 어떠한 근거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판결은 다소 주관적인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편견과 오해 없이 공정한 판결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 또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했던 국정감사모니터링의 활동은 국회의원들이 이슈가 되었던 사안에 대해 각 피감기관을 제대로 감사하고 있는가에 대해 확인하고 점검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대검찰청과 환경부의 국정감사모니터링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를 점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각 피감기관들을 향해 어떠한 질의를 하고 있는지, 질의가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평소 국회의원들이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 환경부 및 대검찰청에서 어떤 사안들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잘 몰랐던 저에게 이번 국정감사모니터링은 이에 대해 알게 된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평소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질의해주시는 국회의원분들도 계셨고 이를 국민인 제가 모니터링함으로써 국정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주로 궁금했던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정감사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각 국가기관의 업무들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몸소 느꼈으며, 국민들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국정감사모니터링은 제가 견고한 국민의식을 가지게 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국정감사모니터링은 우리가 속해있는 한 사회의 활동들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의가 수호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으로서 직접적으로 점검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이와 같은 좋은 경험을 하게 되어서 기뻐했습니다. 법률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제게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국가의 성장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이 있는지 더 살펴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으나 모든 활동에 참여해보지 못했던 것이 아쉽고,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대면으로도 참석해보고 싶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활동들은 저와 같이 법조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년들에게도 사회의 정의 실현에 있어 뜻깊은 활동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표 ○ 연

이번 하기 가장 인상깊은 봉사는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였습니다.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고 판결문을 탐구하는 과정은 법조인을 희망하는 저에게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정치와 법률이 어떻게 현실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논

리의 정밀성과 꼼꼼함의 중요성을 더욱 깨달았습니다.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방법원에서 대법원으로 갈수록 논리구조가 탄탄해지고 처음 1심에서 생각지 못했던 논점들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면서, 한 사건에 대해서도 접근하는 깊이에 따라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또한 스토킹범죄에 대한 현실적 파악을 잘 한 대법원의 논리와 그에 따라 과하다는 반대의견과 혹은 스토킹처벌법의 입법취지를 잘 살렸다는 찬성의견들도 검색하여 보다 풍부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국정감사에서 현실의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국정감사에서의 이슈와 현실이 어떻게 얽혀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당원과 야당원이 서로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정리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소통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사능 관련 공기업에 대해서는 여당야당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슈인 일본 방사능 유출 이슈가 주된 논의였습니다. 국정감사도 결국 정치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척결에 관한 제도뿐만 아니라 가짜뉴스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오간 것이 인상깊었습니다. 언론통제와 가짜뉴스 관리 그 사이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떠한 해야 하는가 생각해볼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그것을 수용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오랜 시간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국회의원 그리고 국정감사 현장을 보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국정감사 회기록에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판결문 탐구를 통해 법률의 복잡성과 함께 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을학기 봉사활동은 무엇보다도 지식과 경험을 쌓는 기회였습니다. 국정감사와 판결문 탐구를 통해 정치와 법률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각과 능력을 배웠고 미래의 사회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 숙명여자대학교 수학과 하 ○ 은

이번 가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으로 재가했던 활동은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판결문리서치 활동이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에서는 올해 10월에 진행되었던 환경부와 교육부 관련 국정감사를 온라인으로 방청한 후 2023년도 각 부서의 핫토픽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중 각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을 정리하고 국회의원들의 발언 태도, 자료조사의 적절성, 자료조사의 양 등에 관한 평가를 하였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서는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가 된 사건에 대해 판결문을 읽고 어려운 용어 정리하기, 사건을 시간 순대로 보기 좋게 정리하기, 일반인이 보았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져있는지에 대한 판단 등을 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해보는 봉사활동일 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 학업

과 병행을 하는 봉사활동이어서 쉽지는 않았지만, 꽤 의미 있었던 봉사활동이었습니다. 평상시에 법에 관심이 많고 법조인의 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더 재미있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봉사를 하면서는 교육과 환경의 최근 이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고 국정감사 진행과정을 직접 본 것은 처음이라 더욱 신기하고 흥미로웠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 관련해서는 판결문이라는 것을 처음 접해봐서 읽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천천히 읽어보니 나중에는 속도가 붙으면서 재밌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할애한 만큼 값진 경험이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는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 외에 법원에 직접 가서 재판과정을 보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법정 모니터링 활동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학기 봉사활동에서는 모두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방학 때 다시 한 번 하게 된다면 오프라인 참여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활동 담당자분들께서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거나 모르는 점들이 있을 때 메일을 드리면 답을 친절하게 잘 해주셨고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공휴일에도 메일 답장을 최대한 해주시려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감사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나 자료를 제출했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하는 것 외에 봉사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에도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처음 해보는 봉사활동이었는데 바쁜 학기 중에도 무사히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한 ○ 환

입법을 지원하는 법조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시작한 이후로 공부한 것들을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다는 열망이 항상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공자도 아니고 학부 법학 수업을 몇 개 수강한 수준에서는 딱히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던 중에 지인으로부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대학생들이 판결문 리서치나 국정감사 모니터링 등 법적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수준에서도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하여 법률소비자연맹에 지원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한 봉사활동은 사법감시 모니터링이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의 모니터링이었는데, 내사사건이었음에도 압수수색·강제수사·피의사실공표 등 피고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인 행태가 많이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만큼 사법감시의 필요성이 큰 사안이었다. 태어나서 처음 법정에 가보는 만큼 조금 긴장도 되었고 사건에 대한 사전자료도 모두 보고 갔지만, 재판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어려워 조금 당황스러웠다. 생각보다 사법감시의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지만, 다음 모니터링부터는 조금 더 철저히 준비해서 국가의 사법권 올바른 행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두 번째로 한 봉사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였다. 법률 배운 적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판결문은 거의 암호문자

라고 봐도 무방하다. 대학에서 처음 법학 수업을 접했을 때, 민법 판례들을 읽는 일이 너무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꼭 판결문 리서치 봉사를 하고 싶었다. 국가의 중요한 판례들을 기사 등에서 어느 정도 정리해 준다고는 하지만, 판결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심지어 내용을 편향적으로 전달하는 기사도 있다. 이러한 현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판결문을 분석하여 보기 쉽게 정리하고 그중에서 어려운 용어들을 정리하는 작업은 국가의 사법현황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기여하는 가장 큰 항목이라고 생각했다.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분야를 리서치하는 것은 리서치의 퀄리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학에서 배웠던 과목들을 중심으로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했고 좋은 경험이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나는 경찰청과 한국은행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했다. 그 이유는 위와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군복무를 경찰서에서 했고, 경제학과이며 한국은행의 각종 활동에 참여해 본 만큼, 두 기관 국정감사의 흐름을 잘 따라가며,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쟁점과 지적사항들을 잘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 사실 국정감사를 국민들이 모두 볼 수는 없다. 국정감사의 길기도 문제이고, 수많은 사안을 다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 그렇기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들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것 또한 생각보다 많은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법을 공부한 직장인이나 대학생들이 이러한 봉사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더욱 많이 배워서 더욱 많은 영역에서 국가의 법 시스템의 정의롭고 효율적인 집행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활동을 가능하게 해준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한 마음이다.

○ 단국대학교 법학과 한 ○ 은

법과 친해질 수 있었던 기회

법학과에 진학한 뒤, 이론적으로 법을 배우면서 어떤 법은 매우 어렵고 어떤 법은 너무 지루해서 법과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법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법정을 견학을 할까도 고민해봤지만 혼자 처음하는 경험이었기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소비자연맹의 자원봉사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 활동으로 봉사를 하면서 각종 법과 관련된 활동을 하기에 법에 대한 지루함을 없애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처음으로 했던 활동은 법정모니터링 활동이었습니다. 직접 주변 법원을 방문하여 방청하고자 하는 사건을 직접 선정하고 그 법정에 들어가 판사와 검사, 변호사, 피고인의 태도와 말투를 살피고 그에 대해 평가하며 사건의 전체적인 상황을 넓게 살펴본다는 점이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이론으로만 듣던 법이 어떻게 기소되고, 어떻게 변론하며, 어떻게 구형하고, 어떻게 선고하는지를 생생하게 알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로웠다. 실제 방문했던 법정은 상상했던 것보다 편안한 분위기였고 판사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증재와 과정을 유도하였습

니다. 검사와 변호인의 변론은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좋은 과정이었습니다. 방청을 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형량이 어느정도 나올지, 양형의 기준이 무엇인지 등 제가 스스로 법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도 방청을 하고 싶을 정도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했던 활동은 의정모니터링 활동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갑 김영주 국회의원과 경기도 수원시병 김영진 국회의원이 선거 때 세웠던 공약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이행되었고 어떤 면에서 부족한지를 직접 조사하고 파악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직접 공약의 이행을 꼼꼼하게 조사하고 평가하다보니 우리 국민 모두가 국회의원이나 각 지방자치단체 장들, 대통령의 공약을 꼼꼼히 검토하고 잘 이행하는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국민의 권리가 지켜지고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본인이 제시한 공약이 이행되지 않을 때 그에 대한 해명없이 넘어가면 그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국민이 이를 지켜보아야하고 그 역할을 직접 수행한 것이 뜻깊었습니다.

세 번째로 가을학기에 국정감사모니터링을 해보았습니다. 평소 "국정감사 시즌이다."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었고 어떤 기관이 문책을 받았고 어떤 의원은 고성을 질렀더라 등의 국정감사 이후 기사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국정감사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번 년도에는 어떤 국가기관의 활동이 문제가 되었고 이후 해결과정 및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더욱 꼼꼼하게 볼 수 있어 제가 더욱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구나를 느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철저한 통계자료나 수치 등을 가지고 예리한 지적을 하는 의원들을 보면서 본인이 조금 더 법과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한 시간이었습니다.

생활 속에 법과 관련된 활동이 많고 그 중 일부를 법률소비자연맹 활동을 통해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봄학기 봉사활동과 1학기가 겹쳐 많은 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의 봉사활동에도 참여하여 여러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봄학기 및 가을학기 동안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재밌었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함 ○ 나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여는 문이 되었습니다. 처음 참여하기 전에는 법률 분야에서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의 부족이 채워질 수 있는 기회로 봉사활동을 선택했고, 그 결정이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열정을 선사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저에게 법률 분야에서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주었습니다. 국정감사, 법정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법률 분야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고, 이 활동들은 저로 하여금 이론적인 지식 뿐 아니라 현실 세계의 법률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정감사는 중간고사 기간과 겹쳐 실시간 참여는 어

려웠지만, 중간고사가 끝난 직후에 빠르게 참여하여 국토교통부와 정부부의 국정감사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감사 절차와 중요성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모니터링은 판결문을 분석하고 사법 절차를 관찰하는 중요한 활동 중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 경험에서는 판결일에 진행된 신속한 판결 속도에 놀랐으며, 두 번째 활동은 불출석으로 인해 취소되었지만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비하는 법적인 준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판결문 리서치는 처음엔 샘플을 통해 접근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거치며 판결문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점차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뤄본 판결문에서는 이해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법률 분야에 대한 흥미와 열정이 더욱 높아졌고, 실무적인 능력을 키워가는 여정에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통해 저는 법률 분야에 대한 열정과 흥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경험을 통해 이를 극복하며 경험을 통한 성장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판결문 분석, 법정모니터링, 국정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현실 세계의 법률 문제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은 저에게 소중한 보물이 되었고, 앞으로의 학업과 직업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봉사활동은 단순히 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소중한 교육과 발전의 기회였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저는 법률의 본질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봉사활동이 단순히 시간을 내어 사회에 기여하는 것 이상으로, 저에게는 지식과 경험을 얻는 큰 기회로 다가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과 문의사항에 답변해주시고 보고서를 검토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 경험이 저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지식과 역량을 쌓아 더 나은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허 ○ 현

2023년도 가을학기 봉사활동에서는 크게 두가지 활동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가을학기 필수활동인 국정감사모니터링으로, 10월 13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10월 17일 진행된 문화체육위원회, 10월 20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새삼스럽게 국정감사의 중요도에 대해 알게 되면서 앞으로는 국민으로써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할 활동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산돌려차기남"등으로 불리며 사회적으

로도 큰 이슈가 되었던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282 사건이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공판 열람을 수차례 거절한 재판부, 허위진술이 빼곡한데도 가해자의 거짓말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시킨 검찰, 피해자 신원이 노출되는데도 민사소송을 권유해 보복범죄 원인을 제공한 법원 등 가해자 인권은 고려하면서도 피해자 권리는 찬밥신세로 두는 대한민국 법체계의 맨얼굴을 볼 수 있었다. 질의에 답변한 피감기관장 역시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통감하기에 미치지 못한 채 책임 면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더욱 안타까웠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위한 개선이 시급함을 느끼게 되는 활동이었다.

두 번째, 번역봉사활동이다. 법률 용어를 잘 번역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뜻의 단어로 해석하면 뜻이 완전히 변할 뿐 아니라 전체적인 헌법 내용의 문맥을 파악한 상태에서 번역해야 했기에 조문을 세세히 고찰할 수 있었다. 이번 학기에는 미국 동물복지법에 대한 번역활동을 진행하였다. 미국에서는 특히 개와 고양이를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인의 허가받지 않은 자가 개와 고양이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분기간 역시 따로 마련하고 있었다. 반려동물로서의 개와 고양이가 지니는 의미에 대한 미국 국민 전반의 사회적 합의에 대해 읽을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몹시 흥미로웠던 활동이었다.

활동 기간의 말미에 곰씹어보니 얻어가는 것도 많았지만, 가을학기 초반에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위의 두 가지 활동에 치중하느라 다른 다양한 활동에 접해보지 못했다는 점은 한가지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다. 기회가 되어 다음 학기에도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면, 판결문리서치 또는 법정모니터링을 통해 직접 행정사법절차를 견학해보면서 실질적인 형사재판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홍 ○ 우

법적 제도와 사회정치적 현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와 관련한 특별한 활동을 진행한 적이 없었던 저는 지난 학기까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친구의 소개로 2023년도 가을학기 봉사활동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 시작한 봉사활동은 저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선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법치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민주헌국과 법치안민의 이념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궁극적 목적인 평화와 번영을 성취하고자 하는 법률소비자운동의 의의를 깨달았습니다. 또한 2023년도 가을학기의 필수 봉사활동이 국정감사 모니터링이었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대표와 입법에 대한 기능이나 재정에 관한 기능, 헌법기관의 구성에 관한 기능 또는 국정통제에 관한 기능 등을 유효,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국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국회의 의무 이행 권한 행사 제도로써의 국정감사의 의미와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위시로 한 국회와 공직자들의 권한 행사에 관심을 갖고 주시해야 한다는 점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정치적인 상황이나 법학적 관점에서

의 논리 적용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나, 실질적으로 우리 민주 시민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위정자들의 의무 이행과 권한 행사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자세히 알아보려 하지 않은 지난 시간들에 대해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이후에 진행한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국회 내 상설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을 감사한 국정감사에서는 대법원장의 공석에 대한 우려와 국민들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재판의 지연 문제, 법원 노숙 노동자들과 법원과의 합의 사항이 노조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사안 등 특정 사건의 심리 결과와 같이 사법부의 본질적 권한에 속하지 않은 제반 사정에 대해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이어졌지만, 이재명 당대표나 지자체 보궐 선거의 김태우 후보자 등 특정 사건의 심리와 관련하여 정치색을 드러내는 질문 내지 지적을 하는 등 아쉬웠던 모습들도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중 어느 국회의원이 여러 사안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등에 대하여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실공사와 이에 따른 붕괴 사고에 대한 주택공사의 책임과 공기업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를 하거나 전과 카르텔을 형성하는 등 인사 개혁의 필요성, 공공주택의 공급과 층간 소음 문제 해소 등 여러 굵직한 주제들에 대한 질의응답과 대안 제시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 중이던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사건에 대해 방지 대책과 책임자 징계, 입주 예정자 피해 경감 방안 등의 여러 필수적인 논의들이 오고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답변 중에 말을 끊거나 호통을 치며 국정감사 진행을 어렵게 하거나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국회의원들의 태도에 있어서 선진적이고 모범적인 감사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 위원회가 경기도에 대해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도의 여러 신도시들이 겪고 있는 교통 문제점과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사안 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으로서, 국정감사에서의 경기도지사의 답변을 통해서 '더 경기패스' 등 살고 있는 지방에 도입될 정책에 관한 정보를 얻고, 이러한 정책의 도입 계획 내지 운영 상 유의점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국정감사를 국회방송을 통해서 대중에게 공개하는 목적에, 공직자들의 실책에 대한 명백한 사실 확인을 통해서 부정을 예방하는 목적 외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진행될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정보 전달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공직자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실책이 있었는지 감시하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거 등의 민주적인 방법으로 견제 내지 시정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

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 동국대학교 법학과 황 ○ 하

나는 법조인을 꿈꾸고 있으며 법학 이론에 대한 공부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경험해보는 활동을 하고 싶었다. 그러다 방학을 보내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최하는 봉사활동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 법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해 탐구하고자 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사법감시배심원단 법정 모니터링이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법정이라는 곳을 가보았고 재판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한 것도 처음이어서, 법정에 들어선 처음 느낌은 낯설음과 설렘의 공존이었다. 방청할 때에는 보고서 문항의 내용에 중점을 두어 모니터링하고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각각 공정하게 변론, 재판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감시하면서 재판내용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고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배심원단 활동 중에서도 특히, 저작권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이 기억에 남았다. 입건의 전 단계인 내사상태에서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통해 불법 수집된 증거를 가지고 기소한 검찰로 인해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된 사건을 바탕으로 한 공판준비절차였다. 해당 재판에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관해 좀 더 다루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된 것 같다.

다음으로 국정감사모니터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해서 비교적 편리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다. 국정감사는 보통 짧은 뉴스나 유튜브 등을 통해 주로 접했었는데,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10시간 정도 되는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하게 되어 국정감사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적인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특히나,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임위원회였던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 이른바 공수처의 압수수색영장에 대통령실 비서관이 개입되어있음이 기재되어있었다는 이슈가 인상 깊었다. 평소에도 공수처의 역할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외교통일위원회가 상임위원회였던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외교부가 관련 정보를 정확히 입수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로 인해 위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을 문제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국정감사를 보면서 우리 사회는 삼권분립의 체제 하에 돌아가고 있으며, 국민들은 각 기관들이 세운 정책은 올바른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감시하고 이를 국회에서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정리하자면, 내가 이번 학기에 했던 봉사활동은 장차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를 '감시'해보는 것이었다. 법원에서는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지, 국회에서는 제대로 국정감사를 하는지, 피감기관은 성실히 국정감사에 임하는지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 같다.

물론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판하지만, 정말로 어떠한 부당한 개입이나 불공정한 요소 없이 진실하게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지는지에 관해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국정감사도 마찬가지로 이 사회를 살기에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봉사활동이 끝나더라도 계속하여 대한민국을 '모니터링' 할 것이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황 ○ 선

평소 법과는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 법을 알지 못하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법'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법 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찾다가 법률소비자연맹을 알게 되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1) 국정감사 모니터링 2) 사법감시 배심원단 활동 3)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나는 법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뼈대를 구성하고 있었음을 처음으로 실감함과 동시에 법률연맹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감사'의 기능이 없다면 법이 권력 혹은 강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쉬울지도 모르겠다는 사실을 체감하기도 하였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국정 운영 현황을 전반적으로 감사하는 제도로, 국회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이다. 나는 법제사법과 국토교통 모니터링을 했는데 법제사법의 경우 현장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에 가게 되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법원 안으로 들어가 보는 경험이었다. 법원 안은 수많은 기자와 국회의원 및 피감기관 관계자들로 꽉 차 있었고 나는 NGO 모니터링단의 자격으로 뒷자리에 앉았다. 국회의원들은 사법기관의 잘못된 점들과 잘한 점들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는데, 아쉬웠던 것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너무 중복되어 질문되어 민생과 관련된 논의의 비중이 필요 이상으로 적어진 것이었다. 아무래도 야당이 주로 질의 시간을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관련시켜 사용했는데, 이는 국토교통 국정감사 때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고속도로 증점 변경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과 관련된 정치인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정감사의 취지에 맞을 수 있겠으나,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일 년에 한 번 있는 국정감사의 자리에서 여당과 야당이 민생보다 우선하는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연출했다는 점은 국정감사를 지켜본 많은 대한민국 국민을 씁쓸하게 만들었을 거라 생각한다.

법제사법 국정감사 모니터링 때문에 갔던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재판을 방청했다. 1조 원대의 다단계 사기와 관련된 재판으로, 특이점은 피고인이 사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사기를 저질러 6,000억 원대의 피해액이 1조 원대로 커졌고, 그 과정에서 현직 변호사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내가 방청한 재판은 그 변호사가 피고인인 사기 방조 사건이었다.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저질러지는 같은 종류의 범죄를 수사기관이 몰랐다는 점, 범행에 변호사가 가담한 점은 법 시스템의 허점을 여러 면에서 보여주고 있었다. 법

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법망을 피해 가기 쉽다는 것 때문에 법조인의 윤리성이 항상 강조되는 것 아닐까 한다. 부수적으로 덧붙이자면 이날의 재판은 증인 불출석으로 인해 12분 동안 짧게 진행되었는데, 다음 기일이 4개월 뒤로 정해지는 것을 보면서 법정 다툼이 왜 피를 말리는 싸움이라고 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당일 들은 바로는 피해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생업과 시간 싸움, 그리고 소송 비용에 지쳐 결국 피해자 모임이 흐지부지되어 재판을 끝까지 가기가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기나긴 법정 싸움을 하게 되면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생업과 정의 실현 중 양자택일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확률이 크니까. 슬픈 얘기지만 정의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권리가 아닌 것 같았다.

최근 명예훼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관련 사건으로 리서치를 진행했다. 학생회 임원진의 음주운전 문제 공론화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 해석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1심과 2심의 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혀 다시 원심법원으로 환송된 사건이었다. 공론화에 사적인 의도가 있었기에 공익성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본 1, 2심의 판결에 비해 대법원은 사적인 의도가 있었을지라도 공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공론화였기에 내용적으로 공익이 충분히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다.

같은 법리라 할지라도 판단하는 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만큼 법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판단하는 자의 공명정대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삼 느낌 판결이었다. 하지만 이는 위 재판에서 어느 한쪽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비록 다른 판결이 나올지라도 그 과정에서 주어진 자료에 충실하고 개인적 편견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노력을 들이는 것만이 그 결과인 판결이 공정성을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이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어떤 판결이 옳은 지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나는 법률소비자연맹 활동을 통해, 그동안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이라 여겼던 '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개인적 경험의 만족스러움을 떠나, 이러한 활동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하여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이 하기 어려운 '감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 이하 법률연맹 홈페이지의 자원봉사 소감문을 참조

**The Due(True) Administration
of Justice is the Firmest Pillar
of Good Government**
공정한 사법은 민주국가의
가장 튼튼한 기둥이다.

미국 George Washington이 1789.9.28.초대 대통령 취임직후
초대 법무부장관에게 당부한 편지에서 발췌한 내용임.
현재 뉴욕 변호가 Supreme Court에 각인·선언되어 있음